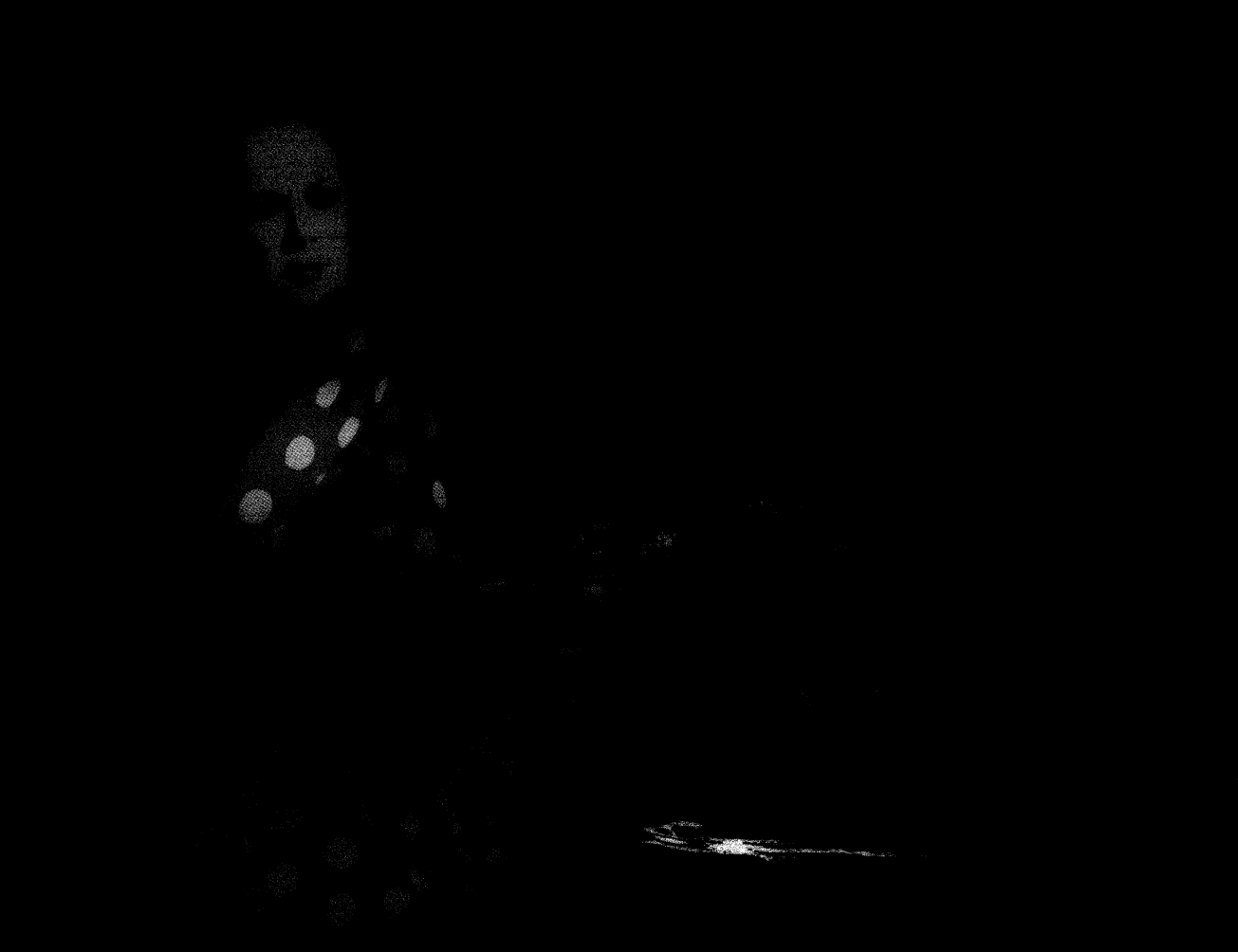


해와 해가 가득한 곳

주최: 한국문화재단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충남발전연구원



EM009187

충남발전연구원

발 간 사



지역의 개발 방안이나 정책의 수립에 있어 요구되는 지식이나 감각의 수준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환경에 익숙해진 지역민과 방문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제 감각의 체득으로 항상 참신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무엇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시도연구원협의회에서는 매년 외국의 선진도시나 지역을 방문해 그들의 발전 경험과 사례들을 수집·분석하여 각 지역의 정책 개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해외 도시나 유사한 고민을 안고 있는 지역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와 교훈은 지면이나 매체에서 얻는 정보와는 달리 깊이 있고 생생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2005년 해외연수는 6월 14일부터 25일까지 서구 문명을 태동시킨 강렬한 태양과 바다의 나라인 남부 유럽 4개국의 주요 도시를 방문하여 그들의 관광자원에 숨겨진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관광정책의 방향과 동향을 듣고 토론하는 일정이었습니다.

농어업국에서 관광국으로 과감히 변모한 포르투갈에서는 서구화되지 않은 독창성과 문화자산을 기반으로 세분화 된 관광 수요를 겨냥한 관광정책의 조언을 들었으며, 해양대국의 후예인 스페인에서는 다양함에서 피어나는 고유성이라는 매력과 문화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서구 문명의 요람지인 그리스에서는 문화자산의 상품화뿐만 아니라 철두철미한 환경개념으로 귀중한 해양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지역연합 브랜드를 통해 더욱 강력하고 일관된 이미지로 해외 공세에 나서는 이탈리아의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 방안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발간되는 '해와 해가 가득한 곳'에는 연수에 참가한 각 시도 연구원들이 전공 또는 관심분야별로 방문지역의 개요와 방문국의 관광 기념품, 방문지 리포트, 연수국가의 주요 관광 통계 및 정책 동향에 대해 고찰한 내용과 정보를 실었습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이 관광과 관련된 정책개발이나 해당 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거듭 활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연수보고서가 발간 될 수 있도록 집필에 적극 참여한 충남의 권영현, 대구경북의 송은정, 인천의 심진범 연구원에게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수월치 않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수를 성공리에 마치도록 이끌어 주신 김영삼, 조재욱, 박광섭, 서근태, 최덕철, 한영주, 고부언 원장님을 비롯하여 기획부터 모든 일정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해 주신 인천발전연구원 여러분과 성원해 주신 모든 연수단께도 발간사를 통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8월

2005년 시도연구원협의회 해외연수단장/충남발전연구원장 김 용 응

목 차

I. 연수개요	3
1. 연수 일정 및 참가자	3
2. 연수 국가 및 도시 개요	6
II. 연수 리포트	21
남부유럽 관광기념품의 특성	21
남부유럽 방문지 리포트	33
연수 국가 주요 관광 통계 및 정책 동향	52
III. 사진으로 보는 남부 유럽	79
1. 포르투갈	79
2. 스페인	82
3. 그리스	86
4. 이탈리아	89
5. 연수단 활동	94
부 록	101
1. 리스본 관광협회 및 프로모션 관련 자료	101
2. 대구경북연구원 원내 보고자료	128

I . 연수 개요

1. 연수 일정 및 참가자
2. 연수 국가 및 도시 개요

I. 연수 개요

1. 연수 일정 및 참가자

1) 연수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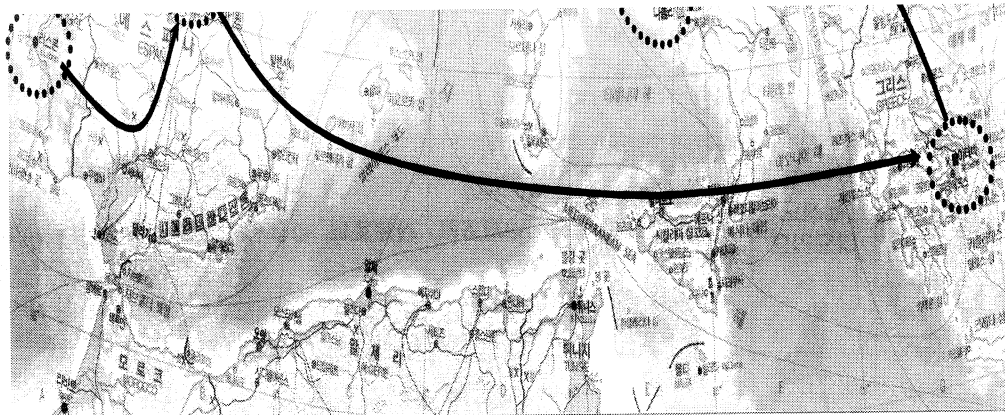
○ 연수 지역 :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부유럽 4개국 수도 중심

○ 연수 일정 : 2005년 6월14일(화) ~ 6월25일(토)

<표 1-1> 연수일정

일 자	지 역	일 정	
6.14. (화)	이동	인천국제공항 출발 프랑크푸르트 경유 리스본 도착	
6.15. (수)	리스본 시내	에두아르도 7세공원, 마차박물관, 제로니모스 수도원, 발견기념비, 벨렝, 구도심 바이샤지구 · 알파마지구 등 답사	
6.16. (목)	리스본 신트라 까보다로까	리스본 관광협회 방문 신트라 지역 답사 : 무어인의 성터, 페나성, 시가지 까보다로까 답사	
6.17. (금)	마드리드	리스본 출발, 스페인 마드리드 도착 그란비아 거리, 스페인광장 답사 쁘라도 미술관 관람(세계 3대 미술관) 스페인 문화상품 플라밍고 관람	
6.18. (토)	톨레도 마드리드	톨레도(세계문화유산) 이동 - 톨레도 대성당, 구시가지, 산토토메 성당 등 답사 마드리드 왕궁 관람	
6.19. (일)	마드리드 아테네	1진 : 전일 이동(마드리드 출발, 로마 경유 아테네 도착) 2진 : 마드리드 투우박물관 관람 후 아테네 도착	

일 자	지 역	일 정
6.20. (월)	아테네	에게해 1-day 크루즈 통해 포로스, 이드라, 에기나 섬 답사 - 매력도가 다른 3개 섬을 패키지로 판매하여 3개 도서 모두가 관광수입 창출
6.21. (화)	아테네 로 마	국립고고학박물관 관람 파르테논 신전 등 아크로폴리스 답사 제1회 근대 올림픽경기장, 제우스 신전 답사 신타그마광장, 국회의사당 무명용사비 답사 오후 로마 이동
6.22. (수)	로 마	이태리 정부관광기구 ENIT 방문 바티칸박물관 상피에트로성당 바티칸시국 답사 콜로세움, 포로로마노, 대전차경기장, 스페인광장 등 답사
6.23. (목)	폼페이 쓰렌토 카프리 나폴리	폼페이 유적 답사 쓰렌토 답사 카프리섬 답사 나폴리 항 경유 로마 귀환
6.24. (금) ~ 6.25. (토)	로 마 이 동	카타콤베(기독교 성지) 답사 로마 레오나르도다빈치 국제공항 출발(인천 행) 인천 국제공항 도착(6.25)



<그림 1-1> 연수 지역

2) 참가자

○ 연수 참가자는 아래 표와 같음.

○ 2005년 연수의 간사 역할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함.

<표 1-2> 연수 참가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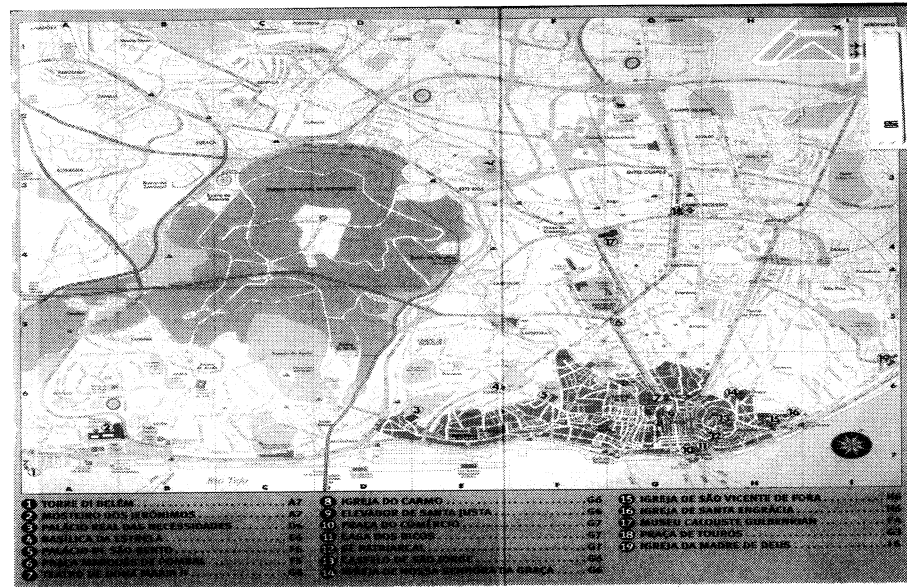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단장 및 임원단	충남발전연구원	원 장	김용웅
	부산발전연구원	원 장	김영삼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원 장	조재욱
	대전발전연구원	원 장	박광섭
	울산발전연구원	원 장	서근대
	경남발전연구원	원 장	최덕철
	전북발전연구원	원 장	한영주
	제주발전연구원	원 장	고부연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기획조정차장	박광주
	대구경북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서인원
		책임연구원	송은정
	인천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심진범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도시지역연구실장	곽행구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임병호
	울산발전연구원	연구원	배은경
	경기개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성현찬
	충북개발연구원	기획팀장	김진덕
	충남발전연구원	산업디자인팀장	권영현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한도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신동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사무국장	권혁소
행정	부산발전연구원	사서과장	이강순
		관 리 직	김영란
	대구경북연구원	관 리 직	송순근
		행정실장	강세창
	경기개발연구원	사무처장	이강수
		관 리 직	민인숙
	강원발전연구원	관 리 직	김나운
		사무처장	백남훈
	충남발전연구원	총무과장	최재근
간사	인천발전연구원	행정실장	최원구
		관 리 직	김행화
	전북발전연구원	관 리 직	오대균

2. 연수 국가 및 도시 개요

1) 포르투갈

(1) 국가 개황

- 수도 : 리스본(Lisbon, 약 200만명)
- 인구 : 약 천70만명
- 면적 : 92,131km² (한반도의 약 2/5)
- 주요도시 : 뽀르또(Porto), 꼬임브라(Coimbra)
- 주요민족 : 이베리아족, 켈트족, 게르만족 및 무어족 등의 혼혈 민족
- 주요언어 : 포르투갈어(Portuguese)
- 종교 : 가톨릭



<그림 1-2> 리스본 시내 지도

(2) 자연 지리적 특성

- 이베리아 반도 대서양 최서단에 위치한 포르투갈은 해안지방의 경우 겨울에는 따뜻하며 여름에는 서늘한 온난한 해양성기후의 특징을 보임.
- 국토를 동서로 양분하는 테주강을 경계로 북부 산악지방은 강우량이 많고 다습하며 남부는 화창하고 건조한 쾌적한 기후대를 보임.
- 전유럽에서 가장 긴 일조시간으로 작물 재배에 유리, 산지로 이루어진 북부에서는 포도, 옥수수, 감자, 호밀 등을 재배하고 평야로 이루어진 남부 올리브, 코르크, 포도, 오렌지, 무화과, 아몬드를 재배, 각기 기후와 작물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음.
- 전통적으로 연근해 어업이 발달 대구, 정어리 등 수산물 생산이 많음.
-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체제에서 관광산업으로 전환하고 있음.

(3) 역사 문화적 특성

- 해양국가인 포르투갈은 그리스, 페니키아, 로마, 게르만, 무어인의 혼합체로 다양한 유형의 요소가 제각기 또는 혼재되어 표현되고 있음.
- 이슬람 세력의 영향으로 지금도 무어풍의 흔적을 쉽게 발견 할 수 있음.
- 15세기부터 활발한 해양진출에 따른 해양, 군사문화가 특색을 이루어 가로 시설물 등에서도 해양국가의 이미지를 표현
- 15세기와 18세기 초 국력의 전성시기 화려한 건축물이 대단위로 조성됨.
- 가톨릭의 본고장인 이탈리아 보다 엄격한 종교의 표방으로 종교 유적이 고스란히 현존되어 관광 자원화 됨.

(4) 대표적인 관광자원

□ 리스본 중심부(바이샤, 신시가지)

- 리베르다 대로 : 폭 90미터, 길이 1,200미터의 기획도로로 뽕발후작 광장에서 레스파우라도리스 광장으로 이어지는 리스본 중앙로 임.
- 로시우(동 페드로 4세 광장), 바이샤지구, 꼬메르썬우 광장, 테주강 일대

□ 바이루 알두지역

- 에펠의 제자인 라울 디퐁자르에 의해 설계된 상따 주스따 엘리베이터로 정상에 오르면 까르르 성당에 도착, 바이샤와 로시우가 한눈에 들어 옴.
- 성 로게 성당 : 16세기말 이탈리아의 건축가 필리보 테르지에 의해 지어짐. 로마에서 130여 명의 예술가에 의해 만들어져 선박으로 운반됨.
- 당시 포르투갈의 부와 이탈리아 바로크의 화려함을 보여주는 건축물

□ 알파마 지구(동부)

- 리스본에서 가장 오래된 지구로 본래 귀족들의 거주지였으나, 1775년 대 지진이 비껴간 이후 어민들의 거주지로 전환, 전형적인 포르투갈의 옛정취가 잘 남아 있는 곳임.
- 성 조르지 성 : 본래 방어를 성채이며 리스본 전체를 전망할 수 있는 장소
- 대성당: 12세기 리스본 재정복을 기념해 지은 성당으로 로마네스크, 고딕, 바로크 양식의 화려한 건축물

□ 벨렝 지구

- 마차 박물관 : 1905년 포르투갈의 마지막 왕녀 도나 아멜리아가 벨렝궁의 승마학교 자리에 세운 박물관으로 화려한 마차와 예술품 수준의 마장용품을 전시하고 있음.
- 제로니무스 수도원 : 1502년 동 마누엘1세가 해양개척자들과 그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수도원으로 고딕 양식의 변형에 해당하는 포르투갈만의 독특한 마누엘양식이 사용된 종교건축물
- 벨렝탑, 발견기념탑, 해양박물관



상따 주스따 엘리베이터

□ 신뜨라

- 산과 숲으로 둘러싸인 고풍스러움과 아름다움을 간직한 중세풍 성과 마을
- 동 주앙1세, 동 마누엘1세 때 지어진 마누엘 양식의 왕실 여름별궁으로 백조의 방, 까치의 방, 중국실에 가구, 아줄레주 등 장식물과 주방용품이 잘 보존되어 있음.

□ 로까 곳(까보 다 로까)

- 유럽 대륙의 최서단으로 깎아지른 절벽과 바람뿐인 황무지에 의미를 부여하여 관광 자원화 함.

2) 스페인

(1) 국가개황

- 수도 : 마드리드(Madrid, 470만명)
- 인구 : 3,966만 9,394명 (98년)
- 면적 : 501,788 km² (한반도의 2.3배)
- 주요도시 : 바르셀로나(Barcelona), 그라나다(Granada), 세비야(Sevilla)
- 주요민족 : 가스띠아족, 바스꼬족, 갈리시아족, 안달루시아족
- 주요언어 : 스페인어



<그림 1-3> 마드리드 시내 지도

(2) 자연 지리적 특성

- 이베리아 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서양과 지중해에 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포르투갈과, 피레네 산맥이 프랑스와의 국경을 이룬다.
- 대서양과 맞닿은 북부는 온난하며 비가 많고 마드리드가 위치한 중앙으로

오면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대, 동부와 남부는 연중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를 보여준다.

- 농업국에서 관광으로 전환하였으며 현재 가장 큰 수입원임.

(3) 역사 문화적 특성

- 해양국가인 스페인은 까스티아족, 그라나다족, 세비야족으로 이루어져 포르투갈처럼 다양한 요소와 색채를 발견할 수 있음.
- 800여년에 걸친 이슬람의 지배로 지금도 무어풍의 흔적이 남아 있음.
- 15세기부터 활발한 해양진출로 신대륙의 발견, 식민지 지배가 이루어짐.
- 전성기 때 조성된 왕궁, 성당 등 진귀한 문화재와 예술품을 보유
- 프랑스와 함께 교황청의 강력한 후원국으로 정통 가톨릭 국가임.

(4) 대표적인 관광자원

□ 마드리드 중심부

- 뿌에르타 델 솔 : 마드리드의 중심지로 광장을 끼고 있는 최고의 변화가
- 마요르 광장 : 펠레페 3세에 의해 완성된 마드리드의 중심지였던 광장
- 왕궁 : 3,000여개의 화려한 방을 가지고 있는 화강암 왕궁으로 내부에는 고야, 벨라스케스의 명화와 진귀한 시계 도자기 등으로 장식된 다양한 양식의 방이 있음.
- 세계를 제패하던 스페인의 영화를 엿볼 수 있으며, 내부의 무기박물관, 마차박물관 도서관의 소장품도 수준급임.

□ 브라도 미술관

- 순수 회화작품 위주의 최대 미술관으로 스페인 회화, 네덜란드와 플랑드르 회화, 이탈리아 회화로 나뉘어 전시되며, 고야, 벨라스케스, 엘그레코의 작품이 최대의 컬렉션임.

□ 톨레도

- 마드리드가 수도가 되기 전 1000년 동안 스페인의 수도 역할을 했던 곳
- 타호 강이 감싸 흐르며 이슬람 시대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중세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문화유산이 가장 많은 곳
- 대성당 : 알폰소 8세가 톨레도 탈환을 기념하여 세운 전형적인 고딕 양식의 성당. 길이 120, 폭 60미터에 이르는 규모의 대성당으로 내부에 파이프 오르간 등 진귀한 전시물이 소장되어 있음.



꼬치니오 아사도(톨레도)

□ 스페인의 전통음식

- 꼬치니오 아사도 : 2~3주 정도의 젓먹이 새끼 돼지 통구이
- 빠에야 : 오징어, 조개, 새우 등과 고기, 야채, 소스를 넣은 철판볶음밥
- 가스빠쵸 : 토마토와 아몬드를 갈아 만든 차가운 스프
- 하몬 : 스페인의 햄은 훈제가공이 아닌 중앙고원에서 자연 건조한 것이 특징

□ 플라멩고

- 15세기 경 스페인에 들어온 아라비아와 아프리카를 기원으로 하는 남부 안달루시아 집시들의 춤
- 유랑민의 슬픔, 격렬한 원시적인 열정을 표현
- 따블리오 : 플라멩고를 전문적으로 공연하는 극장식 식당



Corral de la Pacheca

3) 그리스

(1) 국가개황

- 수도 : 아테네(Athens)/약 4백만명
- 정치 : 의회주의, UN, NATO, EU 가맹국
- 인구 : 약 1,100만명
- 면적 : 131,986km² (한반도의 3/5)
- 주요도시 : 아테네, 테살로니케, 피레우스, 텔포이
- 주요민족 : 희랍인(97%), 터키인 등 기타(3%)
- 주요언어 : 그리스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 종교 : 그리스정교(Greek Orthodox : 98%), 이슬람교(1.3%)



<그림 1-4> 그리스 남부지역 지도

(2) 자연 지리적 특성

- 유럽의 동남부 발칸반도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지가 많은 지형
- 북쪽으로는 알바니아, 피룸, 불가리아와 접해 있고 이오니아 해의 서쪽으

로는 이탈리아, 동쪽으로는 에게 해를 사이에 두고 터키와 인접

- 여름에는 매우 고온 건조하며 겨울에는 온난한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
- 막대한 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산업이 주요 산업

(3) 역사 문화적 특성

- 기원전 2000년경 크레타에서 시작된 에게문명을 기원으로 예술과 문화의 극치를 보여주었고 로마에 계승되어 유럽문명의 기원이 됨.
- 기원전 5세기경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면서 도시국가 문명의 절정을 이룸.
- 다른 인근국과 달리 가톨릭이 아닌 그리스정교가 국교
- 400년 가까이 터키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반감이 심한 편임.

(4) 대표적인 관광자원

□ 파르테논 신전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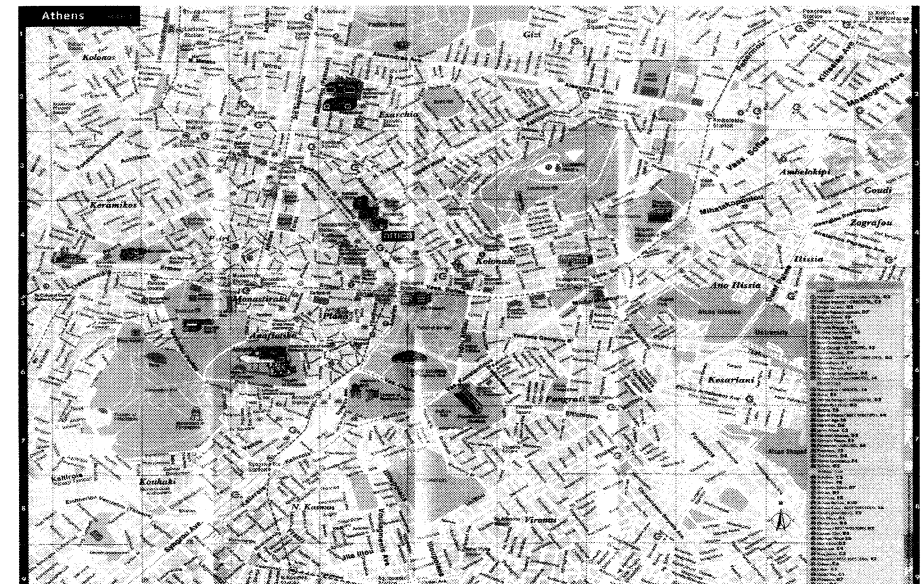
- 아크로폴리스 : 아테네 한복판 아크로폴리스 언덕으로 올림푸스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던 성역
- 파르테논 신전 : B.C 448년에 세워진 도리아 양식의 거대한 신전으로 아테네시의 수호신인 아테네 여신을 모신 곳
- 신타그마 광장, 자피온, 올림피아 제우스 신전, 올림픽 경기장
- 국회의사당 : 본래 왕궁이었으며 현재는 국회의사당으로 쓰이고 있음. 정면 벽면에는 1923년 터키제국에 항거하다 희생된 무명용사의 부조가 유명하며 그리스가 참전했던 한국 명칭이 새겨져 있음.
- 독특한 전통복장을 한 의장병의 교대식이 특이함.
- 국립고고학박물관 : 선사시대부터 비잔틴 시대에 이르는 수많은 유품과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그리스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 고대 컬렉션은 영국의 대영박물관에 버금갈 정도의 규모, 아르테미시온의 포세이돈, 아가멤논의 황금가면 등이 소장되어 있음.

□ 에게 해 연안 섬

- 포로스 : 펠레폰네소스 연안에서 가장 절경으로 꼽히는 곳. 고지대의 좁은 골목길이 인상적인 곳
- 이드라 : 사로닉 만 군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꼽히며 에메랄드빛 바다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음.
- 에기나 : 사로닉 만에서 가장 비중있고 비옥한 섬으로, 피스타치오 땅콩, 비잔틴 교회와 아파이아 신전 유적이 대표적인 볼거리



이드라 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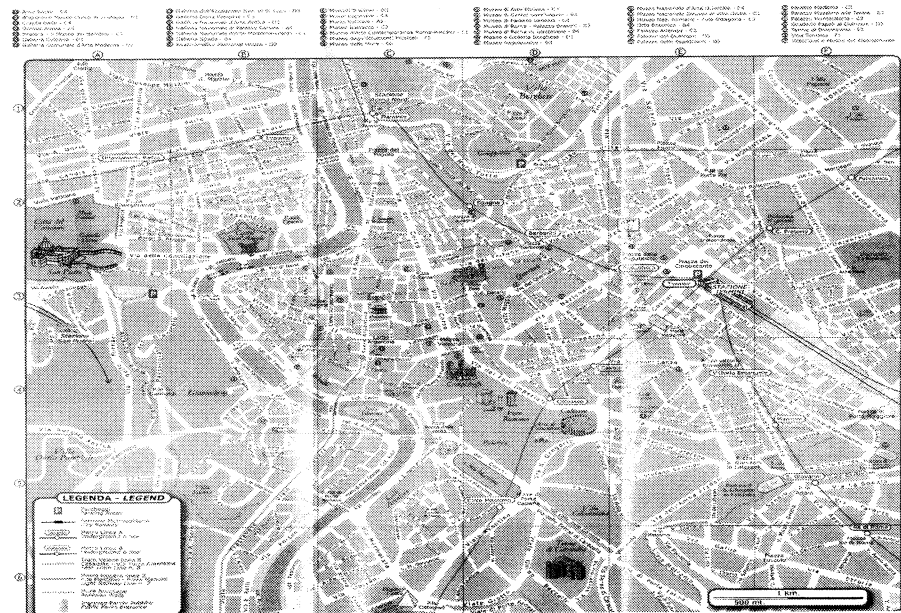


<그림 1-5> 아테네 시내 지도

4) 이탈리아

(1) 국가개황

- 수도 : 로마(Rome, 280만명)
- 인구 : 5,747만명(96)
- 기후: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
- 면적 : 301,230km²(한반도의 1.5배)
- 주요도시:로마(Roma), 밀라노(Milan), 나폴리(Napoli)
- 언어 : 이태리어
- 종교 : 가톨릭(98%)



<그림 1-6> 로마 시내 지도

(2) 지리 자연적 특성

- 유럽의 동남부 이탈리아 반도 위치하고 있으며 산지가 많은 지형
- 국토가 남북으로 길기 때문에 지방에 다른 기온차가 크며 국토의 대부분이 지중해에 싸여 있고 북부는 알프스 산맥과 경계를 이룸.
- 여름에는 고온건조하며 겨울에는 온난다습한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로 사계절의 변화가 큼.
- 섬유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발달했으며 관광산업이 주요 산업

(2) 역사 문화적 특성

- 고대로부터 아프리카와 유럽의 교량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서유럽 성격과 지중해 지역의 성격을 지님.
- 고대 그리스문명을 계승하여 실용화, 체계화 시켰으며 르네상스의 발상지로 근대 문화 예술의 꽃을 피운 주무대
- 교황령 바티칸시의 보유로 종교, 문화, 관광의 중심이라는 지위 부여
- 기독교의 전파지로 많은 종교 성지를 보유, 자원화

(3) 대표적인 관광자원

□ 바티칸

- 시스티나 예배당 : 교황선출회의가 열리는 장소로 조각가인 미켈란젤로의 천재성이 유감없이 발휘한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으로 유명
- 바티칸 미술관 : 본래 교황이 거주하던 궁을 18세기 후반 미술관으로 공개,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 같은 대가를 포함 르네상스 예술가들이 참여하였고 지속적인 미술품을 수집하여 지구상의 귀중한 문화재 40%가 소장되었다고 함.
- 팔각정원 : 라오콘, 아폴로 상 등 고대의 유명한 조각들이 전시
- 상피에트리성당 : 르네상스 건축의 최고 걸작으로 세계 최대의 성당임.

□ 스페인 광장 주변

- 스페인 광장 : 17세기 이곳에 스페인 대사관이 있었던 것에 유래되며 영화 로마의 휴일의 주요장면의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고 있음.
- 트레비 분수 : 페가수스를 탄 바다의 신 넵툰과 트리톤으로 구성된 아름다운 분수대로 로마를 방문하면 반드시 들러야 하는 명소로 자리 잡음.
- 포플로 광장 : 예전의 로마의 관문이었던 광장으로 이집트에서 운반해온 오벨리스크가 상징임

□ 콜로세오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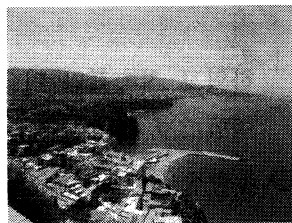
- 콜로세오 : 기원전 80년 완공된 원형경기장으로 전체 수용인원이 9만명에 이르는 규모로 설계됨.
- 포로 로마노 : 고대 로마제국의 정치, 종교의 중심지이자 대화, 교역장소
- 팔라티노 언덕 :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가 로마를 건국한 언덕

□ 폼페이

- 인구가 2만명에 이르렀던 로마 귀족들의 휴양도시로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화산재에 파묻힌 도시가 되었다가 1784년 발굴 됨.
- 고대의 생활상을 생생히 볼 수 있는 고스란히 발굴된 유적에는 완벽한 수도시설, 포장도로, 벽화, 조각, 모자이크 등을 볼 수 있음.

□ 나폴리 인근

- 나폴리 : 세계 3대 미항의 하나로 아름다운 경치보다는 이탈리아 서민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
- 카프리 : 나폴리 선착장에서 쾌속선으로 40분 소요. 신비한 바다색을 내는 푸른동굴이 압권. 정상인 솔라리오 산에 오르면 카프리 전경을 전망



II. 연수 리포트

남부유럽 관광기념품의 특성
남부유럽 방문지 리포트
연수 국가 주요 관광 통계 및
정책 동향

II. 연수 리포트

남부유럽 관광기념품의 특성

충남발전연구원 권영현

1. 포르투갈

1) 관광기념품의 유형

(1) 대표적 관광기념품

□ 타일공예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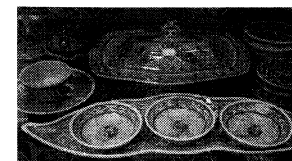
- 사라센의 영향으로 타일공예가 특색 있게 발달되었음. 대량생산 공예가 아닌 개별의 수공예 작품으로 벽면 장식, 테이블용품이 주요 상품임.
- 단품에서 여러 조각의 대형 작품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상품으로 자리매김.

□ 채색도자기

- 전통문양의 섬세한 수 제작 자기와 사라센에서 전래된 중국풍의 코발트색조의 자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전통 도자기 외에 해양 분위기의 강렬한 색채와 패턴이 돋보이는 현대풍의 도기 또한 선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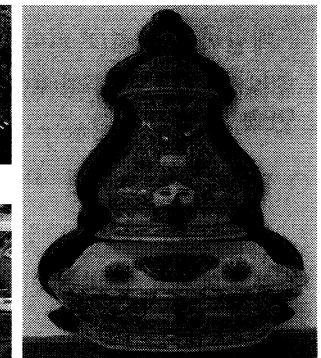
다양한 색조와 용도의 타일 공예품



전통문양의 채색화 도자기



해양풍의 현대도기



벽걸이형 채색화 도자기

□ 금속공예품

- 활발한 해양진출에 따른 병기류, 마장구 제작 기술의 발달로 섬세하며 품격 있는 금속공예품을 생산함.
- 주화형태의 시리즈물도 제작 판매되고 있음.

□ 테피스트리

- 수공예직조물을 이용한 일상용품의 개발

□ 코르크

- 포르투갈의 대표적인 산물인 코르크를 원단화 하여 병마개 외에 의류, 지갑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2) 상품화 소재

□ 박물관 소재

- 마차박물관 등의 박물관에서 복식 미니어처, 타일공예품, 도자기류, 금속공예품, 아동용품 등 다양한 타깃과 용도에 따른 상품군을 형성
- 주제가 되는 모티브를 이용, 판매 장소의 고유성을 분명히 지님.

□ 종교 소재

- 전통적으로 강력한 가톨릭 표방국으로 성물 외에 종교적 소재의 기념품의 개발이 현저함(파티마는 주요 성지 순례지임).

□ 민속 소재

- 닭과 성자에 얹힌 이야기를 토대로 닭이 행운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마스코트로 정착되어 다양한 용도의 상품군으로 개발됨.
- 포트와인 : 일반 와인보다 알콜 함량이 높은(19도) 당도 높은 포도주로 포도 생산이 많은 포르투갈의 특색있는 관광기념품임.
- 재료 : 자연소재인 세라믹, 아줄레주, 코르크, 유리 등과 은, 백동, 황동 등 금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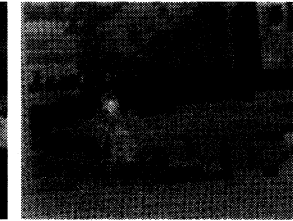
마차박물관의 의상, 도자기 미니어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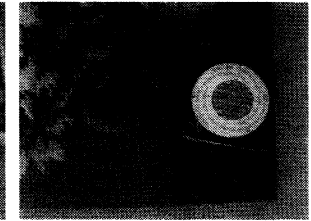
왕관, 휘장 등을 이용한 금속공예



코르크 원단 상품



수 공예품 인증표시 1



수 공예품 인증표시 2

2) 관광기념품의 고유성

(1) 다양성 속의 차별성

- 여러 민족이 융합되어 형성된 포르투갈은 이슬람의 무어풍이나 이탈리아, 프랑스풍이 혼재가 되었으면서도 포르투갈만의 고유한 양식을 도출하여 정형화하였음.
- 이러한 고유성의 창출은 자칫 동일시 될 수 있는 스페인과의 차별화가 가능하게 함.

(2) 수 공예품 위주의 상품군

- 손으로 제작된 수공예품은 관광기념품이 지닌 고유성의 첫 번째 조건임.
- 대부분의 관광기념품이 한 장소에서만 판매되는 단품이기 때문에 고유한 가치를 지님.

3) 시사점

(1) 새로운 전통의 재창출

- 포르투갈의 전성기는 16세기 이후 200여년에 불과하며, 리스본 시가 등

현재의 모습은 근세에 들어 재형성된 사례가 많음.

- 왕궁, 성당 등의 보유한 문화재가 생명력 있고 친근한 대상으로 존재
- 민간설화 등에 기인한 이야기의 정형화 및 상품화
- 항해기념탑 등 과거 역사의 현대적인 재창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 서구화 되지 않은 유럽 본 모습이 남아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

(2) 수공예품의 인증표시

- 손으로 제작된 수 공예품임을 인증하는 봉납, 홀로그램 등의 인증표시
- 도자기, 테피스트리, 소품 회화 등 작가군의 적극적 활용(실명제)

(3) 적극적인 관광기념품 홍보

- 포르투갈 관광센터 입구 주요부에 관광기념품 홍보 판매대의 설치 운영

2. 스페인

1) 관광기념품의 유형

(1) 대표적 관광기념품

□ 금속 공예품

- 돈키호테가 먼저 연상되는 스페인은 예술품 수준의 도검이 생산되던 곳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장식용 검이 대표적인 관광기념품으로 자리 잡음.
- 문장이 부착된 중세풍 방패, 갑옷, 투구 등이 이채로운 상품군을 형성
- 금속가공 기물류 역시 대표적인 특산물임.

□ Simian 금입사세공품

- 톨레도 근처의 금입사(금속 표면에 문양을 파내고 그 홈에 금실을 삽입하는 세공술)공방 겸 판매장에서 제작되는 공예품은 스페인의 고유성이 살아있는 상품임.

- 전통적인 세공방법 외에 약품 부식 또는 기계로 조각한 후 그 부위를 금박(스탬핑)가공하는 대량생산품을 병행 생산하여 상품의 가격대를 이원화

□ 가죽제품

- 스페인의 가죽제품은 질 좋고 저렴한 편임. 알리칸테와 발레리 군도에서 만든 수제화가 유명



다채로운 기법의 유리공예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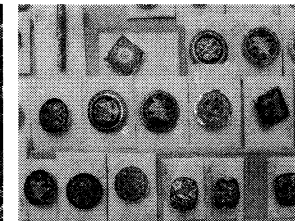
금속 기물상품



정교한 제작기법의 검류



중세풍의 장식용품



금입사 세공의 장식용 버튼



다양한 금입사 세공품

2) 관광기념품의 고유성

(1) 세계적인 건축물과 예술품의 보유

- 비슷한 유형의 포르투갈과 비교하여 규모면에서 웅장하며 문양 표현 등이 잘 정돈된 차별력이 있음.
- 국력이 왕성한 시기에 건축물과 예술품의 조성, 제작, 수집으로 자원화
- 이러한 문화재의 보유는 국가이미지를 판단 짓는 기준으로 작용

(2) 전통산업의 계승

- 일반적인 누금, 도금, 주물 방식 외에 스페인만의 독특한 금속 군수산업에서 유래한 노하우를 현대로 계승시켜 상품화

- 왕궁의 가로등주에서도 볼 수 있는 금속 장식의 극치를 지속하여 이어감.

3) 시사점

(1) 지속되는 전통의 맥락

- 과거와 현대가 단절되지 않고 공존하는 사회상
- 종교건축물 또는 왕실 수집예술품의 공자원 개념
- 문학 작품의 구체적 형상화가 상품화로 이어짐 (돈키호테).

(2) 전통공예산업의 이원화

- 금입사 세공품의 전통제작방식의 고가품 외에 대량 생산방식으로 이원화
- 대량생산품의 존재가 수공예품의 가치를 유지시키는 역할
- 우리 지역의 모시상품 등에 도입 가능성(전통 모시와 기계화 모시)

(3) 스타일의 정립

-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명료한 양식을 체계화하고 이를 따름.
-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우리의 건축 미술사 양식의 정리 필요

3. 그리스

1) 관광기념품의 유형

(1) 대표적 관광기념품

□ 도기 재현품

- 그리스 관광기념품 중 대다수가 고대도기의 재현품인데 각기 시대에 따른 양식의 특성을 살려 다양하게 재현하였음.
- 동방화 양식 : 이집트와 근동의 영향을 받았으며 식물의 문양과 그릇의 대부분이 설화의 인물로 이전 시기보다 자유롭게 채워진 것이 특징
- 아르카익 양식 : 기하학적 양식과 동방화 양식을 거치며 그리스적인 양식

으로 정착되는 시기로 건축, 조각, 회화 등에서 고루 발전하였음.

- 내용은 '네메아의 사자를 교살하는 헤라클레스', '에오스와 멤논' 등 신화의 소재가 대부분임.
- 흑색상 : 아르카익 아티카 지역의 도기 종류로 붉은 빛의 진흙에 검정으로 실루엣을 새겨 넣어 표현하는 특징을 갖는 도기
- 적색상 : 그림을 새겨 넣는 흑색상 기법 대신 붉은 빛으로 그림을 그린 도기

□ 금속 재현품

- 아가멤논의 황금 마스크, 주화 등 정교한 금속 공예품을 축소 재현
- 부엉이 형상의 초기 코린트식 향수병을 모티브로 하는 금속 공예품(부엉이는 유럽에서 지혜의 상징)
- 현대 감각의 부조식 추상 형태의 금속 공예품으로 발전

□ 조각상의 재현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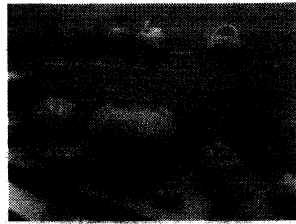
- 고전기 양식의 수많은 조상들의 축소 재현품으로 그리스 고전기의 모티브 뿐 아니라 그 이후의 로마나 중세 회화에서의 주제를 재현한 상품
- 파르테논 신전 등 주요 건축물의 축소 재현품

□ 농특산물

- 웰빙 추세에 따른 올리브 가공 상품(올리브 오일, 비누 등)
- 에기나 섬의 특산물 피스타치오

□ 전통인형

- 그리스 전통의상을 정교하게 축소 재현한 인형 등이 인상적인 상품으로 동일한 형태가 없을 정도로 매우 다양함을 보임.



기하학적 문양의 고대 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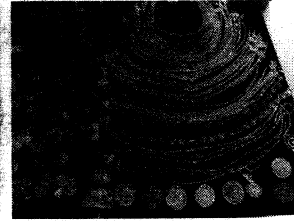
아가멤논의 황금마스크



아티카 흑색상 양식의 재현 도기



동방화 양식의 재현 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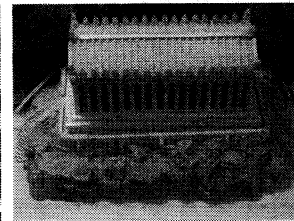
고대 유물을 모티브로 한 금속공예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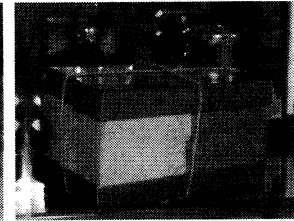
현대 감각으로 재현된 금속공예품



고대 조상의 축소 재현품



파르테논 신전의 축소 재현품



올리브 비누세트



전통의상이 정교한 인형

2) 관광기념품의 고유성

(1) 고대 문명의 원류

- 서구 문명의 원류로 완전함을 의미하는 클래식 시기의 유물을 보유
- 석조, 금속 위주의 유물로 잦은 전란에도 잘 보존된 편임

(2) 그리스의 차별성

- 유럽문화의 원류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의 차별성은 오히려 미약할 수 있으며 로마의 문명과 유사하여 동일시되기 쉬움.
- 고대 유물의 재현품 보다 오히려 민속의상의 인형 등이 그리스의 고유성을 표현하는 품목임.

(3) 양식별 재현

- 고대 유물을 특징별로 분류하여 고증 및 체계화 된 기념품 군의 개발

3) 시사점

(1) 재현품 만으로의 한계

- 유물의 재현품 만으로는 다양한 계층, 가격대를 형성하기 어려움.
- 전통 제작방식의 고가 재현품, 대량생산품, 새로운 상품 소재의 발굴이 절실
- 이미 익숙해진 신화에 가려 새로운 이야기의 발굴과 창작이 어려움.

4. 이탈리아

1) 관광기념품의 유형

(1) 대표적 관광기념품

□ 도자기

- 도자기 품목이 현저하였으나 이탈리아의 독창성 보다는 스페인, 포르투갈과 유사점이 많았음.

□ 고대 유물 재현품

- 그리스 기념품과의 품목과 유형 등에서 다양한 재현품이 유통되고 있음.

□ 유리공예품

- 베네치아 인근의 무라노 섬은 세계적인 무라노글라스의 생산지

□ 그림엽서

- 진귀한 문화재와 예술품의 사진집, 도록 등을 판매

□ 종교 관련 성물

- 바티칸시를 포함하고 있는 가톨릭 종주국으로 성지 순례지이기도 한 이탈리아는 종교 관련 성물도 주요한 관광기념품 품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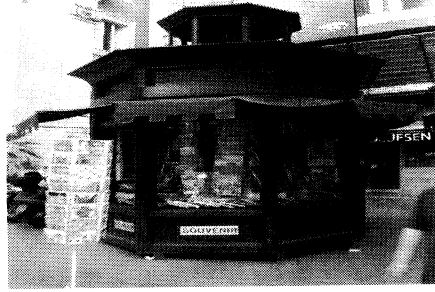
고대 유물을 재현한 상품



수작업의 다양한 도자기



약재로 담긴 리쿼



가로에 조성된 기념품 판매 부스

2) 관광기념품의 고유성

(1) 이야기의 끊임없는 창조

- 세계 수준의 역사 문화유산을 보유 했음에도 끊임없는 이야기 만들기
- 영화를 통한 지역 마케팅의 효시(50여년이 지난 현재에도 유효)

(2) 자원의 풍족에 따른 독창성의 결여

- 남부 유럽 중 가장 풍부한 역사 문화 자원과 자연 자원을 보유했음에도 이탈리아 만의 독창성을 띤 상품이 희박함.
- 다른 국가와 달리 역사 지원의 의존 외에도 섬유산업, 자동차 산업 등의 신산업의 발달과 유리공예 등 새로운 유형의 공예의 발달

(3) 산업 체계의 제한

- 관광기념품 생산 구조가 국내 의존 보다는 해외 완제품의 국내 유통
- 이러한 국경 없는 유통체제는 자칫 고유성 결여로 이어질 수 있음.

3) 시사점

(1) 이야기 만들기

- 현재 보유한 관광 자원에 전적 의존 보다는 주변 소재의 격상으로 동일한 가치의 상품군 형성
- 과거 방어 요새였던 관방 기지의 관광상품화
- 유명 이탈리아 가곡의 고향인 경우도 여러개의 배경 스토리 구비

(2) 관광기념품 판매 부스의 설치

- 공간이 부족한 로마 시내의 경우 컴팩트한 규모의 판매 부스의 보급, 설치로 효율적인 공간 활용

5. 전체 결론

1) 과거와 현재의 공존

- 역사 유산이 과거의 산물로의 취급이 아닌 살아있는 생활속의 한 단편
- 1,000년이 넘는 도로를 지금도 사용, 고건물 역시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
- 좁은 길은 삼륜차로, 더 좁은 길은 당나귀가(우리 섬의 버스와 대조)

2) 문화의 축적과 일상화

- 고품격 예술품에의 투자는 낭비나 사치가 아닌 공공 자산의 축적
- 왕실과 성당의 예술에 대한 권장과 수집이 결국에는 공공의 자산으로 환원되고 있음.

3) 살아있는 역사 만들기

- 문화 역사 자원이나 자연 자원의 활용은 더욱 많은 의미 부여로 생명력
- 이러한 이야기 만들기는 계속 되어야 하며 전략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4) 버튜얼과 탱지블

- 가상의 세계 보다는 실제 만져지는 오감 만족의 실체가 고품격의 관건
- 이러한 환경에서 다양한 스타일의 아티스트가 배출 되며 많은 관광기념품이 아티스트들의 작품들임.

남부유럽 방문지 리포트

대구경북연구원 송은정

1. 포르투갈(Portugal)

1) 리스본 시내답사

- 그리스신화의 영웅 오디세우스가 건설한 도시란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리스본은 1755년 대지진으로 16세기 전후의 건축물들이 많이 손상됐었음.
- 구시가지엔 아직 옛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그때의 영화를 느껴볼 수 있음.

□ 리베르다데 대로와 에두아르도 7세공원

- 리베르다데 대로는 길이 1.5km, 폭 90m로 리스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넓은 길로 리스본의 샹젤리제라 일컬어짐.
- 모자이크 모양의 보도를 북쪽으로 걸어 올라가면 폼발 후작 광장(Praca marques de Pombal)으로 통합.
- 폼발 후작은 지금의 리스본 시를 건설한 18세기의 유명한 정치가로 그의 동상이 광장에 세워져 있음. 폼발 후작 광장은 녹색의 아름다운 에두아르도 7세 공원으로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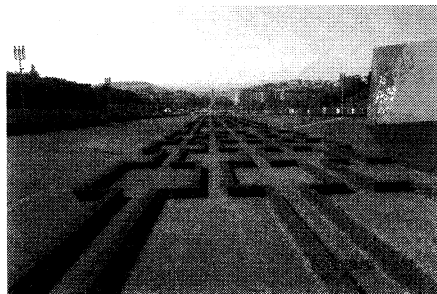
□ 마차박물관 (Museu Nacional dos Coches)

- 벨렘 지구에 있는 세계에서도 진귀한 마차만을 모아놓은 유럽유일의 마차 테마 박물관임. 60 종류의 마차가 어두컴컴한 실내에 정연히 진열되어 있는 것이 장관임.
- 관광객들을 따라다니며 “No Flash!!!”를 연발하는 뚱뚱한 할머니 직원의 프로의식도 꽤 볼 만 함. 로마 주재 포르투갈 대사 전용 금마차, 왕후 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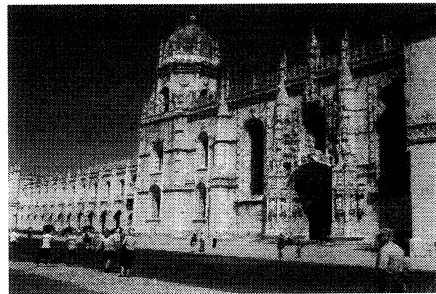
족의 여행용 마차, 결혼 의식용 마차 등 여러 가지가 있음.

□ 벨렘지구의 제로니모스 수도원 (Mosteiro des Jeronimos)

- 16세기에 마누엘 1세가 지은 수도원으로 내부에는 대항해시대를 떠오르게 하는 바다와 배를 주제로 한 장식이 눈에 띈.
- 바스코 다 가마와 포르투갈 최대의 시인 카몬에스의 석판도 있음.
- 한 변이 55m의 회랑으로 둘러싸인 정방형의 정원도 매우 아름답음



에두아르도 7세 공원과 리베르다데 거리



제로니모스 수도원

□ 바스코 다 가마가 항해를 떠난 자리에 세워진 발견기념비(Padrazo dos Descobrimentos)

- 벨렘 지구의 테쥬 강변에 있는 발견기념비는 1960년에 엔리케 왕자의 500회 기일을 기념해서 세웠음. 높이 52m로 범선을 주제로 해서 바다로 떠나는 용감한 분위기를 표현해내고 있음.
- 엔리케 항해 왕자를 선두로 천문학자·선교사·지리학자 등 이 시대의 제일 선상에서 활약한 자들이 그 뒤를 잇고 있음. 대리석으로 만든 광장 중앙의 세계지도에는 세계 각지를 발견한 연호가 기록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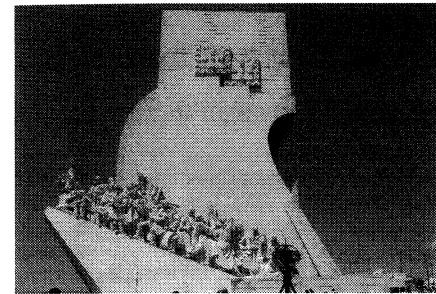
□ 벨렘탑(Torre de Belem)

- 16세기 초에 세워진 돌탑으로 발견의 기념비에서 1km 정도 떨어진 테쥬강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곳에 있음.

- 탑은 3층이 왕족의 거실, 2층이 포대, 1층이 수옥이었음. 3층의 테라스에 서는 맞은편의 거대한 그리스도 상 크리스토 레이 (Cristo Rei) 등이 보임.

□ 골목사이에서 옛 정취가 느껴지는 알파마(Alfama)

- 알파마는 1755년 리스본 대지진에도 무너지지 않은 곳으로 옛 리스본의 풍치가 그대로 남아있음.
- 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골목들이 미로처럼 연결되어 있으며, 창가에 늘어선 빨래나 즐비한 생선가게 등 서민의 애환을 느낄 수 있어 그런지 웬지 모르게 이국적인 낯선 눈길에도 정겨운 느낌을 줌.



발견기념비



알파마

2) 리스본 외곽(까보 다 로까, 신트라) 지역 답사

□ 유럽의 땅끝마을 까보 다 로까(Cabo da Ro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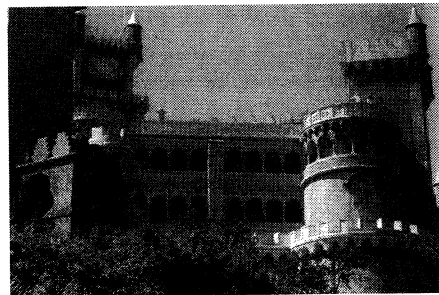
- 리스본을 벗어나 로까 곳까지 한 시간 정도 걸리는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가 끝나면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시인 카몽의 글이 새겨진 기념탑이 세워져 있음.
- 이곳의 공식 지명은 '까보 다 로까(Cabo da Roca)'인데 유라시아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서쪽에 위치한 곳이며 이곳이 바로 500년전 까지만 해도 유럽인들이 지구의 끝이라고 믿었던, 유라시아 대륙의 끝임.
- 관광안내소에서는 여행자의 이름과 날짜가 들어간 일종의 '유럽 최서단 방문 증명서'(물론 유료)를 발급해주는 특이한 서비스를 하고 있음.

□ 바이런의 에덴동산 신트라(Sintra)

- 리스본에서 29km 떨어진 유서깊은 이 도시는 리스본의 북서쪽에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그 자연미를 바이런이 <에덴의 정원>이라고 노래했을 정도임.
- 신트라 산꼭대기 화강 암반위에는 아름다운 페나성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 궁전은 16세기에 건축되었던 수도원 터를 19세기 중엽 페르난두(Fernando) 2세가 궁전으로 개조한 것이라고 함.
- 아랍, 고딕, 마누엘리누, 바로크 등의 다양한 건축양식과 주변의 울창한 숲과 계곡의 정원이 일품인 왕궁은 공화제가 선언(1910년)되기 직전까지 사용되었음.
- 페나성은 작은 산 위에 서 있으며 발코니에서는 멀리로 대서양이 보임.



까보다로까 비석



신트라-페나성

2. 스페인(Sp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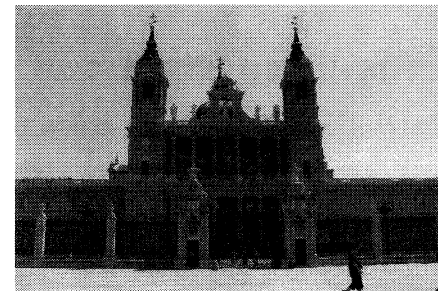
1) 마드리드 시내답사

- 1581년 스페인 제국의 전성기에 마드리드를 수도로 정한 이래 400여년간 스페인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유럽의 타국가의 수도 중 가장 높은 고지대인 해발 646m에 자리하고 있는 고원도시임.
-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마드리드는 유럽 문명과 아랍 문명의 요소가 잘 결합되어 그 매력을 더하고 있으며, 고색창연한 건축물과 미술관, 박물관,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음.

- 또한 신시가지에 들어서면 현대적인 빌딩거리가 펼쳐지며 고층건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주변으로 팽창해 나가는 대도시의 추진력과 활기를 느낄 수 있음.

□ 화려함의 극치, 마드리드 왕궁

- 일명 동쪽 궁전(Palacio de Oriente)으로 유럽의 가장 아름다운 바로크식 왕궁중의 하나임.
- 9세기경 아랍인들이 지배할 당시 요새화 된 왕궁을 개조하여 오스트리아 왕가의 성으로 사용하였다가 1734년 화재로 전소된 곳에 부르봉가 왕가의 시조이며 베르사이유궁에서 유년시절 보낸 Felipe V세가 베르사이유 궁전을 모델로 하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돌과 화강암으로만 건축, 1764년 완공된 뒤 왕정이 문을 내린 1931년까지 역대 스페인 국왕들의 공식 거처로 사용되었음.
- 현재는 박물관, 영빈관으로 사용되며 국민리셉션 등 국왕공식행사를 왕궁에서 거행하고 있음.



마드리드 성



마드리드 성-동양풍 장식

□ 마드리드 교통의 대동맥, 그란비아(Gran Via)

- 마드리드에서 가장 큰 거리인 그란비아 거리는 알카라 거리와의 분기점에서 스페인 광장까지 약 1.5km에 이르는 거리를 말함. 20세기 초부터 지금까지 수도에 걸맞으며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뒤지지 않을 큰 길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리로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음. 마드리드

의 변화가로 호텔, 영화관, 고급 부티크, 레스토랑, 백화점 등이 몰려 있으며 특히 영화관이 많아 마드리의d의 할리우드로 불림.

□ 프라도 미술관

- 왕실의 소장품 약 6000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전시하고 있는 것만도 3000점에 달하는 스페인이 자랑하는 세계 4대 미술관의 하나임.
- 작품은 12~18세기에 걸쳐있으며 16,7세기의 작품이 주를 이룸.
- 글레코, 벨라스케스, 고야를 필두로 스페인 회화를 풍부하게 모아 놓아 스페인 미술을 알려면 반드시 이곳을 방문해야 함.
- 그 밖에 플랑드르를 중심으로 한 670 여점,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 450여점,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작가의 작품도 다수 있음.
- 총 116개의 전시실에 1층의 그림들은 14~16세기 스페인 회화의 흐름을 보여주며, 2층에는 엘 그레코, 보슈, 슬바란, 벨라스케스, 루벤스, 고야 등 명장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음.

□ 낮이 나갈듯한 춤, 플라멩고

- 플라멩고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전래된 집시들의 음악과 무용이라고 전해지며, 그 탄생시기는 15세기 정도라고 함.
- 오늘날은 스페인 전역에서 지역별로 다른 유형의 플라멩고가 이어지고 있음
- 우리가 감상한 플라멩고는 관광객들을 위해 전문공연장 보다 크게 마련된 공연장에서 펼쳐진 것이었음.
- 열정적이고 아름다운 플라멩고의 감동은 글로는 도저히 묘사할 수 없는 것이며 스페인에 갈 기회가 되시는 분은 필히 흔히 갖든 춤이라고 일컬어지는 플라멩고를 감상해 보시기 바람.

2) 마드리드 외곽 - 톨레도

- 마드리드 남쪽 70킬로 지점에 있는 스페인의 고도 톨레도의 이름은 원래 「성으로 이루어진 도시」라는 뜻임. 필립2세가 마드리드로 도읍을 옮기기까지 천년 동안 스페인의 수도였음.
- 711년 무어인이 지브롤타 해협을 넘어와 4백년 동안 이슬람교도에 의해 지배 됐던 비운을 겪었던 탓으로 고딕식 사원과 무어 풍의 왕궁과 성벽 등이 남아 있음.
- 1561년 마드리드로 수도를 옮기기까지 수백년간 톨레도는 스페인의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었음.
- 오늘날은 중세의 모습을 간직한 도시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음. 중세의 성당들, 바람에 휘날리는 좁은 황토 길, 옛 중세모습과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하도록 한 정부의 노력으로 그곳을 걸어다니면 도시전체가 박물관처럼 느껴짐.

□ 종교와 예술의 만남이란 이런 것, 톨레도 대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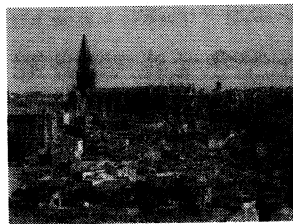
- 톨레도 한복판에 시내를 굽어보는 대성당은 현재 스페인 가톨릭의 본부로, 원래 이슬람사원이었는데 13세기에 성당으로 개축하면서 15세기까지 200년 간 공사가 진행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함
- 톨레도는 가톨릭에서 이슬람 그리고 다시 가톨릭의 중심도시가 되었고 따라서 가톨릭이 이슬람을 지배한 양식인 무데하르 양식이 탄생하게되었음.
- 성당 안에는 스테인드 글라스와 프레스코, 정교하고 화려한 조각이 가득 함. 천장은 바로크 양식의 그림과 조각으로 고풍스러움.
- 특히 파이프 오르간 주변의 조각과 그 맞은편 벽의 거대한 예수 그리스도 프레스코화가 압도적임. 고야, 엘 그레코 등 스페인을 대표하는 화가들의 작품이 성당을 장식하고 있음

□ 그림으로 유명해진 산토토메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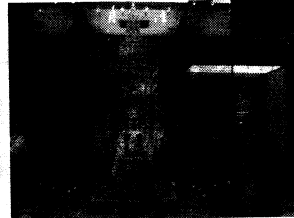
- 엘 그레코의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이란 그림이 있어 유명한 산토 토메 교

회는 세계의 관광객들이 그림을 보기 위해 많이 찾는 곳임.

- 이 그림은 상하 2단으로 나뉘어 있으며 상단부는 천상계를 하단부는 지상계를 상징하고 있음. 중앙에 천사가 팔을 감싸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 이는 오르가스 백작의 혼을 표현한 것임.



톨레도 전경



톨레도 대성당 내부



산토토메 교회의 엘그레코 그림

3. 그리스(Greece)

1) 아테네 시내답사

□ 언덕에 세워진 도시, 아크로 폴리스

-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대부분은 중심지에 약간 높은 언덕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을 폴리스라고 불렀다고 함.
- 시대가 지남에 따라 도시국가가 폴리스로 불리게 되어 본래 폴리스였던 작은 언덕은 'akros(높은)'라는 형용사를 붙여 아크로폴리스라고 부름.
- 아크로폴리스는 수비하기 알맞은 곳이 선정되고 거기에 성벽을 쌓았음.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 신전



아크로 폴리스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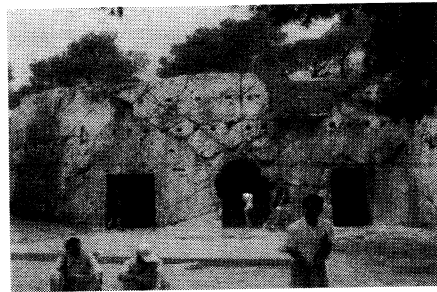
- 아크로폴리스 위에는 폴리스의 수호신 등을 모시는 여러 신전(神殿)이 세워져 도시국가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음.
- 각 폴리스에는 원칙적으로 아크로폴리스가 있었지만 오늘날 아크로폴리스라고 할 때에는 아테네시를 가리킴
- 아테네시의 아크로폴리스는 동서 약 270 m, 남북 약 150 m로 서쪽의 올라가는 입구를 제외하고 다른 3방향은 가파른 절벽으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 다시 성벽을 쌓고 인공을 가해 방비의 거점으로 삼았음.
- 이미 미케네시대부터 중요한 거점이었고, 페이시스트라토스, 페리클레스 시대에 파르테논 등의 신전과 현문(玄門)이 세워졌으며 언덕이 미화되어 아테네의 영광의 상징이 되었음.
- 그 후 로마와 터키인 등의 지배를 받은 시대에는 언덕이 고쳐지거나 강화되기도 하였음.
- 19세기에는 중세 이후에 고쳐진 부분은 제거되고 언덕의 발굴도 행하여졌음. 1987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목록에 되었음.
- 작열하는 여름 햇살 밑에서 더위에 지친 채로 대낮에 아크로폴리스를 방문하는 것은 고고학 유적지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며 썩 권하고 싶은 일은 아님. 기회가 있다면 아테네에 머무는 동안 야간을 이용해 그곳에 가보시라 권유하고 싶음.
- 야간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아크로 폴리스의 모습은 아름답다 못해 숭고하기까지 함.
- 방문 뒤에는 바로 아크로폴리스의 발치에 자리잡은 디오니소스라는 레스토랑에서 찬란한 인류의 문화유산을 바라보며 시원한 그리스 맥주를 한잔 할 수도 있음.

□ 소크라테스 감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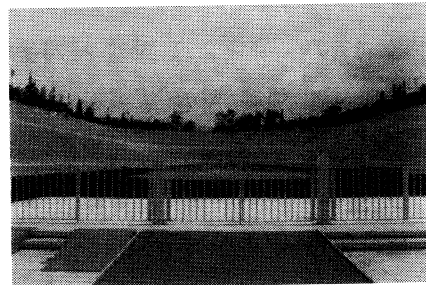
- 아크로폴리스의 맞은편에 있는 필로파포스 언덕에 위치하며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은 후 이곳에 억류되어 있다가 죽음을 맞이했다고 함.

□ 1896년 제1회 올림픽 대회 개최한 올림픽 경기장

- 말굽 모양의 경기장인 이곳은 고대의 판 아테네 대축제가 열렸던 곳으로, BC 331년 판 아테네 대축제의 경기용으로 조성되었음.
- 당초에는 관객석이 없었고, 로마 시대에 부호 헤로데스 아티쿠스가 대리석으로 된 관객석을 기증했으나, 현재는 남아 있지 않음.
- 제1회 올림픽 개최에 대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그리스의 부호 아페로프가 기부금을 내어 고대경기장 모습으로 복원하였음.
- 좌석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수용인원은 5만명임.
- 현재도 각종 육상경기과 행사에 사용되고 있으며, 스타디움 앞 광장에는 경기장 복원에 공이 많았던 아페로프의 상이 서 있음.
- 1896년 제1회 근대 올림픽 대회가 바로 이곳에서 개최되었으며, 현재 이 올림픽 경기장은 행사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음.



소크라테스 감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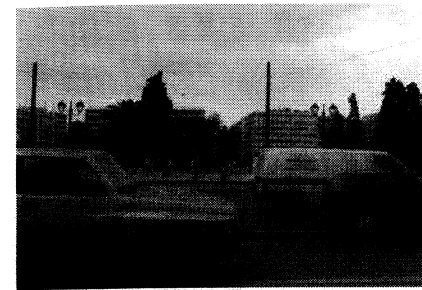
초대 올림픽 경기장

□ 신타그마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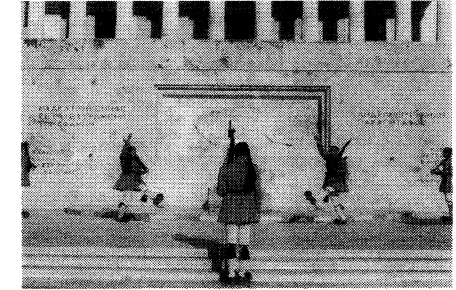
- 아테네 시가의 중심이 되는 광장으로, 신타그마란 그리스어로 헌법이란 뜻인데 1843년 이 곳에서 최초의 헌법이 공포된 데서 광장 이름이 유래함.
- 주변에는 관공서, 비즈니스 건물들이 들어서 있으며, 광장에서 길게 뻗은 에르무(Ermou) 거리 와 미트로폴레오스(Mitropoleos) 거리는 일대 쇼핑가를 형성하고 있음.
- 아말리아스 대로 건너편 신타그마 광장을 마주 보고 서 있는 건물은 그리스 국회의사당인데 의사당 정면 벽면에는 1923년 터키 제국에 항쟁하다

죽은 무명 용사들을 기념한 조각이 부조되어 있음.

- 그 앞에는 중세 이래 전통 복장을 하고 있는 의장병이 좌우에 1명씩 서 있으며, 30분마다 자리를 서로 교체하며 1시간마다 의장병 교대식이 있음.



신타그마 광장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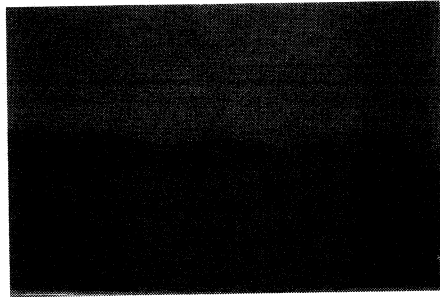


국회의사당 근위병 교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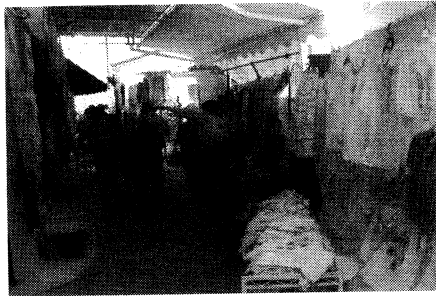
2) 에게해의 바다위에서 One day cruise 타고 가본 섬들

- 에게해를 두둥실 떠간다는 감동도 잠깐, 우리는 그냥 바다 위를 하염없이 떠갈 뿐 별다른 느낌을 받을 수 없었고 그저 그리스의 섬들을 보려면 이 정도의 지루함은 참아야지... 바다 위를 떠가면서 가이드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는 다음과 같음.
- 지중해는 그리스에 있어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님. 그리스의 국기는 파랑과 흰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파랑색은 바로 지중해를 나타냄. 이것은 예로부터 육로가 험준했기 때문에 해로가 발달한 것에도 기인함.
- 에게해에는 3,000개의 섬이 있으며 유명한 섬에는 산토리니, 미코노스가 있음. Circle을 의미하는 키클라데스 제도에서 가장 큰 섬은 크레테라고 함. 참고로 에게해란 그리스와 터키사이에 놓인 바다를, 이오니아해란 그리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놓은 바다를 지칭함.
- 그리고 '그' 섬에 도착했을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이드라섬 이었는데, 네이버 검색을 해 보면 그리스의 섬들 중에 가장 우아한 섬이라는 등, 어찌구 설명이 길었음. 사진을 첨부하니 직접 보고 판단하시기 바람. 나머지 섬들도 사진으로 설명을 대신함.

- 그 섬에 가면 상점과 상점과 상점... 끝없이 이어지는 상점과 가끔씩 보이는 관광객용 마차와 뚝뚝한 말들 때문에 느껴지는 완벽한 상업주의 정신으로 무장된 세트장이 있음. 그렇다 해도 여행지 소개를 맡은 자로서 공식적인 설명은 아래와 같이 첨부하기는 함.



유람선에서 바라본 에게해



거리에 즐비한 옷가게

□ 이드라섬

- 그리스의 섬들 중에 가장 우아한 섬이라고 할 수 있음.
○ 국제적인 제트스키 리조트와 가옥들의 독특한 건축양식, 각종 민예품 가게와 보석, 수공예품들이 늘어서 있는 보행자 거리는 쇼핑구매의 충동과 사진에 남기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어키고, 날씨가 맑은 날이면 이곳의 수정처럼 맑은 물은 절로 감탄을 자아냄.



언덕위의 집들



바다가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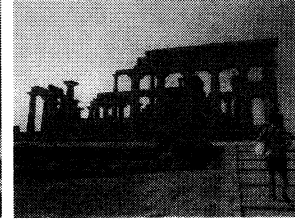
해안가 풍경

□ 에기나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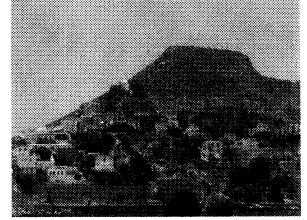
- 에기나 섬은 고대에 독립된 도시 국가였으며 한때 아테네와 라이벌 관계에 있을 정도로 그 세력이 막강했다나, 우리가 방문했던 사로닉 걸프의 3개 섬 중 가장 큰 섬으로 2개의 고고학 유적을 가지고 있음.



비치파라솔



고고학 유적지



주거지역

□ 포로스섬

- 세 섬 중 가장 작은 섬으로 소나무와 레몬수로 덮여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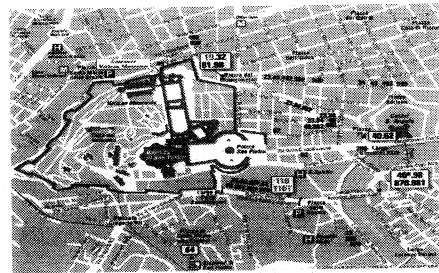
4. 이탈리아(Italy)

1) 로마 시내관광

□ 가톨릭이 아니어도 숙연해지는 바티칸 시티

- 바티칸 시티는 이탈리아 로마 시내 테베강 서안에 자리잡고 있음.
○ 한번에 3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상피에트르 광장 앞에는 흰색 선이 도로 위에 그어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탈리아와 바티칸을 구분 짓는 국경임
○ 바티칸은 이탈리아가 19세기 들어 근대통일국가로 탈바꿈하면서 교황청 직속 교황령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음.
○ 1929년 이탈리아와 교황청 주변의 지역에 대해 주권을 인정하는 라테라노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영토 0.44km²의 세계에서 가장 조그만 독립국이 되었음.
○ 현재 바티칸의 영토권은 상피에트르 대성당과 로마에 있는 성당과 궁전을 포함한 13개 건물, 로마 동남쪽 120km지점에 있는 카스텔 간돌포(Castel Gandolfo)의 교황 하계 관저에 국한됨.

- 영토 내에는 상피에트르 광장, 대성당, 교황궁전, 관청, 미술관, 도서관, 은행, 방송국, 인쇄국, 철도역, 우체국, 시장 등이 있음.



바티칸 영토구분

자료 : 바티칸교황청 <http://www.vatican.va>

□ 바티칸 박물관

- 16세기부터 역대교황들이 수집한 미술품, 도서, 자료 등을 전시하던 바티칸 박물관은 현재 인류문화유산 36만점을 소장하고 있는 세계최대규모의 박물관이 되었음.
- 라파엘로의 회화, 아테네 학당,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 등은 바티칸 박물관을 찾아오는 많은 방문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불후의 명작들임.

□ 상피에트르 성당

- 베드로가 순교한 자리에 세운 상피에트르 성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며 가톨릭의 총본산임.



식스틴 예배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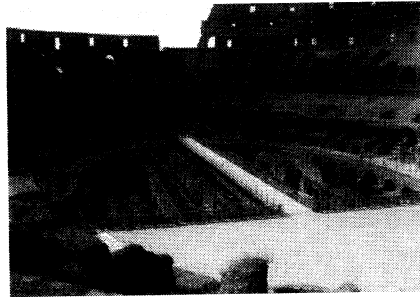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콜로사레 콜로사레 Colossale)⇒콜로세오(콜로세움)

- 콜로세움은 고대 로마의 유적지중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이탈리아어로는 콜로세오(Colosseo)라고 함. 정식 명칭은 플라비우스 원형극장임.
- 콜로세움이란 이름에는 두가지 설이 있는데 그 하나는 '거대하다'라는 뜻을 가진 콜로사레(Colossale)에서, 또 하나는 경기장 옆에 네로 황제가 세운 높이 30m의 거대한 금도금 상 콜로소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인데 전자의 설이 유력함.
- 콜로세움은 기원후 72년 로마의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네로 시대의 이완된 국가 질서를 회복한 후, 네로의 황금궁전의 일부인 인공호수를 만들었던 자리에 착공하여 그의 아들 티투스 황제(80년) 때 완공하였음.
- 완성 축하를 위해 100일 동안 경기가 열렸으며, 그 때 5,000마리의 맹수가 도살되었다고 함.
- 장대한 타원형 플랜이 있는 투기장은 아치와 볼트를 구사한 로마 건축기술의 결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조물로서 거대한 바위 축대위에 축조되었으며, 이 축대는 점토질의 인공호수위에 설치되어 지진이나 기타 천재로 인한 흔들림을 흡수하도록 설계되었음.
- 5만 명에 가까운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로마제국 최대의 투기장이었음
- 콜로세움은 완공된 이래 300여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사투가 계속 벌어지다가 405년 오노리우스 황제가 격투기를 폐지함에 따라 마침내 처참한 역사도 종지부를 찍게 되었음.
- 그 후 콜로세움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입기도 하고, 중세 교회를 짓는데 재료로 쓰이기도 해 외벽의 절반이 없어지는 수난을 겪었음. 그러다가 18세기 경 교황의 명에 따라 기독교 수난의 현장으로 복구되어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음.



콜로세움 입구



콜로세움 내부

□ 트레비 분수(Fontana di Trevi)에서 빈 소원

- 트레비 분수는 교황 클레멘스 13세에 의해 분수 설계 공모전이 이루어졌으며, 이때 당선된 니콜라 살비의 작품임.
- 1732년에 착공하여 1762년에 완성되었으며, 분수의 아름다운 배경은 나폴리 궁전의 벽면을 이용한 조각으로 이루어져있음. 로마시대에서 볼 수 있는 바로크 양식의 마지막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음.
- 분수 중앙에 자리한 해마가 끌어올린 커다란 조개 위의 넵툰신과 트리톤신의 대리석 조각들은 브라치의 작품임. 또한 이 분수에 동전을 던지면 다시 로마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전설을 갖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오길 소원하며 동전을 던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음.
- 동전을 던져 한번 던지면 로마를 다시 찾을 수 있고, 두 번 던지면 사랑이 이루어지고, 세 번 던지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다는 전설 (근데 이 전설도 여행을 많이 했는지 사람마다 설이 다르다...)이 있으며 이곳의 동전은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자선사업에 쓰인다고 함.

□ 오드리 헵번의 스페인 광장에 서서

- 스페인 광장은 영화 "로마의 휴일"의 주무대가 되었던 곳이다. 완만한 언덕을 잘 이용한 137계단, Trinitadei Monti 교회, 광장 전면에 펼쳐진 쇼펍 거리, 베르니니 작품인 조각배 분수 등 어느 하나 빼놓을 것이 없음.

- 스페인 광장이라는 이름은 스페인의 교황청 대사관이 이 부근에 지어진 것에서 유래하며 이곳의 명물인 스페인 계단은 18세기 초, 당시 프랑스 대사의 원조로 만들어졌음.
- 당시 이 부근은 로마 교통의 거점으로서 외국인들을 위한 호텔과 점포가 줄을 이었음.
- 지금도 광장 주변에는 영국풍의 찻집이 남아 있음. 왕년에는 스탈당, 발자크, 바그너, 리스트, 브라우닝 등의 예술가들이 즐겨 찾았다고 함.
- 이 계단 오른쪽에는 키츠의 집이 있는데, 지금은 키츠와 셸리의 기념관으로 사용되고 있음. 바이런 등의 자필 원고도 전시됨.



트레비 분수



스페인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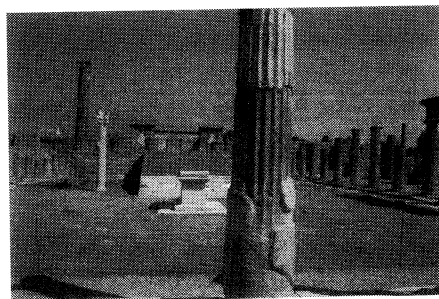
2) 로마 외곽

□ 화산폭발로 사라진 도시문명 폼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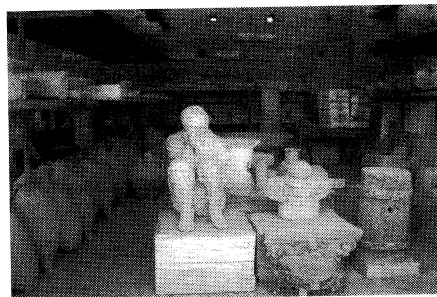
- 서기 79년 8월 번영하던 로마제국의 도시 폼페이는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도시전체와 2만여명의 주민이 화산재에 파묻히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함.
- 베수비오 화산이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며 폼페이를 삼켜버렸을 때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폼페이는 로마제국의 어떤 도시보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위락시설로 로마 귀족들 사이에서 인기높은 리조트 도시였고 농업, 상업도 발달해 있었음.
- 화산폭발로 인해 폼페이는 고대 이집트에서 볼 수 있는 미라의 형상으로 화산재에 뒤덮혀 최후를 맞게 되었음.
- 그 후 잔디와 덩굴식물들이 자라 그 자리를 덮게 되면서 폼페이란 도시라

는 이름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1500년 동안 역사의 저편에 사라져 있었음.

- 17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조심스러운 발굴작업은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음. 지금까지 발굴된 유적과 유물들로 당시의 폼페이인들의 문화와 예술, 건축수준을 짐작할 수 있기에 충분함.
- 폼페이는 9개의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었음. 폼페이 시로 들어가는 관문 근처에는 여관과 마굿간, 병원이 있었고, 시내 중심에는 선술집과 카페들이 자리하고 있었음.
- 카페들은 로마인들이 공중목욕탕에서 목욕을 마친 후 간단한 먹을거리를 얻을 수 있는 곳이었음. 폼페이 유적 발굴을 통해 드러난 하수시설, 목욕탕, 시장, 극장, 원형 경기장, 음식점 등 각종 시설은 2000년이라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현대의 그것과 비교해 떨어진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함.



폼페이 유적



발굴 유적 전시

□ 신비롭도록 푸른 바다 위의 카프리섬

- 나폴리에서 2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하늘빛의 만 밖으로 불쑥 솟아있는 작고 아름다운 섬 카프리는 나폴리를 찾아온 모든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아름다움을 선사함.
- 언덕, 절벽, 올리브 농장, 포도원과 정원의 테라스 앞에는 눈이 시리도록 푸르른 지중해 바다가 펼쳐져 있음.
- 카프리는 페리를 타고 소렌토에서 40분 정도면 도착하는데 페리에서 5인승 나룻배로 갈아타고 동굴로 들어가 카프리 바다의 푸르디 푸른 색을 흠

뺨 느낀 뒤 섬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면 그 느낌이 새로움.

- BC 29년 로마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카프리를 방문한 후 그 아름다움에 반해 카프리보다 훨씬 큰 규모의 이웃 섬을 포기하면서까지 나폴리로부터 사들였다고 함. 그 다음 왕위 계승자였던 티베리우스 황제가 올림푸스의 12신에게 바친 12개의 저택을 지었다고 전해짐.
- 카프리에는 850여종의 다양한 꽃과 식물, 나무가 자라고 있어, 섬 어느 곳을 둘러봐도 아름다운 경관이 눈에 들어옴.
- 많은 해양생물의 보고이기도 하고, 많은 종류의 텃새들의 서식지임.
- 좁은 절벽길을 미니버스를 타고 꼬불꼬불 올라가면 해발 299m로 가파른 언덕인 아나카프리(Anacapri) 정상에 올라가기 위한 리프트를 타는 곳임.
- 리프트는 1인용으로 10여분정도 올라가는데 그동안에 아름다운 바다와 동화같은 집이 어우러져 한폭의 그림처럼 다가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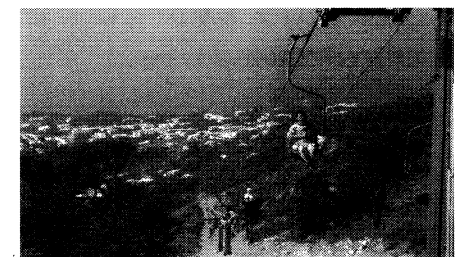
카프리 섬



5인용 쪽배



아나카프리로 가는 미니버스



아나카프리행 리프트

연수 국가 주요 관광 통계 및 정책 동향

인천발전연구원 심진범

1. 포르투갈

1) 주요 관광통계

- 포르투갈 방문 외래관광객은 27,194천명으로 보고됨(2002년 기준). 이중 숙박관광객은 11,644천명임.
- 외래관광객은 지역별로는 유럽지역, 교통수단별로는 도로가 주를 이룸. 평균체재일은 4.7일이며, 관광수입은 5,919백만달러로 보고됨.
- 호텔급 숙박시설의 수용능력은 99,849객실임.

<표 2-1> 포르투갈 주요 관광통계(2002년 기준)

구분	단위	통계
외래객입국(INBOUND TOURISM)		
□ 외래관광객	천명	27,194
- 숙박관광객(Overnight visitors)	천명	11,644
- 당일관광객	천명	15,389
- 크루즈 관광객	천명	161
□ 지역별 입국현황(Arrival by region)		
- 아프리카(Africa)	천명	-
- 미주(Americas)	천명	435
- 구주(Europe)	천명	10,901
- 동아시아태평양(East Asia and the Pacific)	천명	46
- 남아시아(South Asia)	천명	-
- 중동(Middle East)	천명	-
□ 교통수단별 입국현황		
- 항공	천명	5,073
- 철도	천명	90
- 도로	천명	21,845
- 해상	천명	187
□ 평균체재	1박(Nights)	4.70
□ 관광수입	백만달러(US\$)	5,919

<표 계속>

구분	단위	통계
내국인출국(OUTBOUND TOURISM)		
- 내국인출국자수	천명	-
- 관광지출	백만달러(US\$)	2,276
호텔급 숙박시설 현황(H&S)		
- 객실수(Number of rooms)	개수	99,849
- 침대수(Number of bed-places)	개수	224,054
- 객실이용율	%	39.30
- 평균체재	1박(Nights)	3.50

자료 : WTO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2003 Edition; 관광지식정보시스템 (www.tour.go.kr) 재인용

2) Turismo de Lisboa(리스본 관광협회) 및 프로모션 정책 동향¹⁾

(1) Turismo de Lisboa(리스본 관광협회)

- 1998년 관광분야의 비영리기구로서 민관협력기구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479개 회원이 있음.
- 주 목적은 관광목적지로서의 리스본 프로모션과 개선을 위한 협력, 이를 통한 도시 경쟁력과 질의 향상에 있음.
- 리스본 관광협회는 다른 세분 시장, 즉 컨벤션 시장과 일반 관광시장을 담당하는 Visitors Bureau와 Convention Bureau 두 부문으로 구성됨.
- 리스본 시티 지역은 물론 리스본 해안지역(Estoril Coast, Sintra 등 주변 지역 포함) 프로모션도 수행하고 있음.
- 주 업무는 정보 제공 및 잡지 발행, 인터넷 프로모션(Inside Lisboa), 통계 집계, 관광안내소 운영(ask me), 숙박시설, 택시 등의 품질 보증, 리스보아 카드 발행 등임.
- 2005년 기준 운영 예산은 15,898,328유로로 이중 21%가 이벤트에 지출됨.
- 상공회의소, WTO 등 국내외 관광기구에 가입되어 있음.

1) 리스본관광협회 방문 면담 결과(2005년 6월16일) 및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2) 리스본 지역 호텔 수용능력

○ 2003년 기준 호텔 수용능력은 15,040실, 26,252베드(student hostel 제외)이며, 2003~2004년 중 30,000베드 이상의 공급 증가 있는 것으로 보고됨.

<표 2-2> 리스본지역 호텔 수용능력(2003년)

호텔등급	객실수	베드수
5*	3,200	5,825
4*	6,575	9,828
3*	4,072	8,072
2*	1,193	2,527
합계	15,040	26,252

자료 : Turismo de Lisboa 내부자료.

(3) 프로모션 전략

○ 리스본 관광협회는 △리스본 상품의 발견과 조직화, △커뮤니케이션 컨셉 개발, △협력적 프로모션 수행 전략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도모하고 있음.

① 전략 1: 리스본 상품의 발견과 조직화 과정

- 첫번째 단계 : 리스본, 에스토릴 등 6개 지역의 각종 베스트 선정
- 두번째 단계 : 호텔, 레스토랑 등 등 부문별 Top 5 선정
- 세번째 단계 : 4가지 관광상품 구성

The best of Lisbon

The best of Estoril

The best of Oeste

The best of Leiria/ Fátima

The best of Templários

The best of Costa Azul

The top 5 hotels in the region

The top 5 restaurants in the region

The top 5 tours in the region

The top 5 suggestions for night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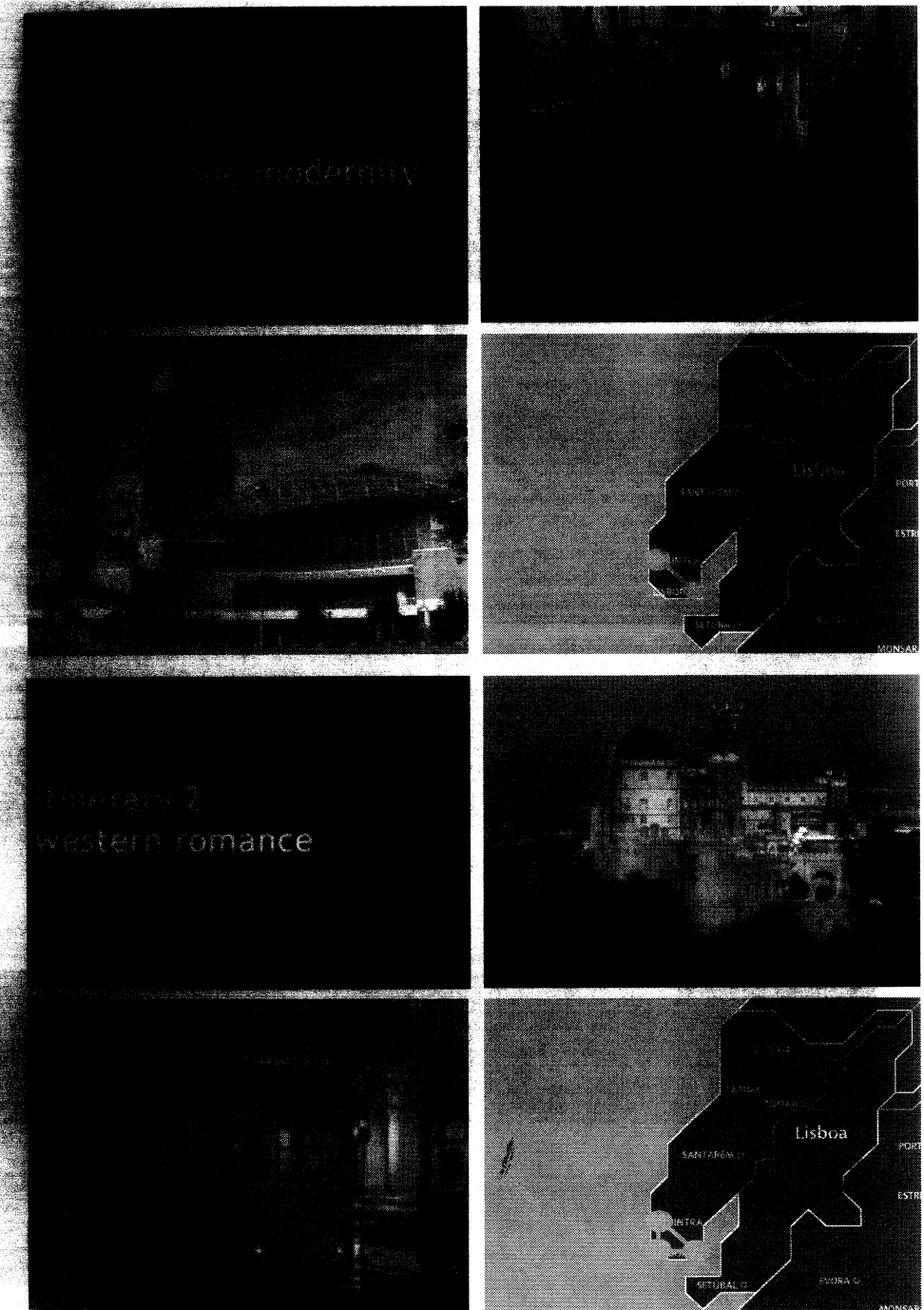
itinerary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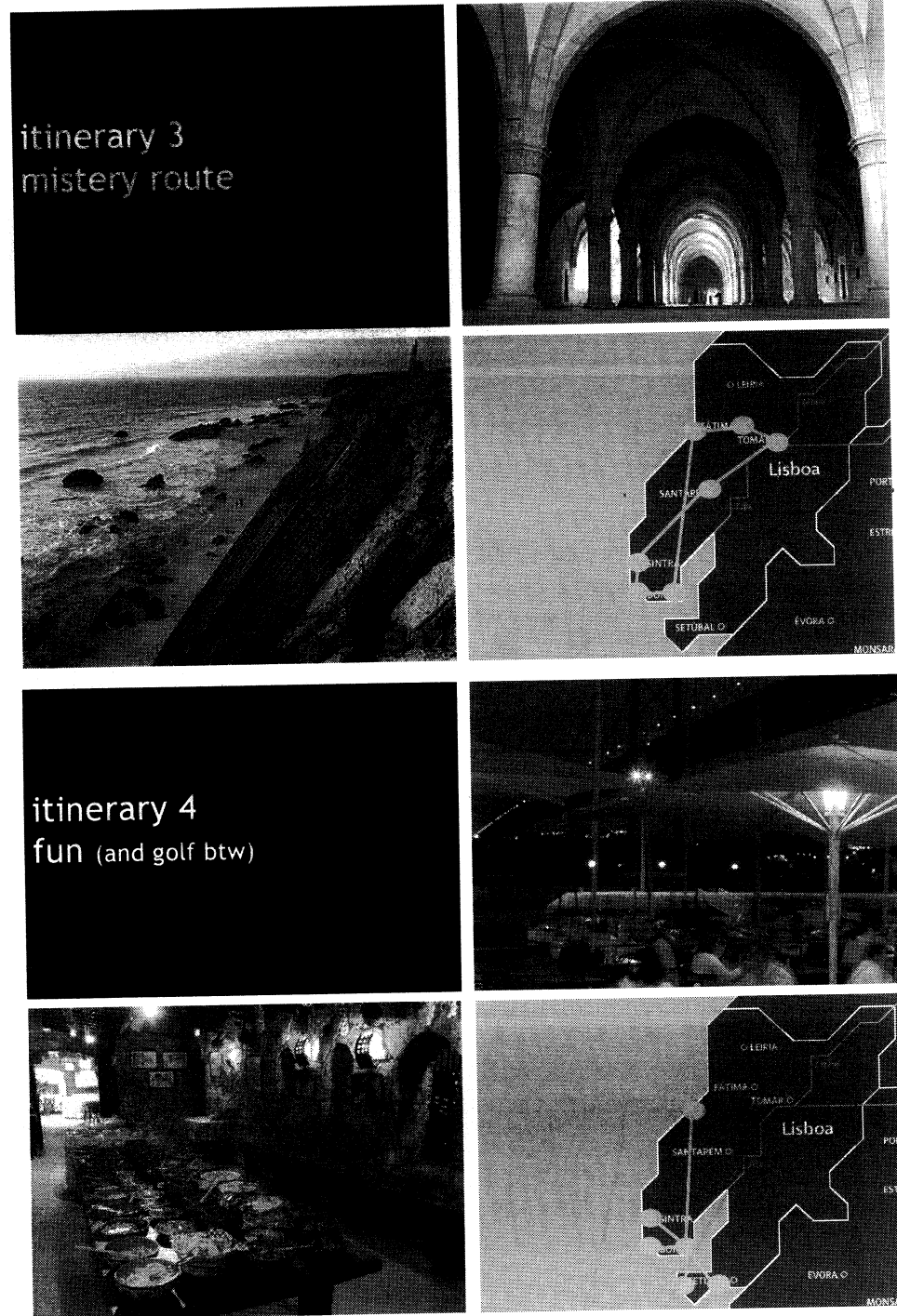
itinerary 2

itinerary 3

itinerary 4

○ 4가지 관광상품은 다음과 같음.





② 전략 2 : 커뮤니케이션 컨셉 개발

- 개발된 4가지 관광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에서는 다양성 (diversity)과 인간다움(human scale)을 의미하는 '인간적인 경험(personal experience)'을 핵심 컨셉으로 채택하고 있음.
- 이에 기초하여, 리스본의 주요 경험 속성을 'true', 'diverse', 'human'으로 추출하고, 이에 대한 주요 편익을 활용하여 프로모션을 수행하고 있음.

<표 2-3> 리스본에 대한 주요 커뮤니케이션 속성과 편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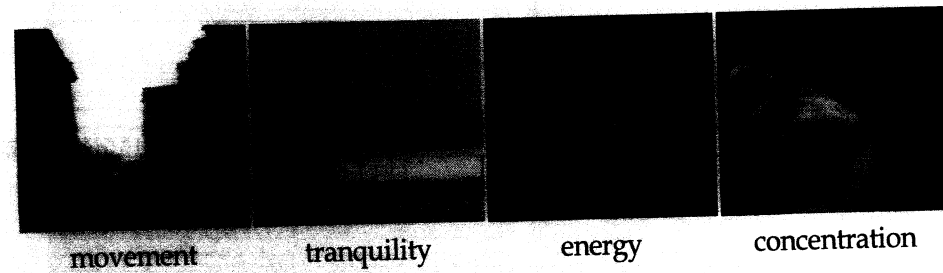
Lisbon is	its attitude is	benefits
true	sincere	authentique
diverse	impulsive	gratifying
human	appealing	personal

- 또한, 커뮤니케이션 컨셉 표현 수단으로 '컬러'를 활용하고 있음.
- 아래 왼쪽 사진에서 건물 사이로 들어오는 자연색을 'Lisbon light'으로 선정하여 각종 홍보물에 활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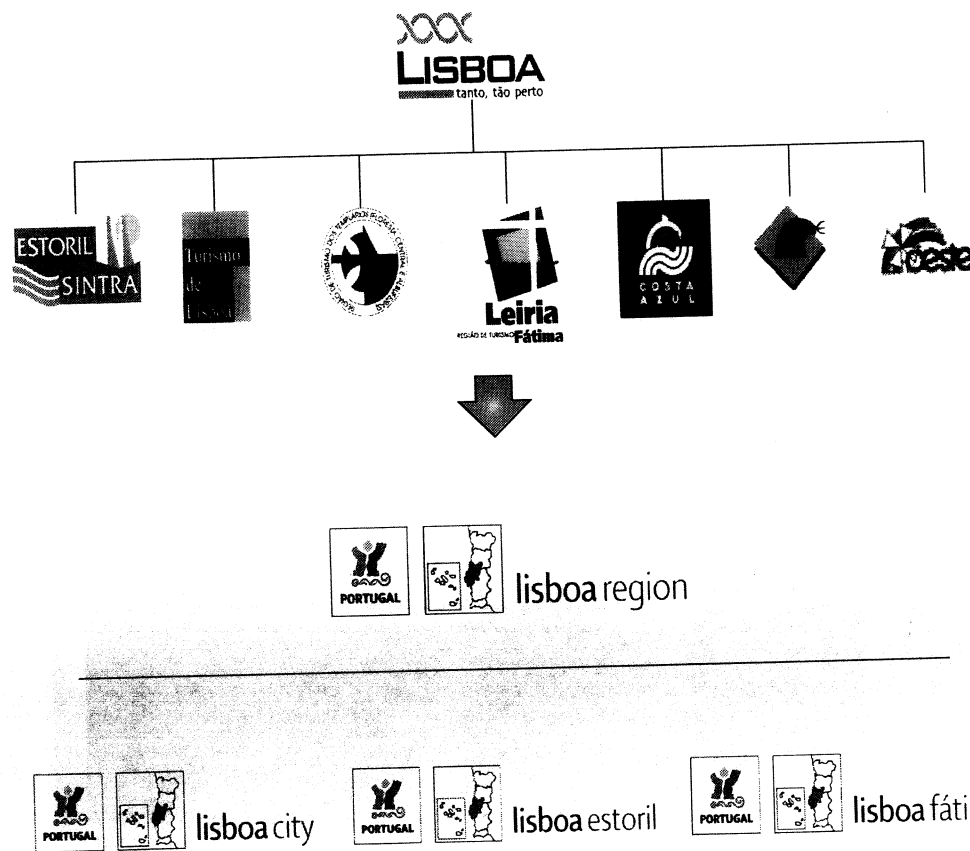


<그림 2-1> Lisbon Light : 커뮤니케이션 컨셉으로서 빛의 활용

○ 'movement', 'tranquility', 'energy', 'concentration' 등 4가지 커뮤니케이션 컨셉은 아래 그림과 같은 리스본 지역 주요 이미지를 통해 전달하고 있음.



○ 그리고, 리스본을 포함한 6개 지역을 'lisboa region'이라는 통합 브랜드로 프로모션을 수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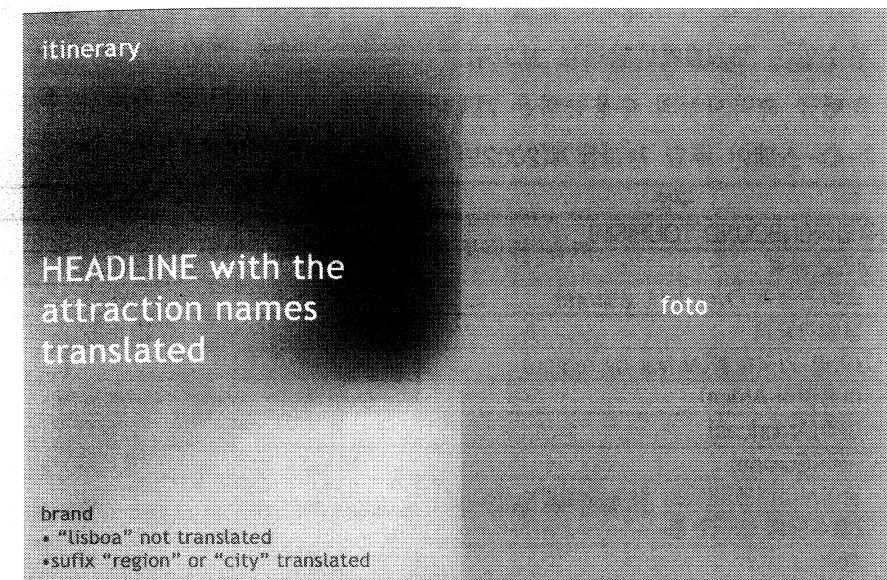


<그림 2-2> 'lisboa region' 통합 브랜드 개발 전후

② 전략 3 : 협력적 프로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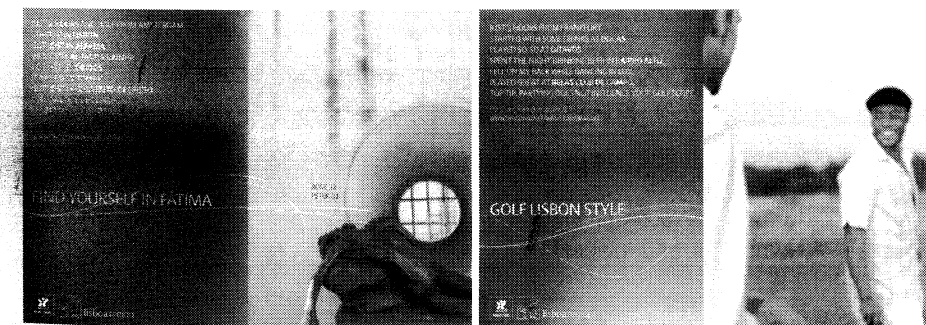
○ 6개 지역은 아래 그림과 같은 표준화된 프로모션 지침에 의해 각종 홍보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홍보물 컬러와 표현 양식의 표준화, 통합 브랜드 사용, 커뮤니케이션 컨셉의 공동 활용 등이 이루어짐.



1. 왼쪽 상단 : 관광상품 기재
2. 왼쪽 중간 : 번역된 어트랙션 명칭 포함 헤드라인 기재
3. 왼쪽 하단 : 리스보아는 번역 불가, 지역 혹은 도시명은 번역(표적시장 언어)

<그림 2-3> 관광홍보물 표준화 지침



<그림 2-4> 관광홍보물 제작 사례

2. 스페인

1) 주요 관광통계

- 스페인 방문 외래관광객은 80,024천명으로 보고됨(2002년 기준). 이중 숙박관광객은 52,327천명임.
- 외래관광객은 지역별로는 유럽지역, 교통수단별로는 항공이 주를 이룸. 관광수입은 33,609백만달러로 보고됨.
- 호텔급 숙박시설의 수용능력은 713,481객실임.

<표 2-4> 스페인 주요 관광통계(2002년 기준)

구분	단위	통계
외래객입국(INBOUND TOURISM)		
□ 외래관광객	천명	80,024
- 숙박관광객(Overnight visitors)	천명	52,327
- 당일관광객	천명	27,697
□ 지역별 입국현황(Arrival by region)		
- 아프리카(Africa)	천명	-
- 미주(Americas)	천명	2,080
- 구주(Europe)	천명	49,304
- 동아시아태평양(East Asia and the Pacific)	천명	241
□ 교통수단별 입국현황		
- 항공	천명	34,947
- 철도	천명	458
- 도로	천명	13,872
- 해상	천명	3,050
□ 목적별 입국현황		
- 여가 및 휴식	천명	43,253
- 상용	천명	4,091
- 기타	천명	4,983
□ 관광수입	백만달러(US\$)	33,609
내국인출국(OUTBOUND TOURISM)		
- 내국인출국자수	천명	3,748
- 관광지출	백만달러(US\$)	6,638
호텔급 숙박시설 현황(H&S)		
- 객실수(Number of rooms)	개수	713,481
- 침대수(Number of bed-places)	개수	1,395,383
- 객실이용율	%	55.27
- 평균체재일	1박(Nights)	3.72

자료 : WTO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2003 Edition; 관광지식정보시스템 (www.tour.go.kr) 재인용

2 스페인의 관광정책 동향²⁾

(1) 관광진흥정책의 방향과 전략

① 관광진흥정책 목표

- 정책목표 : 관광분야 세계 리더 위치를 확고히하기 위한 관광분야 질적 향상 강화
- 주요 정책 추진과제
 - 관광산업의 선도적 입지 강화
 - 관광수익 극대화
 - 관광활동의 사회문화적 그리고 환경적인 유지
 - 수요와 공급의 다변화
 - 전국토에 걸친 관광객 유입
 - 관광분야 고용의 질적 향상
 - 관광관련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경제 기간산업으로서의 관광산업의 인지 확산하기

② 주요 관광진흥 계획

□ PICTE 2000(Plan Integral de Calidad del Turismo Espanol) : 스페인 관광산업 질적 향상 계획 2000

○ 사업개요

- 2000~2006년 기간 중의 PICTE는 질적인 부분으로 기본 방향 설정
- 목적 : 80~90년대 중 관광상품의 질적인 정체와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스페인 관광 이미지 하락을 극복하여 세계 일류 관광목적지로서의 위상 회복을 위한 관광산업 전반의 질적 향상을 통한 관광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

2) 이하 자료는 유지윤(2003), 세계 주요국가 관광정책 동향 및 사례분석,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를 인용한 것임.

- 세부목적 : 고객만족의 극대화를 위해 관광객들의 충성도를 높이고,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이며 경비 절감을 통한 이익의 극대화
- 사업기간 : 2000~2006년(1992~1995까지의 1차 관광산업 질적 향상 계획과 1996~1999년 기간 중의 2차 관광산업 질적 향상 계획이 경쟁력강화에 중점을 두었던 연장선상에서의 계획)

○ 재원

- 정부예산 : 7,813,157유로(연간 108만 유로)
- 전액 정부 예산 활용
- 경제부장관 산하의 관광담당 부서가 총체적인 사업의 관리를 담당하며, 법적인 근거는 경제부령으로 공포됨

○ 사업추진 조직 및 역할

- 사업추진 조직 : 경제부장관 산하의 통상 및 관광담당부서
- 역할 : 전체적인 계획의 진행 및 예산 집행을 총괄

○ 추진내용

- 1차 관광산업 질적 향상 계획 : 1992년~1995년 실시
- 2차 관광산업 질적 향상 계획 : 1996년~1999년 실시
- 3차 관광산업 질적 향상 계획 : 2000년~2006년의 중장기계획 진행 중

<3차 계획의 10대 과제>

- ① 관광목적지로서의 질적 향상(Tourist destination quality)
- ② 관광상품의 질적 향상(Tourist product quality)
- ③ 관광기업 분야의 질적 향상(Private sector quality)
- ④ 질적 통일성을 위한 교육 등의 강화(Training quality)
- ⑤ 발전된 기술과 혁신의 활용 강화(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innovation)
- ⑥ 관광기업의 국제화를 통한 질적 향상(Internationalisation of tourist enterprise)
- ⑦ 국제 협력의 강화(International cooperation)
- ⑧ 통계 정보와 경제 분석의 강화(Statistical information and economic analysis)
- ⑨ 해외 프로모션의 강화(Promotion)
- ⑩ 마케팅의 강화(Marketing supporting)

□ 스페인관광청의 관광업 활성화를 위한 5대 계획

- EDITUISMO : 관광산업에 대한 정보교환을 보다 간편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주로 호텔업과 여행사, 금융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문서교환의 번거로움을 줄이는 네트워크의 개발에 투자
- TURINTER : 관광산업에 관한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해당 인터넷 정보망에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신속한 연락망을 구성하여 활발한 정보교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계획임. 지자체와 민간업체들이 추진하며, 유럽공동체(EU)의 관광정보사이트인 Enjoy Europe과도 긴밀한 협조 체계 유지
- TURCENTRAL : 지자체, 민간업체 중심으로 추진되는 계획으로 관광상품의 보다 빠른 상품화를 목적으로 하며 관광업체간 네트워크 구축 및 여행객들의 최신관광정보 취득과 예약 편의 도모에 중점을 두며, TURINTER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최대한 활용
- TURISCAL : 관광청이 추진하는 관광의 질적 향상 프로그램을 보완하기 위해 1997년 개시된 실험계획으로 민간단체와 호텔협회가 운영을 맡아 Quality 프로그램 홍보에 기여, 각종 관광정보와 통계를 수집하고 관광업에 종사하는 민간업체들간의 활발한 연락망을 형성하고, 관광자원의 보다 나은 배포와 관광업체들간의 효율적 교류가 목표
- HOTEL OK : 바르셀로나지역 호텔협회에 의해 추진된 계획으로 적합한 시설물 설정, 에너지 절약, 사고예방, 홍보물제작 등 보다 효율적인 호텔운영이 목표, 정부의 지원 아래 관광청을 통해 CD-ROM을 배포중이며, 전국적으로 고객 유치에 대한 정보 및 호텔운영 노하우 교환에 도움

(2) 홍보 및 마케팅

○ 개요

- 관광 해외홍보는 Turespana(스페인 관광청)에서 관장하고, 해외홍보의 실질적인 수행은 23개국 국가에 파견된 31개의 해외지사에서 담당함

○ 정부지원

- 정부에서는 해외홍보를 전담하는 Turespana(스페인 관광청)의 사업 및 운영경비 전액을 지원하며, 2004년 기준으로 Turespana(스페인 관광청)에 104백만 유로 지원 예정. 이는 2003년 92백만 유로 대비 13.23%증가한 것임.

- 프로모션 총 투자비용 : 54백만 유로(2003년 정부예산)

○ 최근 홍보 내용 및 마케팅 실적(2002년 기준)

- 주로 TV 및 인쇄매체를 통한 광고로 해외홍보 실시
- 여행업자 및 소비자 직접 공략을 위해 200여회의 세계 각국의 관광관련 전시회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
- 16개 언어로 관광홍보 브로슈어에 지역별 상세정보를 담아 발행 및 배포
- 온라인 홍보에 최근 역량을 강화해 www.tourspain.es(4개국어 : 스페인어, 영어, 불어, 독어)를 통한 시장 공략을 강화 중임
- 50% 이상을 차지하는 영국, 독일 중심의 핵심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지속하며, 관광 상품의 다양화 및 관광시장의 다변화 도모
- 가능성 있는 40개 전략 국가를 설정하고 시장별 전략에 따라 집중 공략

(3) 관광상품개발

□ 관광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동향

- 스페인 관광의 전통적인 이미지인 Sun and Beach 상품이외에도 문화 및 도시관광, 컨벤션산업 강화, 자연 및 스포츠 관광 활성화에 노력을 집중
- 특히 컨벤션산업의 경우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만 활성화되어 있는데 중장기적인 노력으로 스페인의 주요도시마다 국제회의 및 인센티브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려고 함.
- 스포츠 및 자연 참여 관광을 강화하되 골프 및 해상 스포츠 그리고 피레네산맥 및 북부의 녹지관광을 적극 활성화하는 등 유치를 도모하고 있음.
- 아울러 식도락 및 와인루트, 쇼핑관광에 대한 상품전략 및 홍보를 강화하여 스페인 관광의 다양성과 매력성을 보강함. 또한 연례적인 축제와 개성 있는 축제를 강화하고 국제화하여 외래관광객 유치를 강화함.

- 테마관광상품(돈키호테 루트를 따라서, 산티아고의 순례 루트, 스페인 와인루트, 세계문화유산 도시 순회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홍보로 상품의 다양화와 국제화를 추구

□ 정부지원

- 외국인을 위한 관광상품 개발의 핵심적인 역할은 Turespana(스페인 관광청)의 주도하에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관광상품을 개발하며, 해외홍보의 경우 Turespana와 지자체가 예산을 분담하여 적극적으로 해외에 상품을 홍보

□ 주요 관광상품

- 테마관광상품 : 돈키호테 루트를 따라서, 산티아고 순례루트, 스페인 와인루트, 세계문화유산 도시 순회
- 축제관광상품 : 부놀 토마토 축제, 바로셀로나 인간답 쌓기, 발렌시아 불의 축제 상품 등

(4) 수용태세 개선 및 기타

□ 제도측면

- 관광 질적향상 프로그램의 시행 및 ICTC(관광품질관리소) 활성화로 관광 품질 관리제도를 통한 관광 각 분야 서비스 등 질적 향상 도모
- 관광객을 위한 치안 강화를 위해 해변 지역 중심으로 경찰 배치강화

□ 시설개발

- 스페인의 관문인 마드리드 Barajas 공항 및 Barcelona 공항에 대한 대단위 확장 공사 진행 중
- Madrid-Barcelona간 고속철(AVE) 1단계 개통
- 국영호텔 PARADOR 확충을 통한 외래 관광객 고급 숙박 활성화

□ 안내체계 개선 등

- 인터넷사이트(www.toruspain.es)를 스페인어, 영어, 불어, 독어 4개 국어로 구축하여 온라인 관광정보 제공을 강화하였음.
-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으로 주요도시마다 외래관광객을 위한 관광안내센터 확충

(5) 관광산업 지원

□ 관광품질관리소(ICTE: Instituto para la Calidad de Turistica Espanola)

- 관광상품의 질적 향상으로 경쟁국과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외래관광객 유치율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목적을 둠.
- 스페인 관광산업의 질적 향상 프로그램인 PICTE사업 중 하나로 관광기업의 질적향상을 위해 ICTE라는 관광품질관리소를 설립하고, 기업들이 관광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을 돕도록 하고 있음.
- 2000년부터 운영 중이며, 관광분야 품질보증 Q마크 업체 선정을 통한 신뢰도 강화 및 해외홍보 지원
- 대상기관 호텔 등 숙박시설, 여행사, 식당, 스키장, 지역민박 등이 해당되며, 향후 렌트카, 문화시설, 컨벤션뷰로 등으로 확대할 계획

3) 스페인 관광정책 추진체계

(1) NTA

① 명칭 : 상공·관광부(State Secretariat for Commerce and Tourism)

② 조직

- 통상 및 관광담당국(State Secretariat for Commerce and Tourism)에서 관광 관련 업무를 실행하고, 담당장관은 제2부총리겸 경제장관임
- 관광협력 조정국과 경쟁력 강화개발국 2개국으로 나뉨

③ 예산

- 관광진흥 전체예산은 137백만유로로 2003년 134백만유로 대비 2.8% 증가
- 관광국 예산 : 33백만유로

세부내역	질적 관광계획 (지역과의 협력사업)	관광분야 장학금	직원급여	기타	종합
금액 (만유로)	1,735	230	284	1,072	3,321

자료 : 스페인 현지 자문 요청결과

○ 기타 관광관련 분야 예산

- 공항 인프라 개선 사업 : 2,320백만 유로(2000년~2007년)
- 철도 인프라 및 환경 개선 : 2,786백만 유로

④ 주요기능

- 다른 부서와의 행정연계 관리,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기관간의 협력사업 지원
- 민간업체들의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정보, 예산, 홍보 등 지원
- 관광상품 활성화하고, 관광업체의 기술적 혁신과 질적 향상 도모
-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관광상품과 관광목적지 개발/확충 전략 수립
- 관광공급측면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평가
- 관광청의 전략과 계획, 예산 총괄, 관광청의 법체계 적용 및 개정 관리
- 정부 관광부처 지원 사업들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
- 스페인 Paradores(고성 및 수도원 개조 숙박시설)의 사업전략과 계획 총괄

(2) NTO

① 명칭 : Tourespana(스페인 관광청, 1962년 설립)

② 조직

- 국제마케팅국, 관광진흥국, 재정 및 행정국 3개부서로 구성
- 스페인 관광청은 총 599명의 인력이 있음

○ 국외지사 현황 : 총 23개국 31개

아시아	미주	구주	기타
동경, 싱가포르, 북경	뉴욕, LA, 시카고, 마이애미, 부에노스 아이레스, 상파울로, 토론토, 멕시코시티	베를린, 뒤셀도르프, 프랑크푸르트, 뮌헨, 헬싱키, 파리, 런던, 헤이그, 밀라노, 로마, 브뤼셀, 코펜하겐, 오슬로, 리스본, 비엔나, 제네바, 취리히, 오슬로, 바르샤바	모스크바

③ 예산

○ 104백만유로(2003년 기준, 2002년 91.93백만유로 대비 13.23% 증가)

세부내역	프로모션 투자비용	신규 인프라 투자	조직 운영경비	인건비	자본예산 등 경비
금액 (만유로)	5,431	1,070	387	2,230	1,291

④ 주요기능

- 관광목적지로서의 스페인의 이미지 증진
- 각종 프로모션 : 지방정부나 기업들과 협력하여 국외에서 상품 판매, 프로모션 활동
- 마케팅과 관광분야 사업 지원
 - 국제관광시장에서 마케팅 및 미디어 플랜과 관광캠페인 등 스페인 관광 진흥을 위한 기획과 개발
 - 스페인 관광상품의 국외 마케팅 지원
 - 마드리드 컨벤션센터와 같은 관광 유관기업을 운영
 - Paradores사업의 해외 프로모션을 담당하고, 운영을 감독
 - 관광관련 사업 자문

(3) 연구조직

□ Instituto de Estudios Turísticos(스페인관광연구소)

○ 경제부의 관광청 산하기관으로 1962년 설립되었고, 관광에 관련한 모든

조사와 연구를 담당하며, 관광산업의 발전과 동향을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함.

○ 주요업무

- 연구와 통계조사 : 관광에 관련된 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관광관련 조사 연구사업을 시행하며 스페인의 관광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주 임무임. 동 연구소의 노력으로 스페인은 Eurostat(유럽 통계청), WTO 그리고 OECD가 모두 공인하는 관광계정을 가진 세계 첫 번째 국가임. 또한, 이러한 연구와 조사를 위해 활발하게 타국가 및 국제기구와 활발한 협력을 하고 있음.
- 보고서 제작 및 배포 : 관광과 관련 분야의 특별 보고서 등을 기획하여 정보수집을 통해 발간·배포하며 관광자료센터를 운영함. 스페인 관광자료센터 운영(CDTE)을 운영하고 있으며 75,000여권의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고, 400여종의 잡지도 비치하고 있으며 주중에만 9~2시까지 일반에게 개방함. 보고서 제작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 국제적인 전시회를 통해 배포함. 주요 보고서는 Frontur(외래관광객 분석), Familitur(내국인 관광 동향 분석), Sintur(경제 연관 관광지표 및 통계) 등이 있음.
-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 통계청, 내무부 및 산업부 그리고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하여 통계 및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국제적으로 WTO와 Eurostat(유럽통계청)과 OECD 등과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음.

(4) 관광관련 특별기구

□ La Comision Interministerial de Turismo(관광위원회)

- 1994년 관광청 부속으로 관광위원회(Interministerial Tourism Committee : ITC)를 구성하였고, 관광 주요사안에 대한 정부 부처 및 기관간의 업무조정, 정부 수립 관광 관련 제안과 실질적 수행 계획에 대한 검토 기능을 수행함.
- 의장은 부총리급인 경제부장관이고, 산업부, 내무부, 생활환경부, 외무부, 교육문화스포츠, 노동환경부, 농수산부, 대통령부의 8개 부처 장관 참여하

고, 관광청장은 간사의 역할을 담당함.

□ Tourism Sector Conference(TSC) : 부총리 주재회의

- 관광분야의 주요 의제에 대한 협력과 제휴를 위해 시작되었고, 지역과 중앙의 관광정책 간의 조화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함.
- 전체회의 및 위킹그룹 구성하여 활동하는데, 부총리겸 경제부 장관이 의장이며, 부의장은 통상관광 차관이 17개 시도의 관광관련 최고책임자들이 멤버로 참여하며, 간사는 관광청장이 맡음.

□ Tourism Promotion Board : 관광관련 정부자문기구

- TURESPANA와 함께 협력하기 위해 구성되었고, 통상 및 관광차관이 의장이고, 정부가 지원한 계획과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지침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해외관광 프로모션과 민관협력의 주도권을 행사함. 또한 관광 통상차관에게 관광분야의 정책수립을 자문함.
- 모임과 위킹그룹 구성하여 활동하고, 의장은 통상 및 관광차관, 수석 부의장은 관광청장, 부의장은 관광공사 사장, 간사는 스페인관광공사의 대외사업 담당 국장이 담당
- 중앙행정기관에서 6명의 대표, 9명의 지자체 대표, 10명의 관광기업 대표, 5명의 시 대표들이 참여

3. 그리스

1) 주요 관광통계

- 그리스 방문 외래관광객은 14,918천명으로 보고됨(2002년 기준). 이중 숙박관광객은 14,180천명임.
- 외래관광객은 지역별로는 유럽지역, 교통수단별로는 항공이 주를 이룸. 관광수입은 9,741백만달러로 보고됨.
- 호텔급 숙박시설의 수용능력은 319,689객실임.

<표 2-5> 그리스 주요 관광통계(2002년 기준)

구분	단위	통계
외래객입국(INBOUND TOURISM)		
□ 외래관광객	천명	14,918
- 숙박관광객(Overnight visitors)	천명	14,180
- 당일관광객	천명	-
- 크루즈 관광객	천명	738
□ 지역별 입국현황(Arrival by region)		
- 아프리카(Africa)	천명	22
- 미주(Americas)	천명	217
- 구주(Europe)	천명	13,630
- 동아시아태평양(East Asia and the Pacific)	천명	242
- 남아시아(South Asia)	천명	4
- 중동(Middle East)	천명	64
□ 교통수단별 입국현황		
- 항공	천명	10,438
- 철도	천명	89
- 도로	천명	2,856
- 해상	천명	1,535
□ 관광수입	백만달러(US\$)	9,741
내국인출국(OUTBOUND TOURISM)		
- 내국인출국자수	천명	-
- 관광지출	백만달러(US\$)	2,450
호텔급 숙박시설 현황(H&S)		
- 객실수(Number of rooms)	개수	319,689
- 침대수(Number of bed-places)	개수	606,330
- 객실이용율	%	-
- 평균체제일	1박(Night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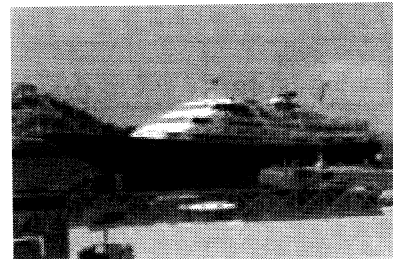
자료 : WTO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2003 Edition; 관광지식정보시스템 (www.tour.go.kr) 재인용

2) 관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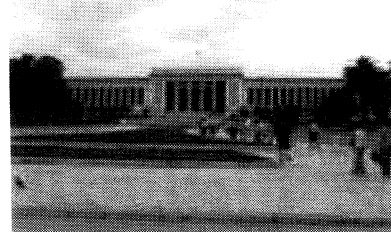
- 그리스 올림픽 개최를 위해 시내 외곽 32Km 지점에 신공항을 건설하였으며, 현재 외래관광객의 관문이 되고 있음.
- 관광산업이 국가 기간 산업으로 호텔 등을 굴뚝없는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음.
- 도시 및 교통계획 시 고대 그리스 유적 보존이 최우선 쟁점이 되며, 5층 이상의 건물 건축에 제한이 있음. 발굴 유적은 국립고고학 박물관에 주로 전시되어 있음.
- 아테네 방문객의 다수가 에게해 크루즈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피레아스(Pireas)지역이 크루즈항으로 활용되고 있음.
 - 에게해 1day 크루즈는 오전 8시15분에 출항하며, 단체 예약 형태로 운영됨.
 - 매력도가 다른 3개의 섬을 패키지 투어 형식으로 운항하고 있어 3개 섬 모두에 경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고대 그리스 유적 중 하나인 헤로데스 아티에스 음악당에서는 매년 여름 축제가 개최되는데, 유적을 관광자원화한 사례라 할 수 있음.



고층 건축 규제를 받는 아테네 시가지



에게해 1day 크루즈 선박



국립 고고학 박물관



여름축제가 개최되는 음악당

4. 이탈리아

1) 주요 관광통계

- 이탈리아 방문 외래관광객은 63,561천명으로 보고됨(2002년 기준). 이중 숙박관광객은 39,799천명임.
- 외래관광객은 지역별로는 유럽지역, 교통수단별로는 도로가 주를 이룸. 관광수입은 26,915백만달러로 보고됨.
- 호텔급 숙박시설의 수용능력은 986,326실임.

<표 2-6> 이탈리아 주요 관광통계(2002년 기준)

구분	단위	통계
외래객입국(INBOUND TOURISM)		
□ 외래관광객	천명	63,561
- 숙박관광객(Overnight visitors)	천명	39,799
- 당일관광객	천명	23,762
□ 지역별 입국현황(Arrival by region)		
- 아프리카(Africa)	천명	179
- 미주(Americas)	천명	2,065
- 구주(Europe)	천명	36,001
- 동아시아태평양(East Asia and the Pacific)	천명	1,383
- 남아시아(South Asia)	천명	89
- 중동(Middle East)	천명	82
□ 교통수단별 입국현황		
- 항공	천명	11,567
- 철도	천명	2,727
- 도로	천명	46,354
- 해상	천명	2,913
□ 목적별 입국현황		
- 여가 및 휴식	천명	27,548
- 상용	천명	25,383
□ 관광수입	백만달러(US\$)	26,915
내국인출국(OUTBOUND TOURISM)		
- 내국인출국자수	천명	25,126
- 관광지출	백만달러(US\$)	16,935
호텔급 숙박시설 현황(H&S)		
- 객실수(Number of rooms)	개수	986,326
- 침대수(Number of bed-places)	개수	1,929,544
- 객실이용율	%	39.60

자료 : WTO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2003 Edition,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재인용

2) 관광정책 동향

(1) 이탈리아 관광정책 주체 및 활동³⁾

□ ENIT(Ente Nazionale Italiano per il Turismo)

- 이탈리아 정부관광청인 ENIT은 1960년대 이후 스페인 등의 경쟁국가가 출현하면서 탄생하게 됨.
- 국가 관광홍보를 전담하고 있으며, 3년 단위로 관광정책(홍보정책)을 수립하며, 이는 정부 관광정책으로 반영됨.
- 현재, 2,000만유로 수준의 사업예산이 반영되는 계획이 수립 중에 있으며, 2005년 겨울 이전에 발표될 예정임.
- ENIT의 1년 예산은 3,500만 유로로 주로 해외홍보에 투입됨.
- 해외 촉진(promotion) 포인트로 음식, 문화, 예술, 바다, 호수, 비즈니스, 학회, 쇼핑, 스포츠 등 12-13가지 아이템을 선정하고 있으며, 표적 시장의 특성에 따라 특정 요소를 집중 홍보하고 있음. 가톨릭 순례와 관계된 관광진흥정책 등을 수립 중임.
- 저가 정책보다는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음.
- ETC(전유럽관광회의), ATC(알프스지역관광회의)와 협력 관계가 구축되어 있음. 이탈리아는 ETC의 리더국가중 하나임.
- 프랑스와의 전략적 공동 홍보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20개 지방자치단체

- '2001년 제정 135조 법률'이 관광에 관한 법으로 법률 제5항에 각 지역 단위가 이탈리아 관광의 질을 제고하는 핵심 단위로 규정되어 있음. 각 지역 단위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국가가 지원하는 구조임.
- 따라서, 20개 주가 이탈리아 관광정책 결정, 집행의 핵심 주체라 할 수 있음. 각 주의 협의회에서 관광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함.

3) ENIT 방문 면담 결과(2005년 6월22일)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 해외 홍보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데 이탈리아 전체 해외 홍보의 10% 수준을 분담하고 있음.

□ 관광부문 주요 성과 및 기반

- 2004년 말 기준 이탈리아 방문 관광객은 세계 5위 수준임. 이때 관광객수는 호텔 채류객 기준임.
- 관광수입은 350억유로로 중국, 프랑스와 비슷한 정도임.
- 관광산업은 이탈리아 총생산의 13%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200만명의 직접 고용, 500~600만명의 간접 고용 효과가 있음.
- 경쟁이점으로는 지리적 장점, 자연, 역사유적을 들 수 있는데, 질과 양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세계 제1의 국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
- 13세 이후부터 관광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대학에 관광 관련 석박사 과정이 개설되어 있음. 따라서 양질의 인력 공급 가능 체계가 이탈리아 관광산업의 주요 강점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음.

(2) 해외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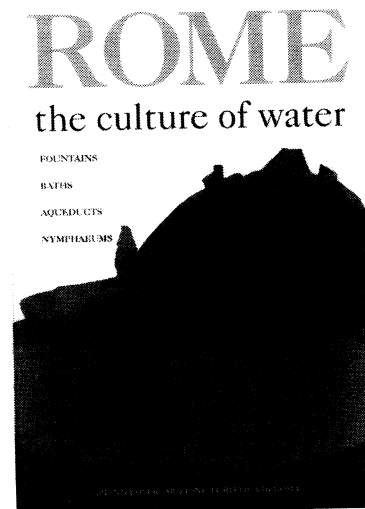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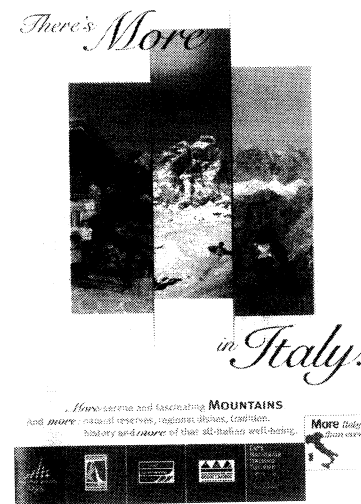
○ 해외 프로모션 활동 방법

- 30개국 지사를 통해 6개월 단위로 시장 동향 정보를 수집함.
- ENIT 내에는 정부 수집·분석 관련 연구부서가 있으며, 이 부서에서 각 국가별 분석자료를 가지고 있음.
- 수집한 정보에 기초하여 3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홍보 정책 수립 후에는 TV 방영, 설명회 개최 등의 행동 전략이 실행됨.

○ 최근에는 역사유적 외 다양한 매력물을 홍보 포인트로 활용하고 있음.

-There's More in Italy, Rome the culture of water 등의 홍보물이 그 예임(<그림 2-5> 참조).



주 : 역사유적 외 다양한 매력물을 홍보포인트로 활용
 <그림 2-5> ENIT 발행 홍보물 사례

Ⅲ. 사진으로 보는 님부유럽

1. 포르투갈
2. 스페인
3. 그리스
4. 이탈리아
5. 연수단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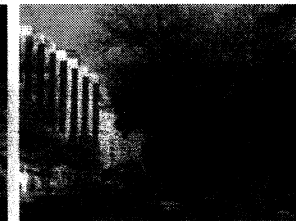
Ⅲ. 사진으로 보는 남부 유럽

1. 포르투갈

1) 포르투갈



안나표지사례



상징 가로수인 자카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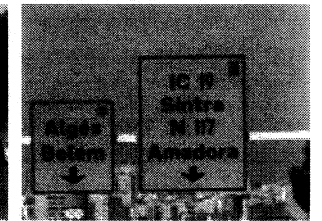
표지 사례



마치버스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표지 사례



트램 노선1



마차박물관 외관



마차박물관 내부



트램 노선2



제로니모스 수도원



관광안내소





신혼리관관내소내부

무어인의성

3) 까보다로까



까보다로까1

까보다로까2

까보다로까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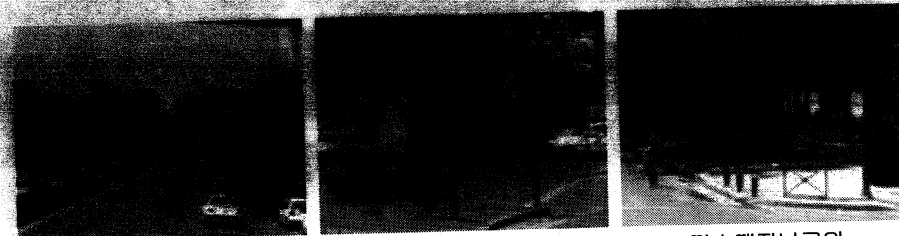
까보다로까4

까보다로까5

까보다로까6

2. 스페인

(1) 마드리드



마드리드시내

표지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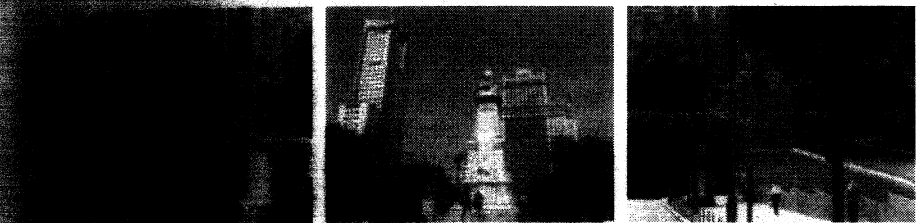
까스떼자나공원



마드리드거리

버스정류장

시티투어



마드리드거리

스페인광장

표지사례



신호등

쁘라다미술관

쁘라다미술관기념품숍



공동주택

안내표지

시내버스



버스노선안내표지

차량번호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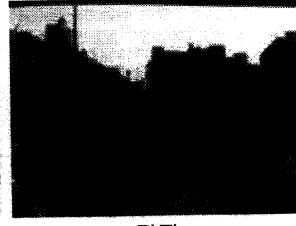
표지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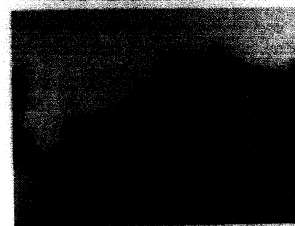
시내 공영주차장 입구



버스전용차로



광장



왕궁



표지사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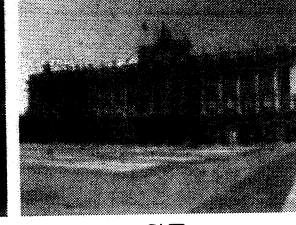
노천카페



플라밍고공연장



플라밍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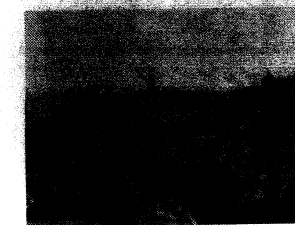


왕궁



왕궁내 기념품숍

(2) 톨레도



톨레도 전경



관광안내소



표지사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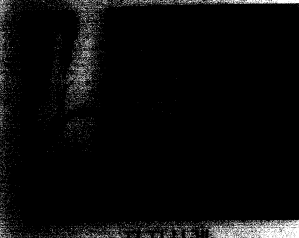
구시가 골목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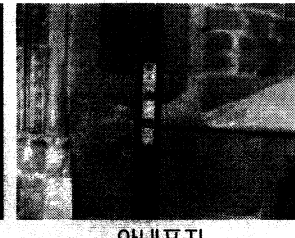
구시가 골목풍경



구시가 골목풍경



표지사레



안내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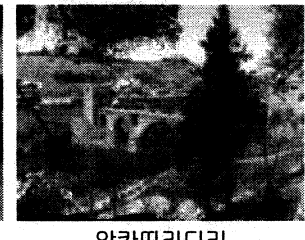
톨레도대성당



보도



관광안내표지



알칸따라다리



애저식당



올리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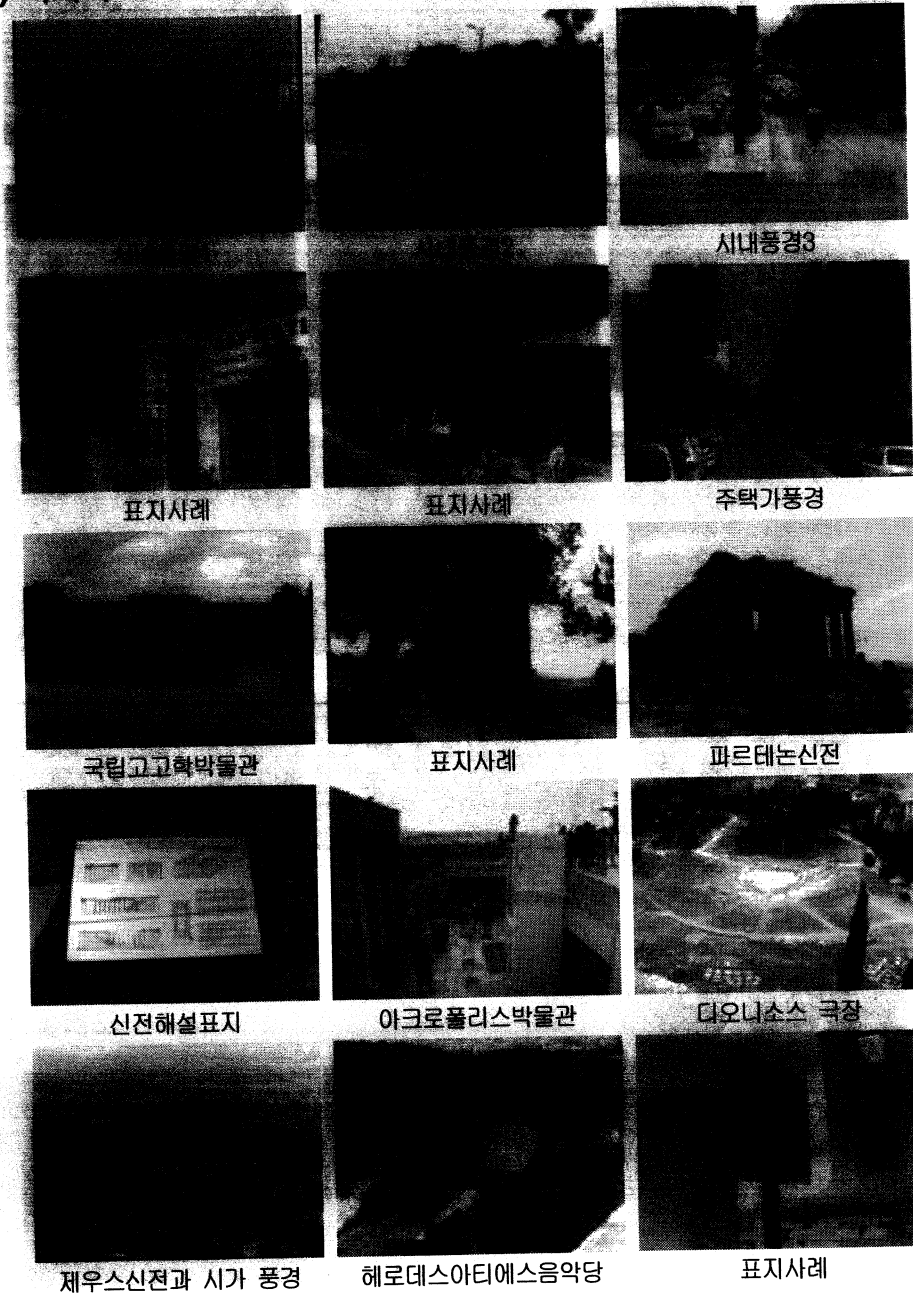
금입사세공시현



공예품

3. 그리스

(1) 아테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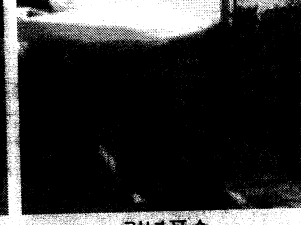
(2) 포르스섬



기념품사레



골목길



기념품숍

(3) 이드라섬



크루즈 선박



노천카페



승마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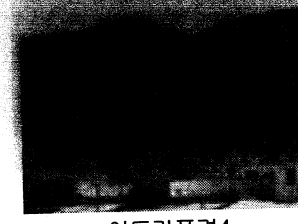
이드라풍경1



이드라풍경2



이드라풍경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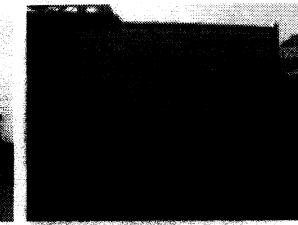


이드라풍경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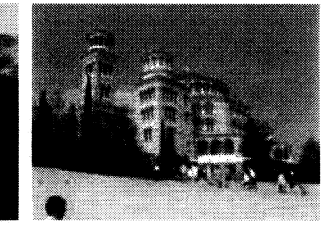
이탈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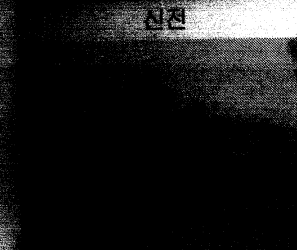
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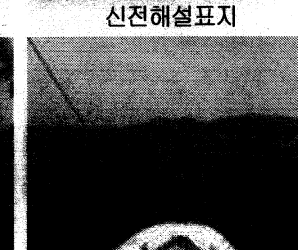
신전해설표지



그리스정교회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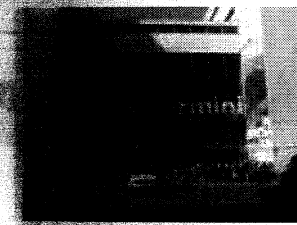
에기나 시내 풍경



크루즈에서 본 에기나 풍경

4. 이탈리아

(1) 로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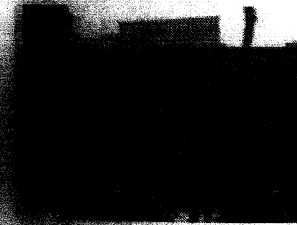
페르미니 중앙역



시내 풍경



버스안내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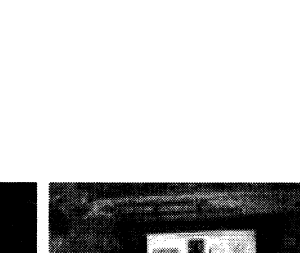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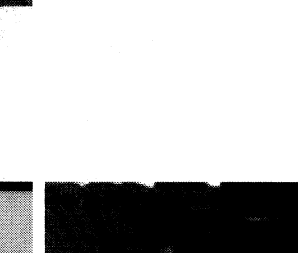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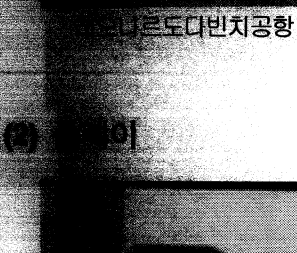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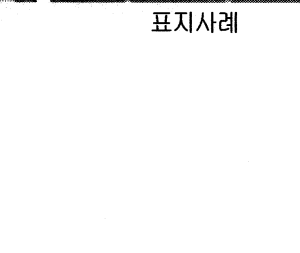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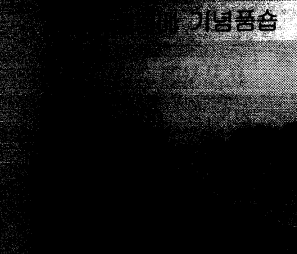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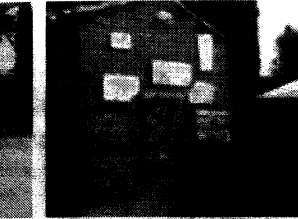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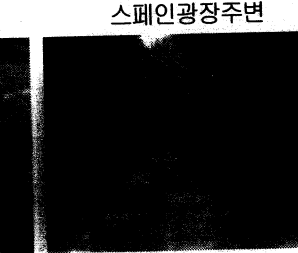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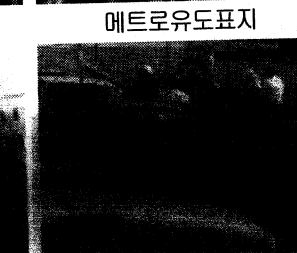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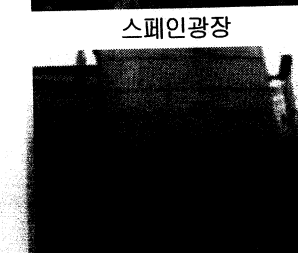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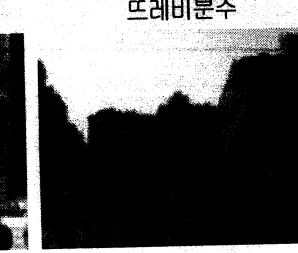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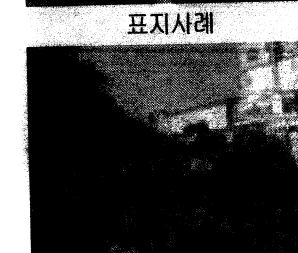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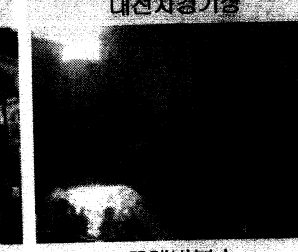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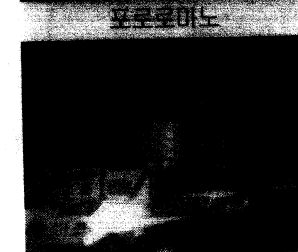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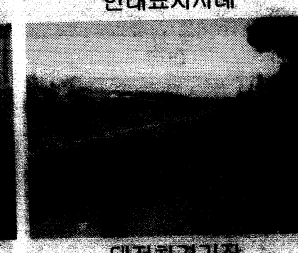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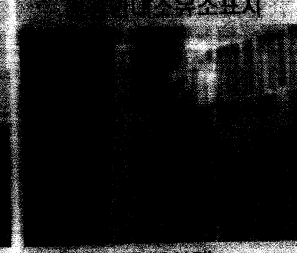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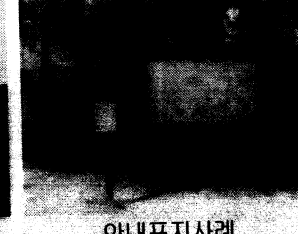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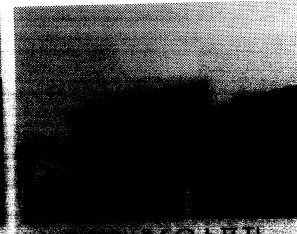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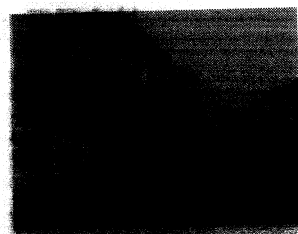
바티칸박물관



바티칸박물관



산베에드로 대성당



(3) 소렌토



나폴리섬



5. 연수단 활동



리스본 관광협회 Turismo de Lisboa 방문



이탈리아 관광청 ENIT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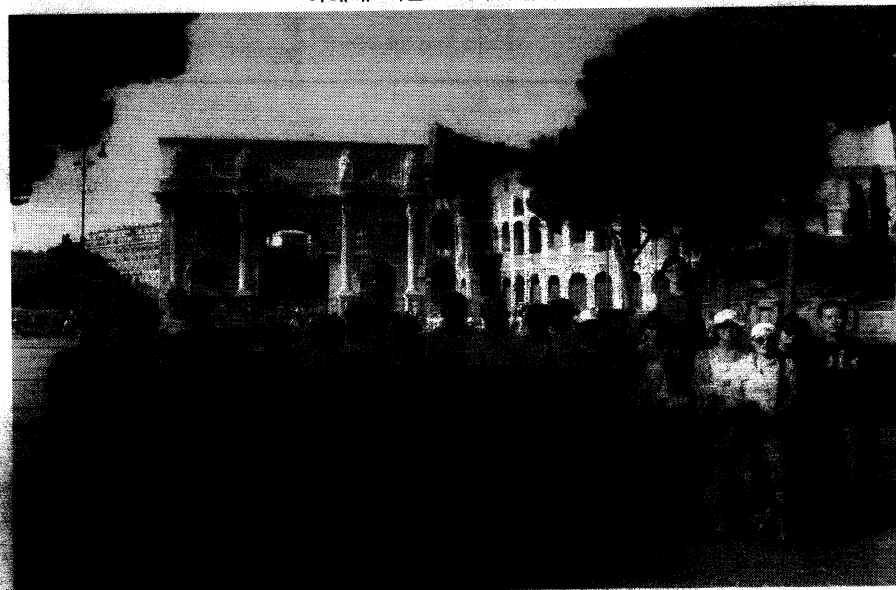
리스본 발견기념비를 배경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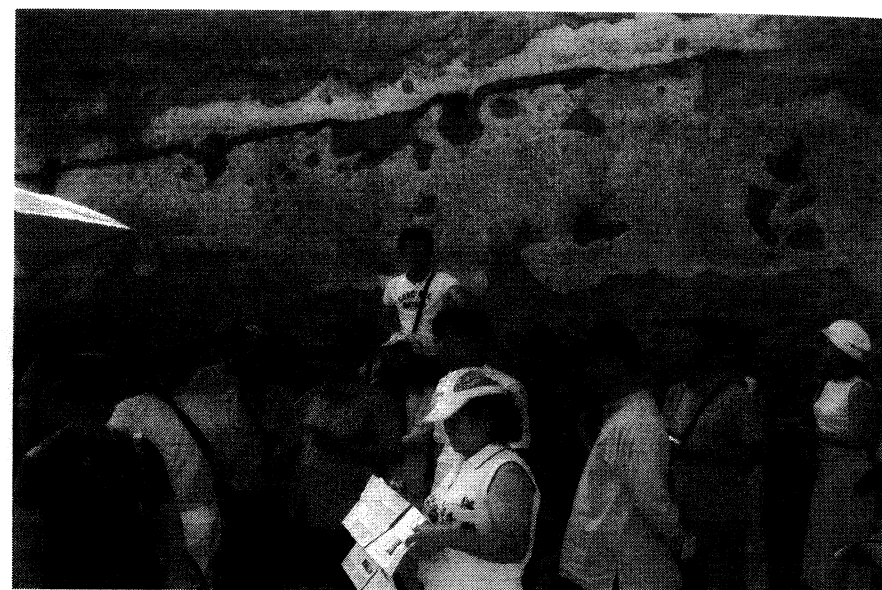
아테네 올림픽경기장을 배경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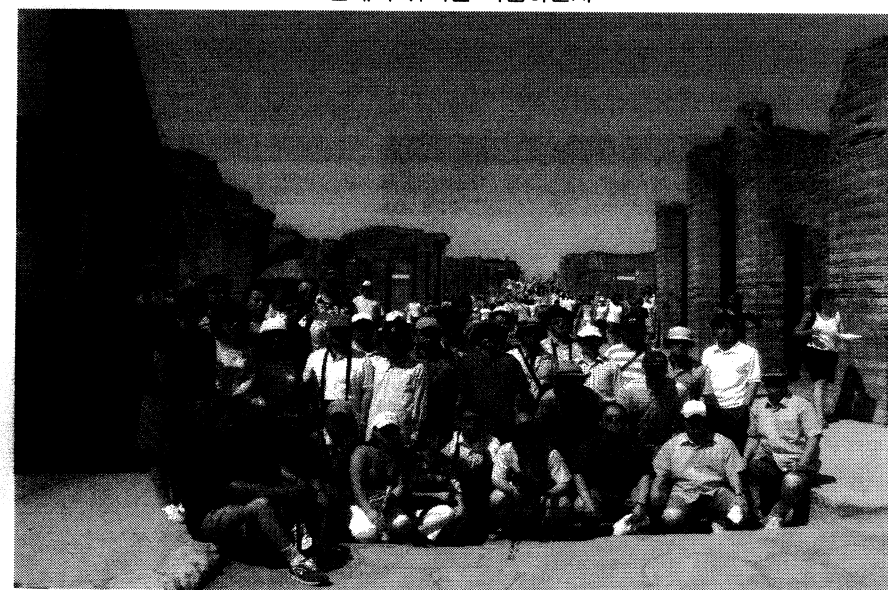
아테네 국립고고학박물관에서



로마 콜로세움을 배경으로



폼페이 유적을 학습하면서



폼페이 유적을 배경으로

부 록

1. 리스본 관광협회 및 프로모션
관련 자료
2. 대구경북연구원 원내 보고자료

1. 리스본 관광협회 및 프로모션 관련 자료⁴⁾

1) 리스본 관광협회 소개 자료

WHY LISBON

- Turismo de Lisboa Visitors & Convention Bureau
- Why Lisboa ?
- Accommodation
- Lisbon Alive! City and surroundings

The Turismo de Lisboa is a non-profit organization, established through an alliance of public and private bodies, which operate in the tourist sector. It has now over 400 associated members. The main objective of this association since 1998 is to combine efforts, in order to improve and further the promotion of Lisboa as a tourist destination, and thus to improve the quality and competitiveness of the city. The Association's activities also include the creation of various tourist projects, as a result of private initiatives or in partnership with other entities. The Turismo de Lisboa is divided into two sections: the Visitors Bureau and the Convention Bureau. Both share the overall objectives of the Association, but each aims to promote the city amongst different segments of the market.

The city of Lisboa and Lisboa Coast (comprising the Estoril Coast, Sintra and the Blue Coast Tourist Region with its head office in Setúbal), have all the natural resources and the adequate facilities for staging either a leisure journey or the most successful congress, conference or incentive events all year round. The prevailing mild weather, top quality hotels, modern

⁴⁾ 리스본 관광협회 제공 자료임.

meeting facilities, the multiple entertainment available, the variety of sightseeing tours, the historical and monumental highlights and last but not the least, the highly professional group incoming handling travel agencies and conference organizers, all contribute in making Lisboa an ideal city-break holiday or convention destination.

SOME FACTS IN FAVOUR OF LISBOA AS THE VENUE FOR EITHER A HOLIDAY JOURNEY AND A CONVENTION DESTINATION

- Lisboa is just a few hours flying from most European cities and two from London.
- Climate is mild all year round.
- Standard prices are lower than the rest of Europe (Hotels, restaurants, transportation, entertainment, etc.).
- Presently the Hotel capacity in the area is over 26.252 not including student hostels). Nevertheless new hotels are being built and projects for a number of new properties have already been approved, increasing the number of beds available in 2003 and 2004 to more than 30.000.
- Delicious food and wines.
- Many tourist and resorts facilities are to be found within 15 / 20 Km Lisboa (sandy beaches, Golf courses, Tennis, horse riding, etc.
- Lisboa is one of the safest cities in the World.
- Nightlife is exceptionally attractive in Lisboa. Besides a frequently hosting the performed international acclaimed artists (orchestras, ballet and opera companies, singers and other performers, as well as rock groups and folklore shows), Lisboa is well known for its typical night recipe: the largest and most sophisticated Casino in Europe, the Fado Singing-Dinner circuit, and the Docas (Docks) pubs and Discos area an exceptional route with some of the best European night spots, by the lively Santos Alcântara Tagus side

SOME EVERYDAY ITEMS AT 2005 PRICES(IN EURO)

■ Express Coffee	0,50
■ Bottle of wine	12,00
■ Beer	1,00
■ Light Lunch	12,00
■ Underground ticket	0,65
■ Bus ticket	1,10
■ Taxi (airport / hotel ride)	12,00
■ Cigarettes (regular pack)	2,35
■ Daily Newspaper	1,00

ACCOMODATION

The Portuguese Hotel industry has established a good reputation abroad basically due to high standard of the services rendered. Also good professionals team together with the Portuguese natural warmth and friendliness making a powerful combination that will certainly help you to feel welcome.

The Hotel capacity in 2003, broken down by category, is as follow:

HOTELS	ROOMS	BEDS AVAILABLE
5 *	3.200	5.825
4 *	6.575	9.828
3 *	4.072	8.072
2 *	1.193	2.527

Lisbon Alive! City and surroundings

Known for its light and beauty, Lisbon has always been a veritable Aladdin's cave for those in search of new discoveries. The city is full of live, and is notable for the variety of places and history it offers visitors.

Lisboa was particularly important in the fifteenth and sixteenth centuries as the point of departure for maritime discoveries, and for centuries it was a major trading port. In 1755,

a massive earthquake almost completely destroyed the city, in particular the area now known as Baixa Pombalina, named in honor of the Marquis of Pombal who ordered its reconstruction. Two distinctive features of the area are its gridiron street layout and its street names, recalling the crafts and trades of this part of town. Near to this quarter there is Chiado which has been connected to literary and cultural movement since ever.


But Lisboa has other historic quarters that also had to its charm. They include Mouraria, Madragoa, Alfama and Castelo the castle district with its belvedere. All this old quarters with medieval origins keeps in our days a characteristic and familiar environment with small houses and narrow streets that gives a unique dimension to the city.

The Bairro Alto district that remount to the fifteen century, became a fashionable area for its proper and unique characteristics. Architecture, Gastronomy, Traditional shops and also Fashion and Design, contribute for the exceptional spirit of this district, which is in our days one of the best places for the nightlife lovers. Bairro Alto with Docas and Avenida 24 de Julho are one of the most crowded nightlife areas in Europe.

This and some other unique quarters like Belém - which was from there that the Discoveries began-, and the recently refurbished in and around Expo'98 Nations Park- add color to Lisbon's varied palette.

All this and more is offered by the city and its surrounding area, Estoril and Cascais, with extensive beaches and delicious fresh fish and shellfish. Also not to be missed are the mountains and palaces of Sintra, a world heritage site, and the charming Setúbal Peninsula, which also has the lure of the sea.

2) 리스본 관광협회 프로모션 전략 소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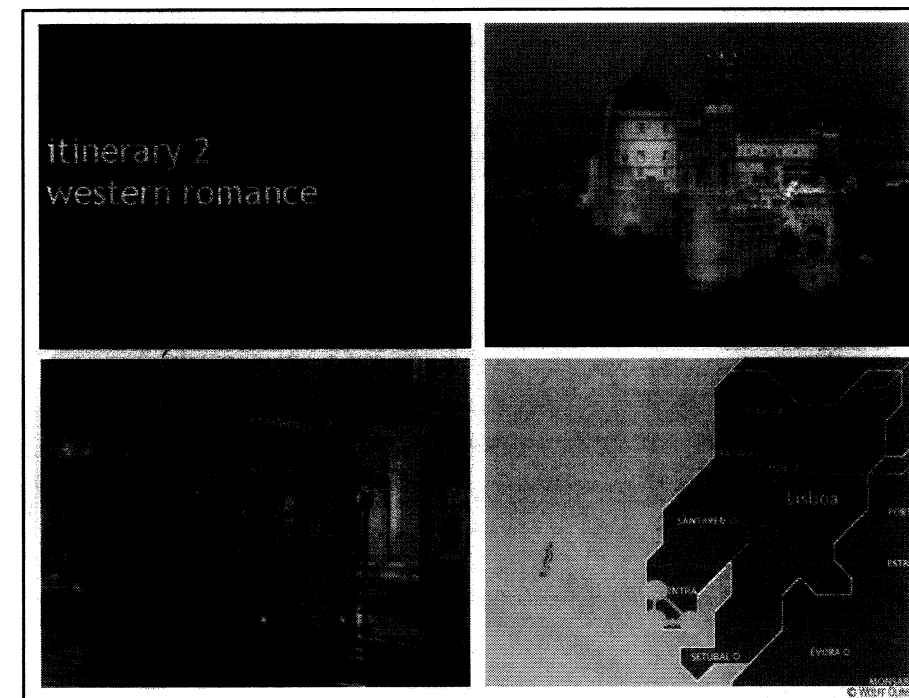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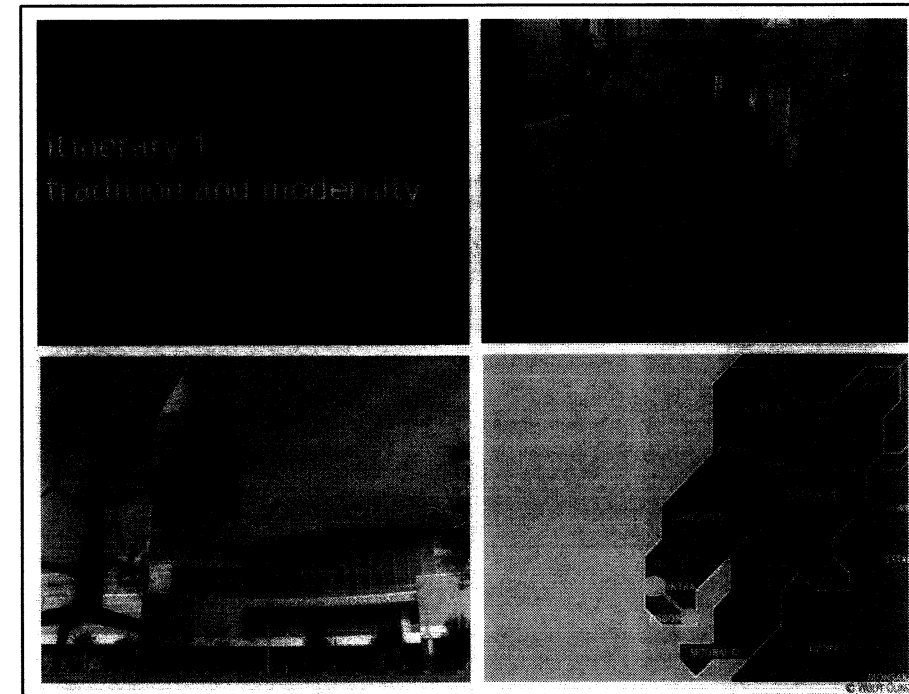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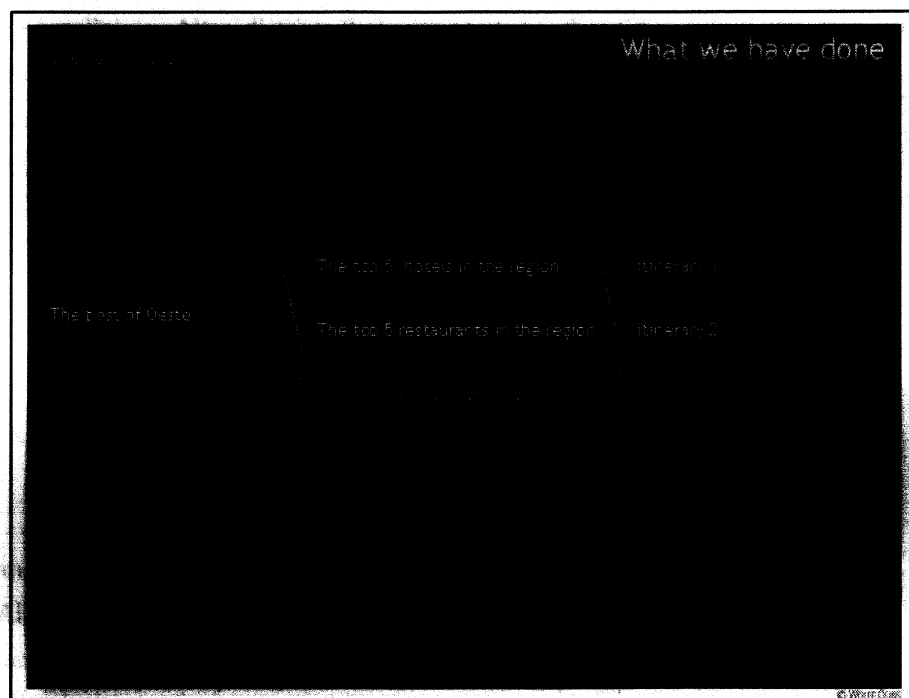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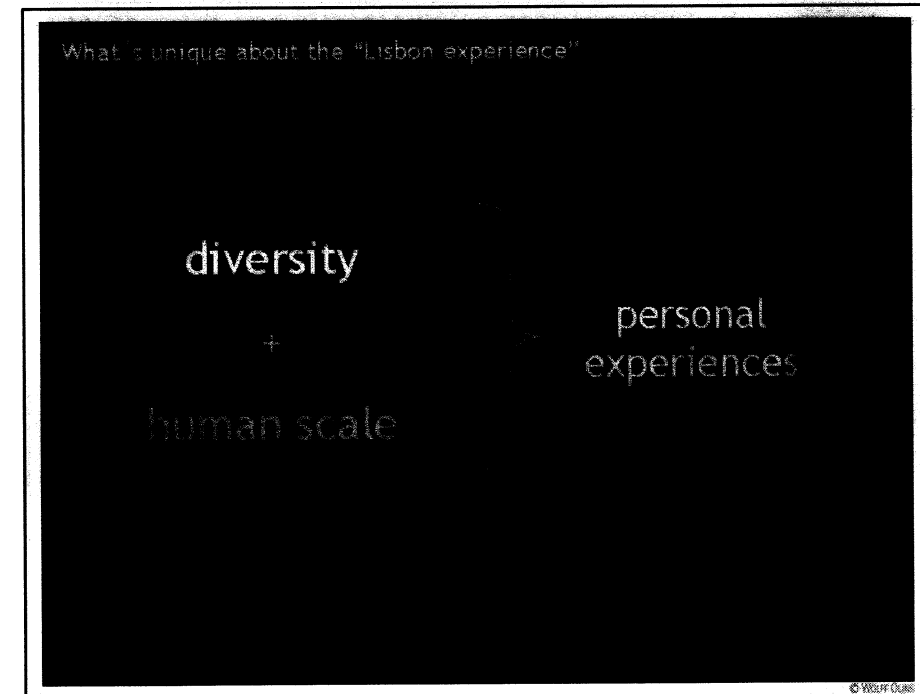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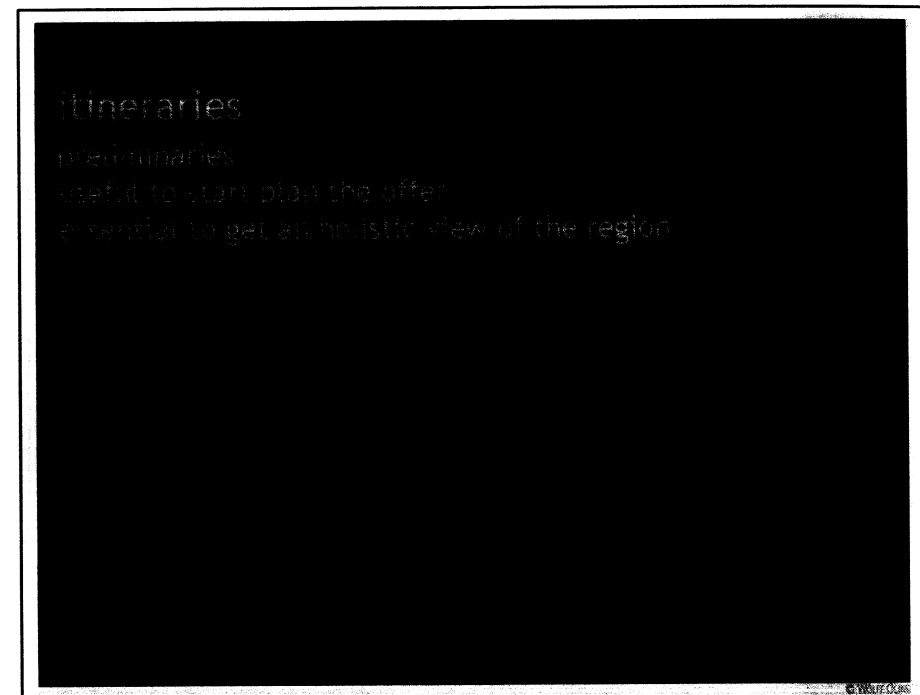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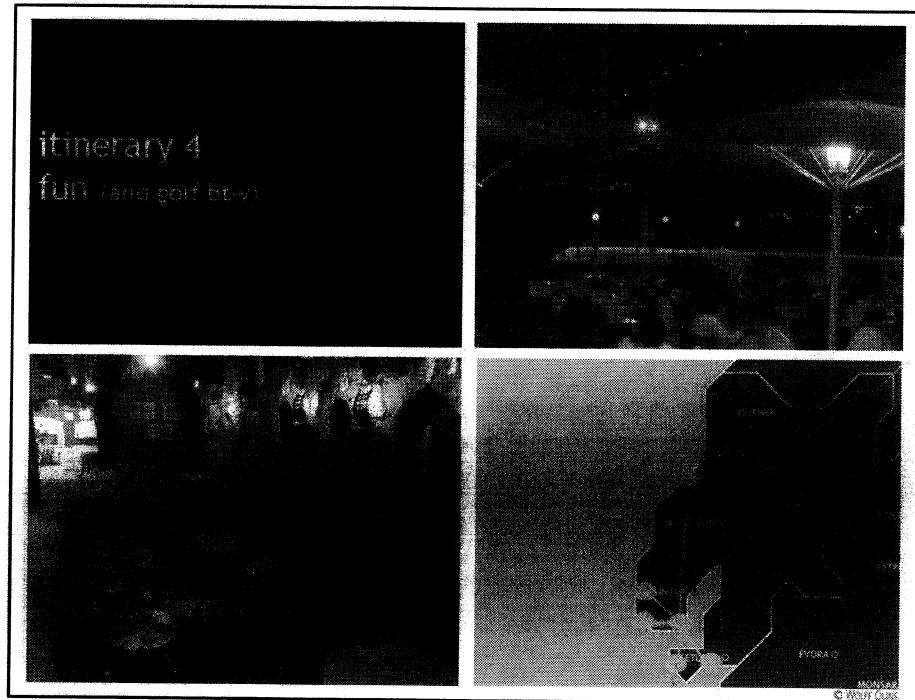
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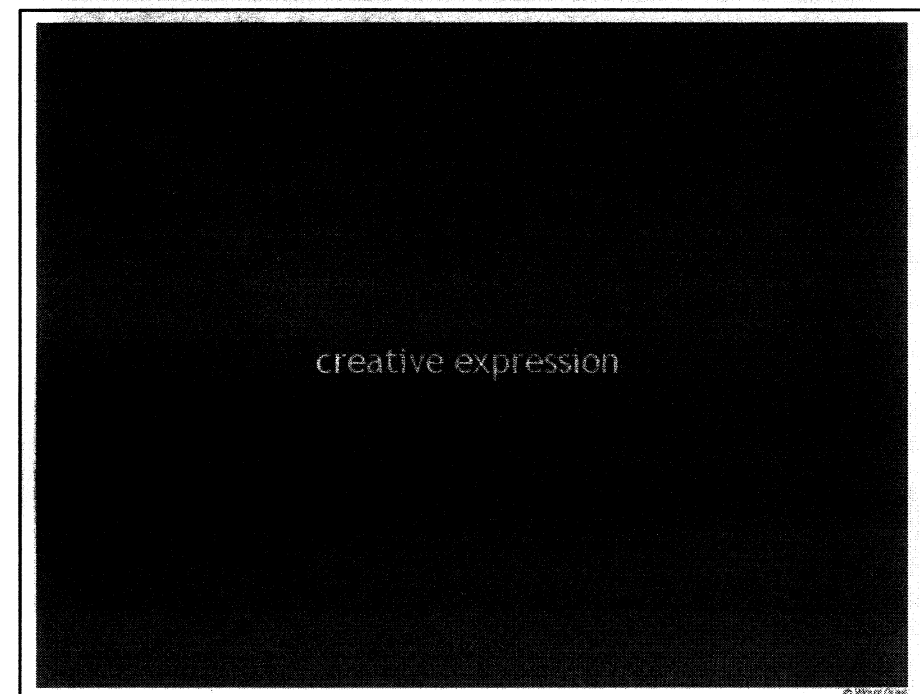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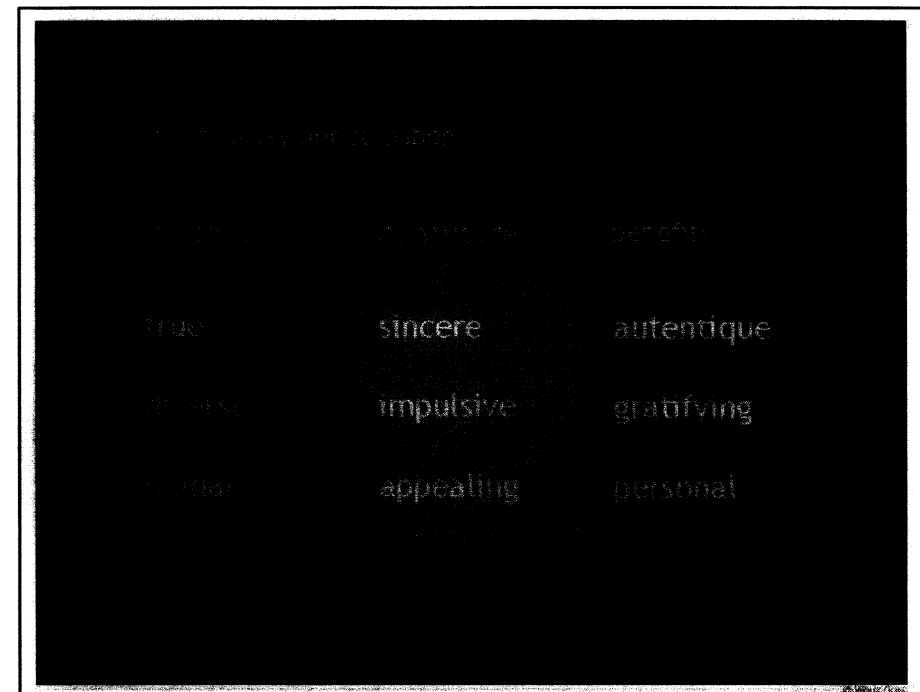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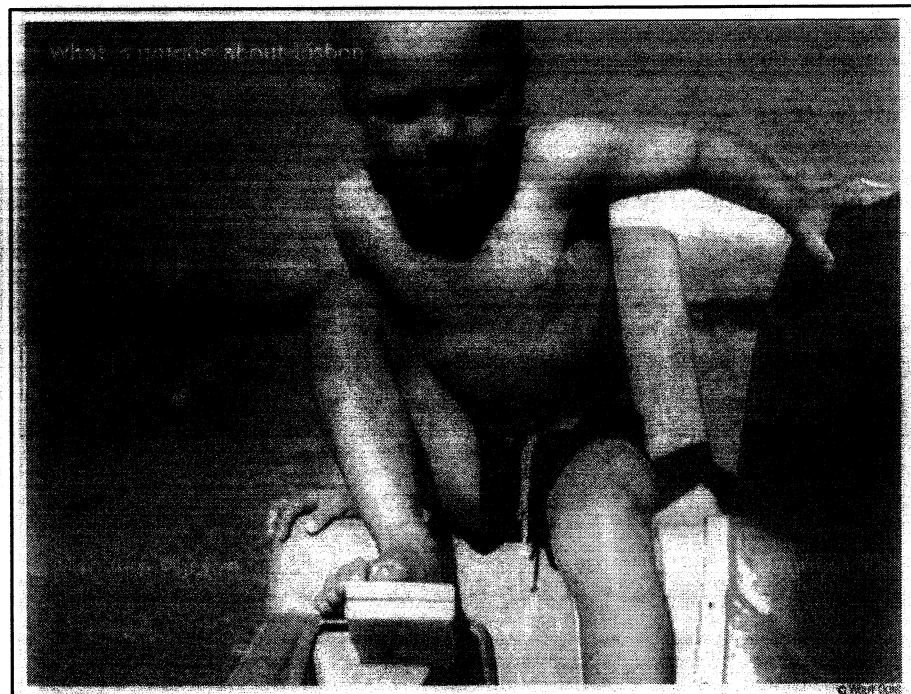
Lisbon promocional a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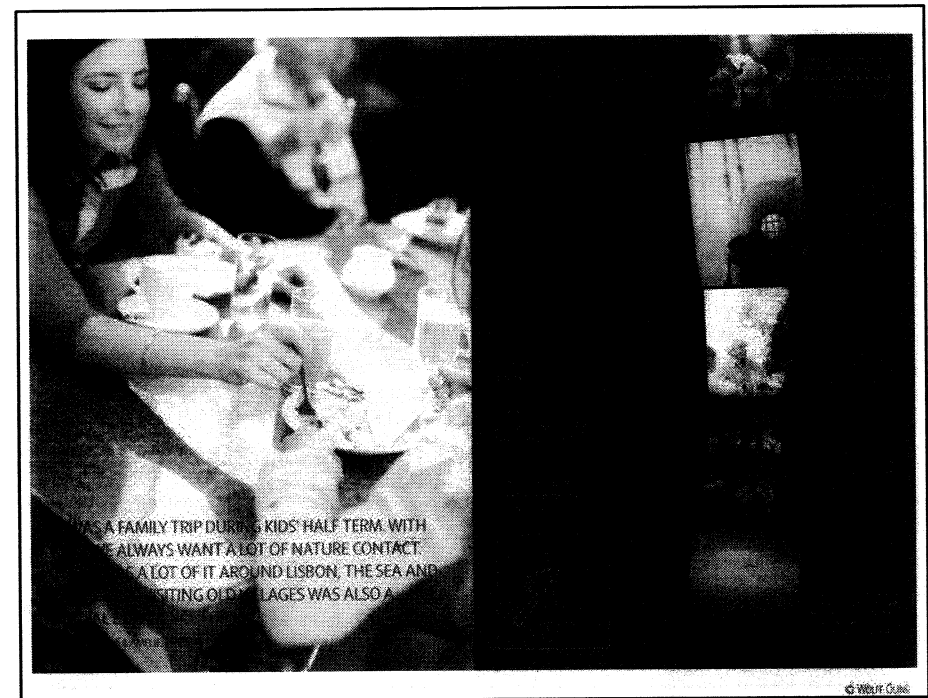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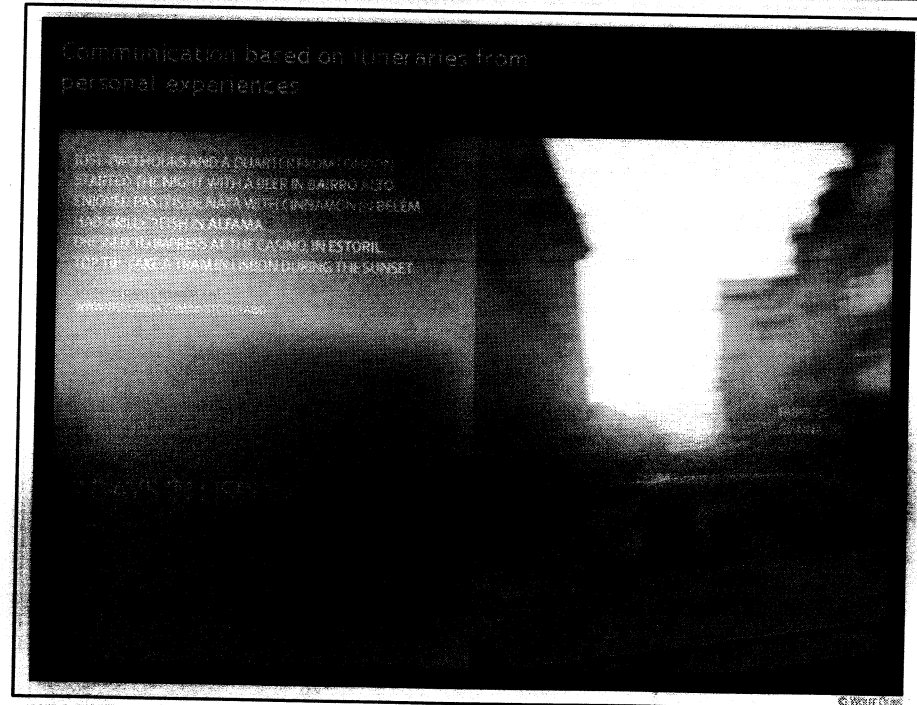
Our bran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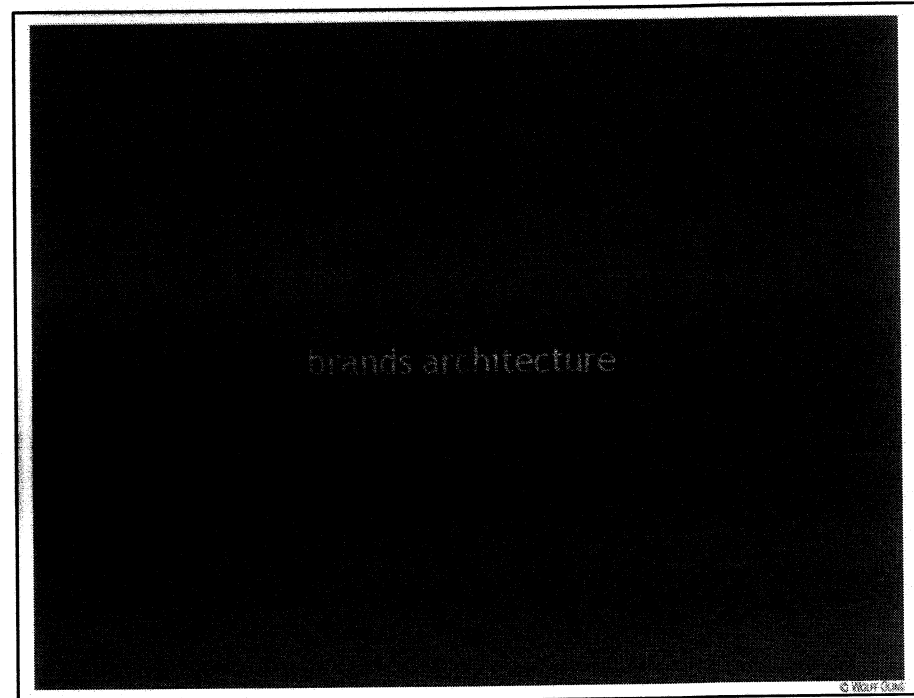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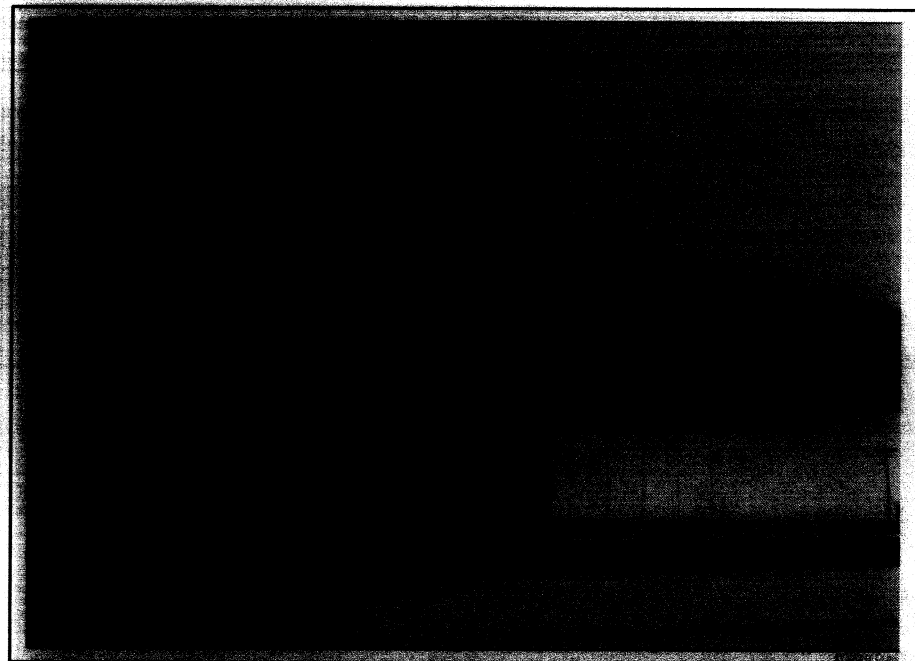
The major challe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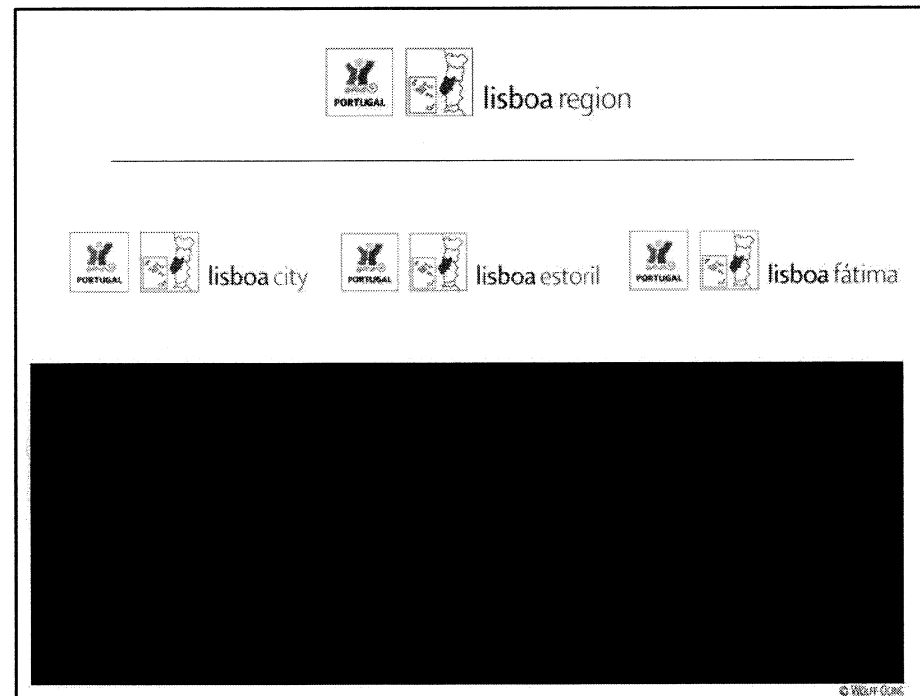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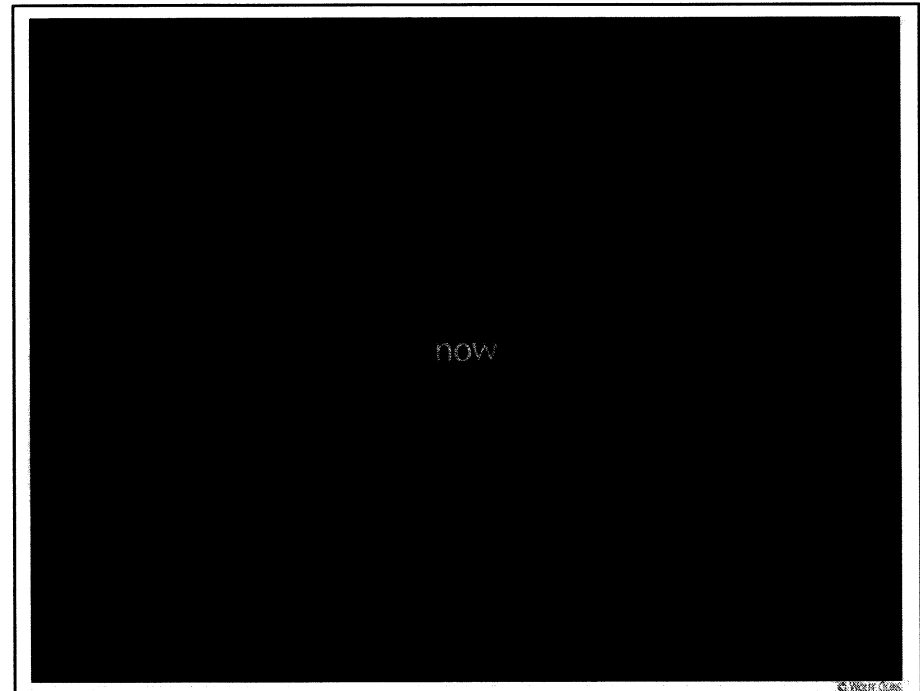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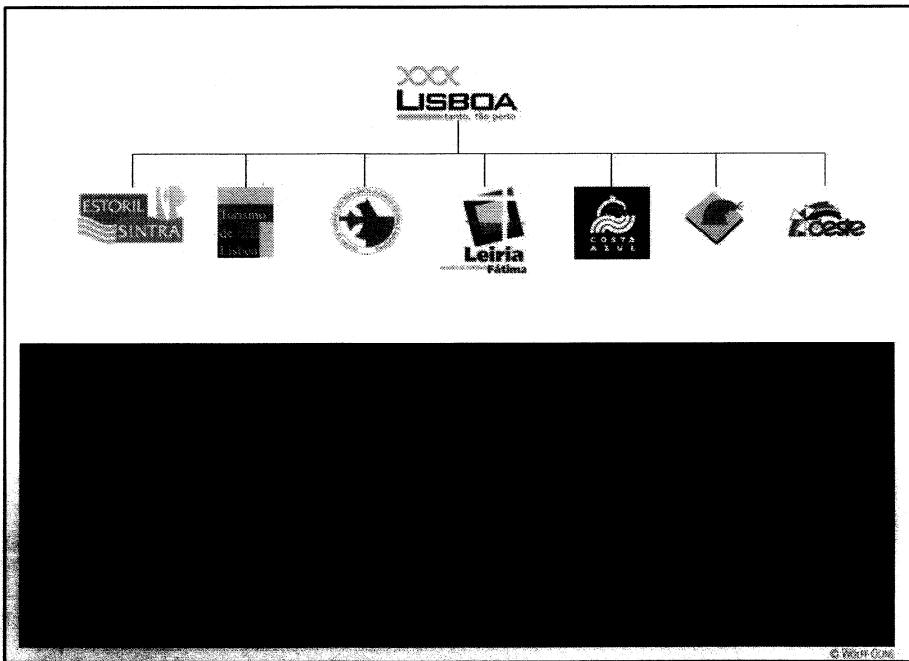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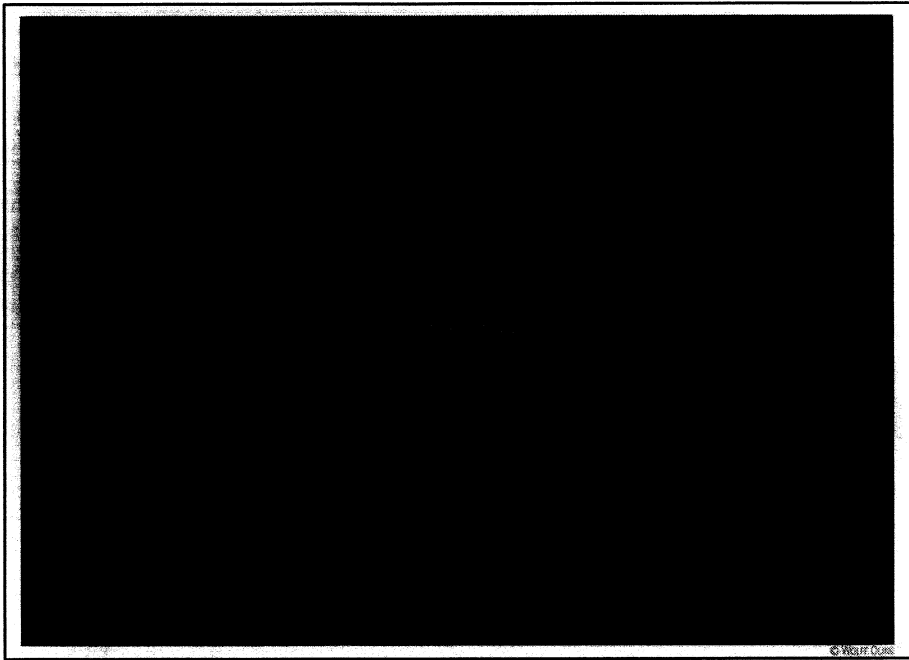














Costa Azul



© W&P G&B

Templári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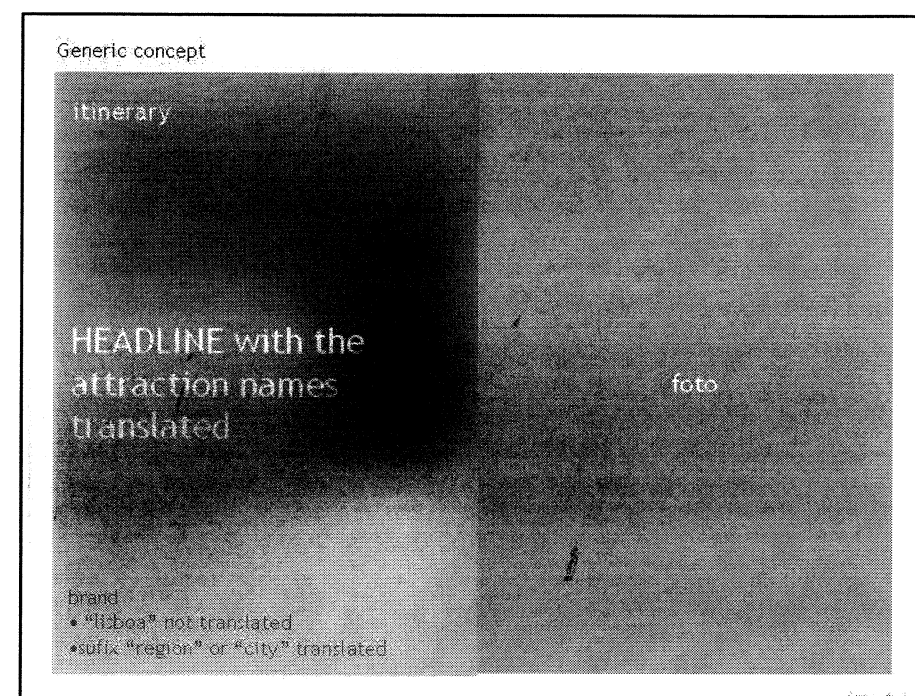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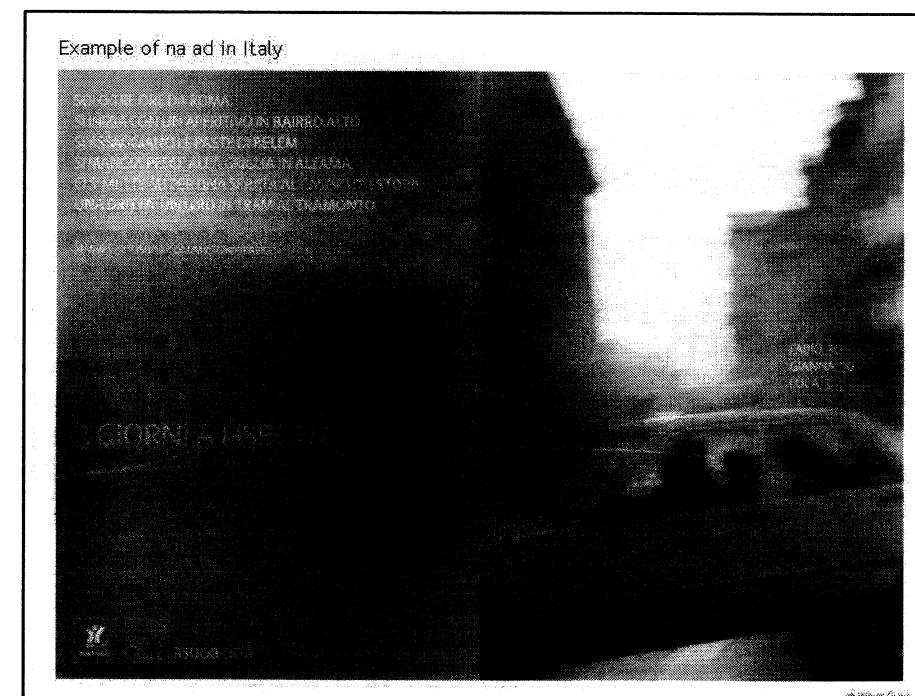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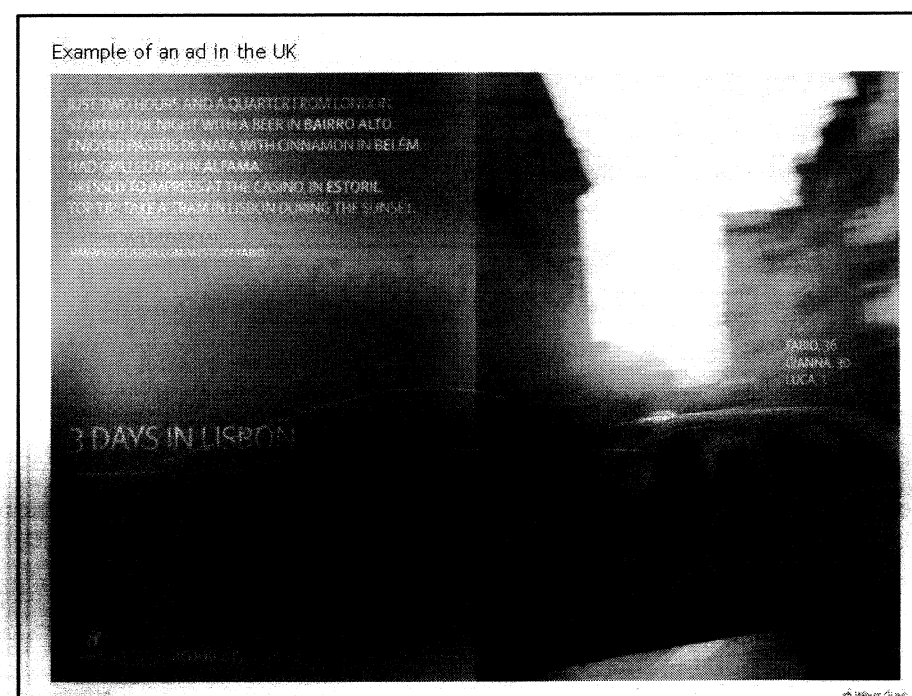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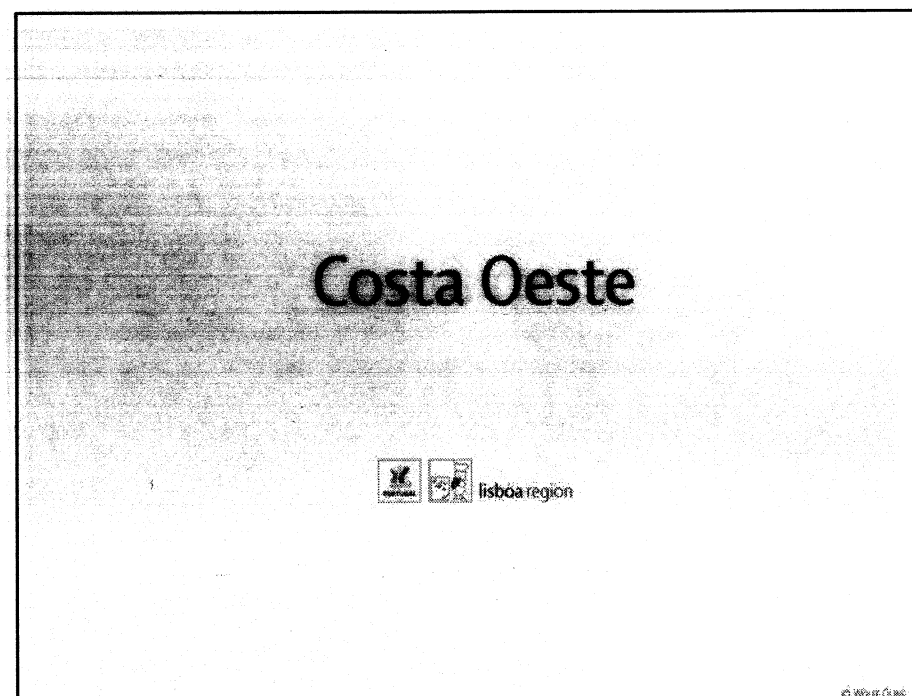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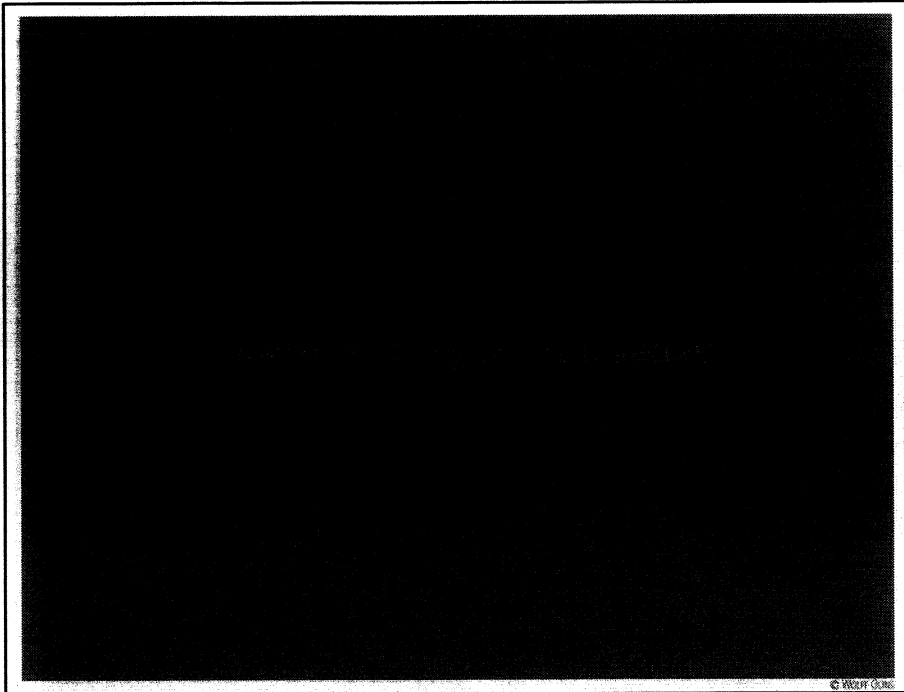
© W&P G&B

Ribatejo



© W&P G&B





ad

JUST 2 HOURS AND HALF FROM AMSTERDAM
 STARTED IN LISBON
 GOT LOST IN ALFAMA
 WENT TO CALDAS DA RAINHA
 GOT LOST IN OBIDOS
 DROPPED BY TOMAR
 GOT LOST IN CONVENTO DE CRISTO
 FOLLOWED THE PILGRIMS
 FOUND MYSELF IN FATIMA

MY THREE DAYS STORY
WWW.VISITLISBOA.COM/STORY/ROSE

FIND YOURSELF IN FATIMA

ROSE, 32
 PETER, 31

lisboa region

© WOLFF GUNZ

ad

JUST 3 HOURS FROM FRANKFURT
 STARTED WITH SOME DRINKS AT DOCAS
 PLAYED SO SO AT OITAVOS
 SPENT THE NIGHT DRINKING BEER IN BAIRRO ALTO
 FELT ON MY BACK WHILE DANCING IN LUX
 PLAYED GREAT AT BELAS CLUB DE CAMPO
 TOP TIP: PARTYING DOES NOT INFLUENCE YOUR GOLF SCORE

MY THREE DAYS STORY
WWW.VISITLISBOA.COM/STORY/EDUARD

GOLF LISBON STYLE

lisboa region

© WOLFF GUNZ

ad

JUST 2 HOURS FROM RADJIC
 PLAYED GREAT AT PRAIA D'EL REY
 WALKED AROUND OBIDOS
 HAD FANTASTIC FISH IN PENICHE
 OVERSLEPT AT THE BEACH
 FORGOT TO PLAY AT VIMEIRO
 NEED TO COME BACK NEXT WEE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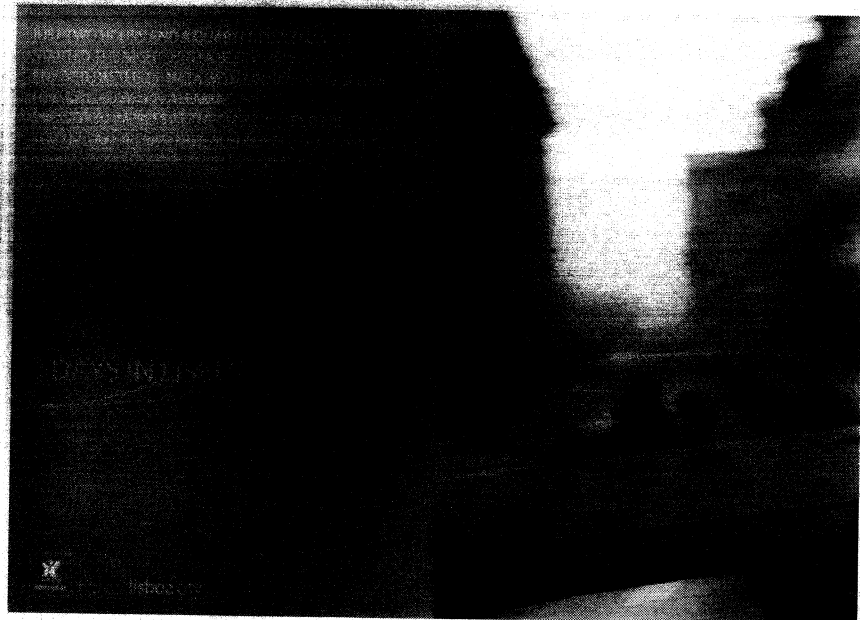
WWW.VISITLISBOA.COM/STORY/ROBERTO

GOLF COSTA OESTE STYLE

lisboa reg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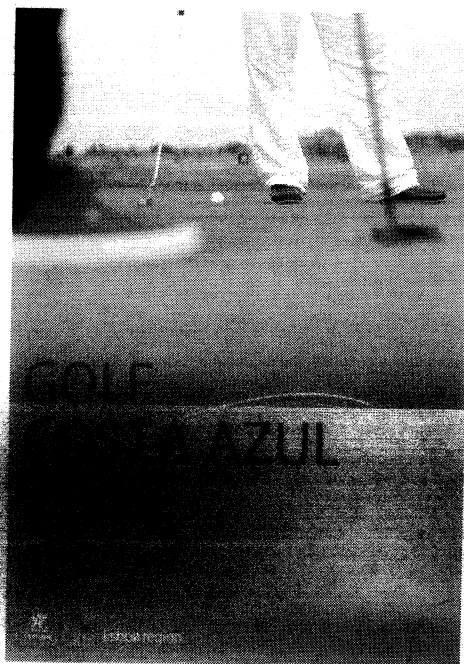
© WOLFF GUNZ

Ad - city brea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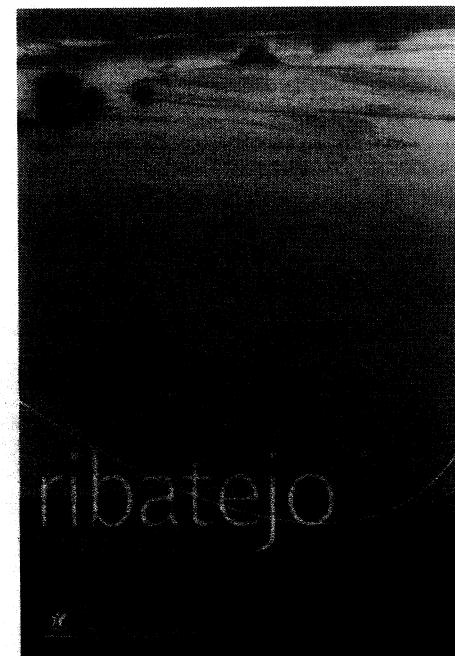
© WOLFF GUNZ

broch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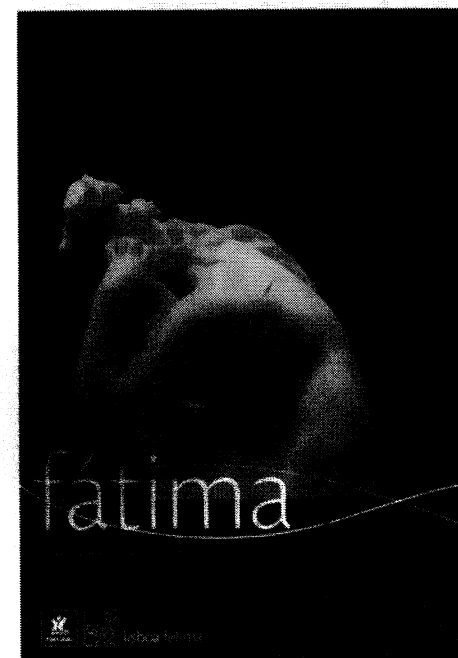
© WOLFF GUNZ

broch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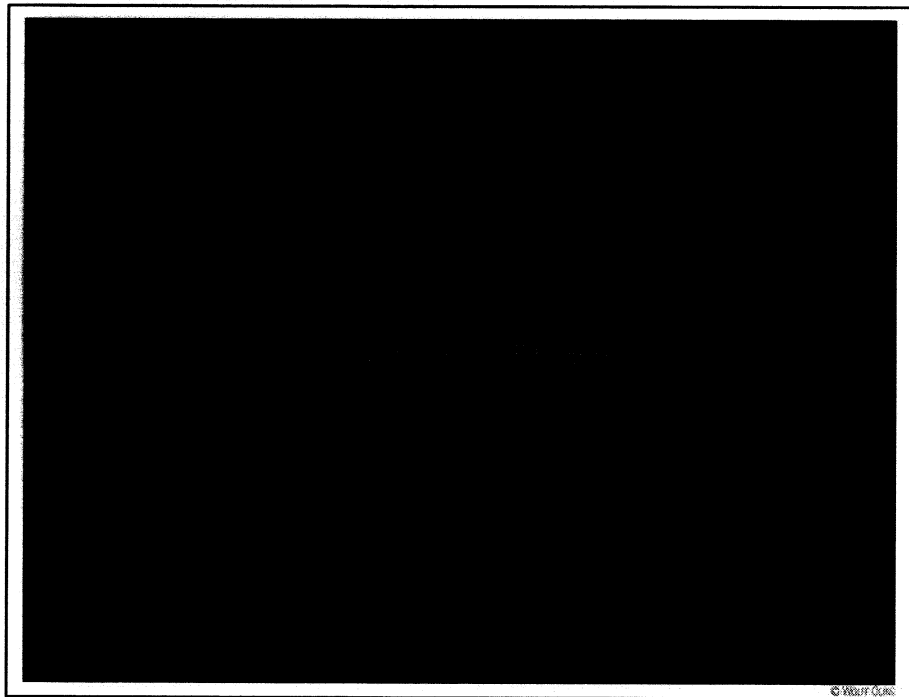


© WOLFF GUN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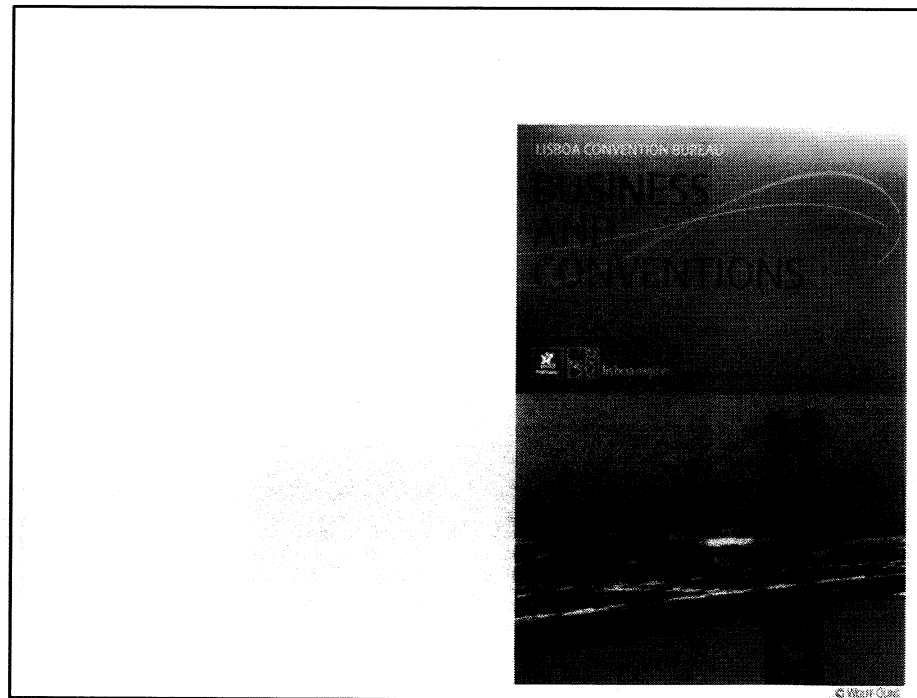
broch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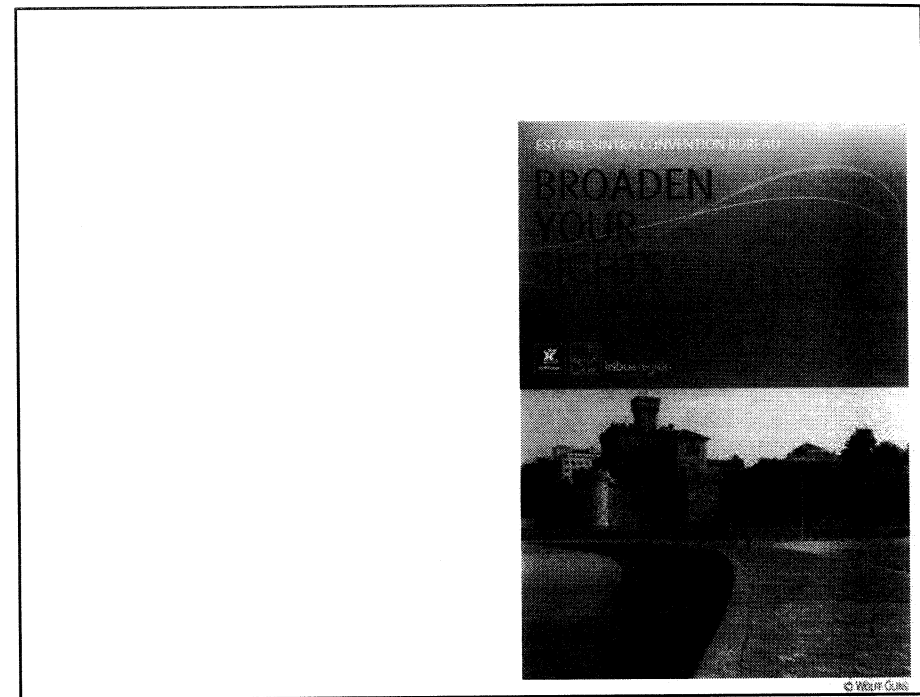
© WOLFF GUNZ



© WOLFF OLING



© WOLFF O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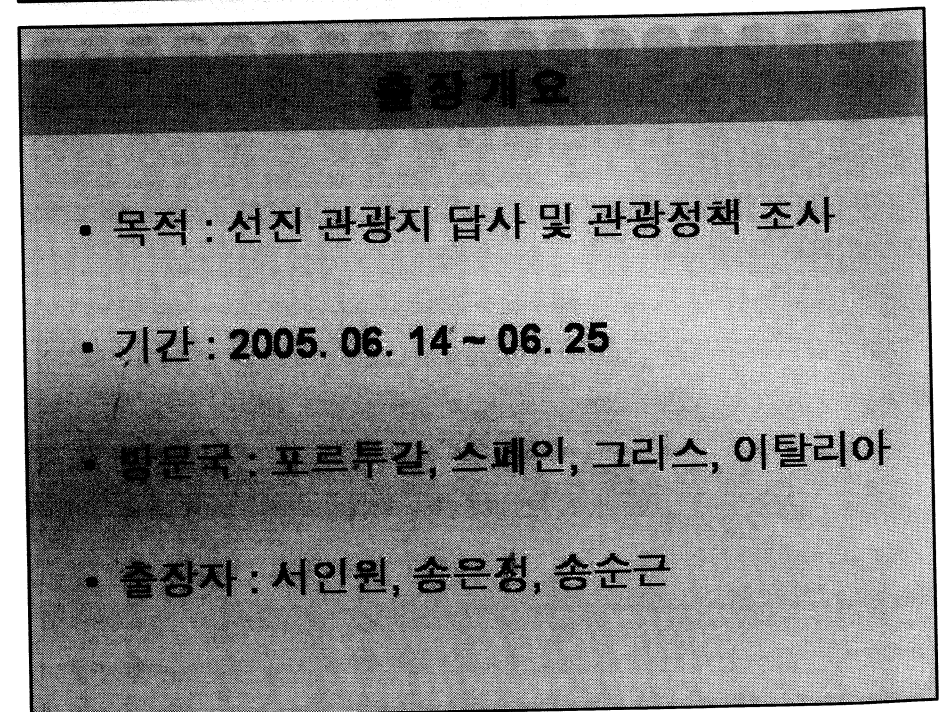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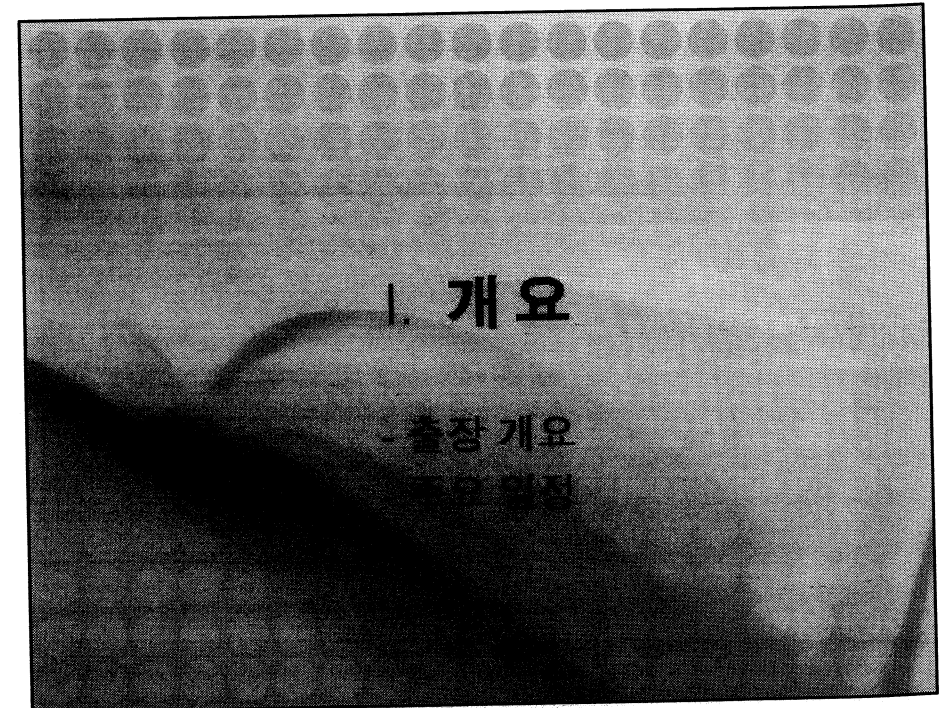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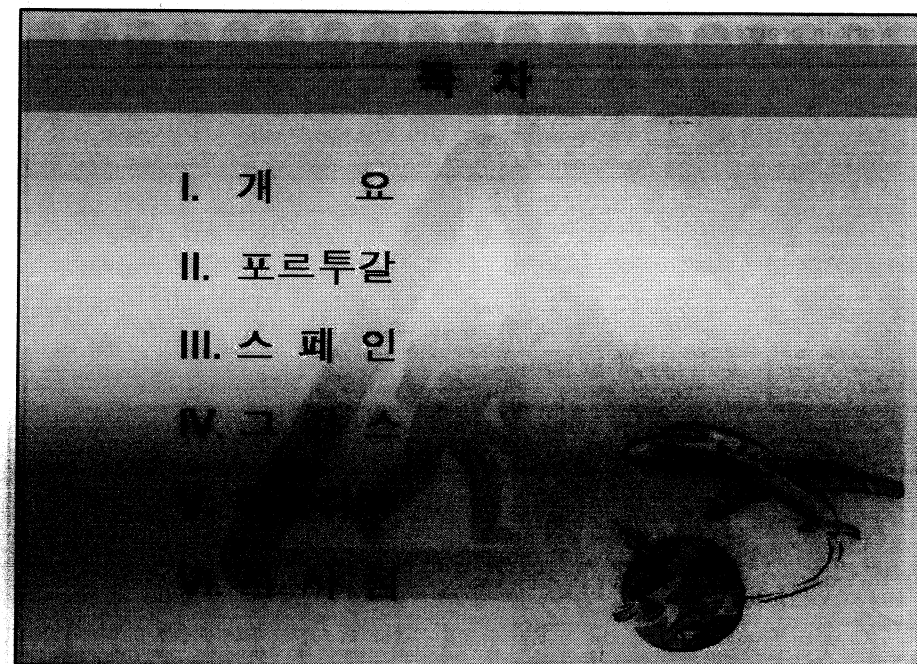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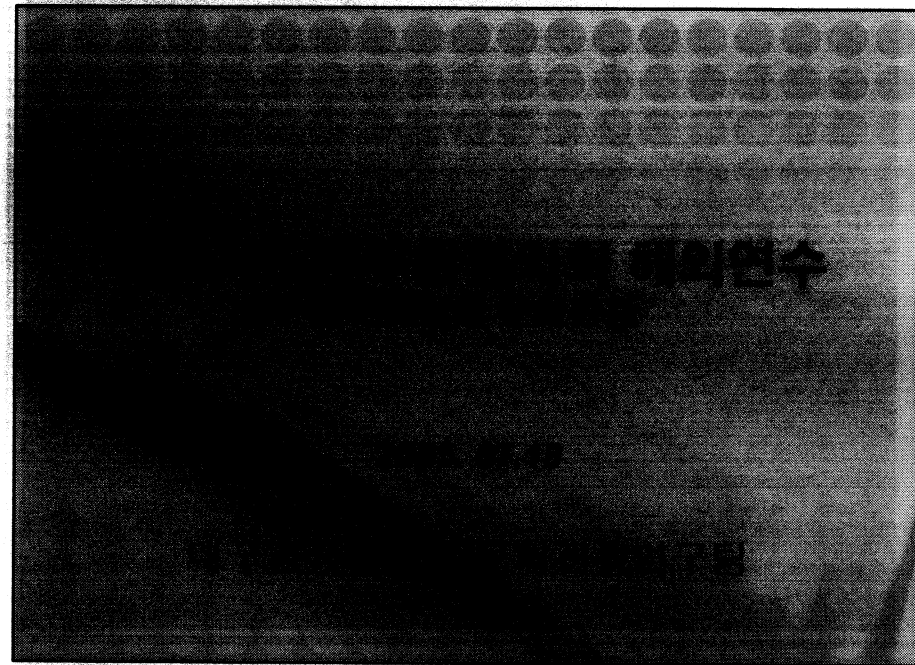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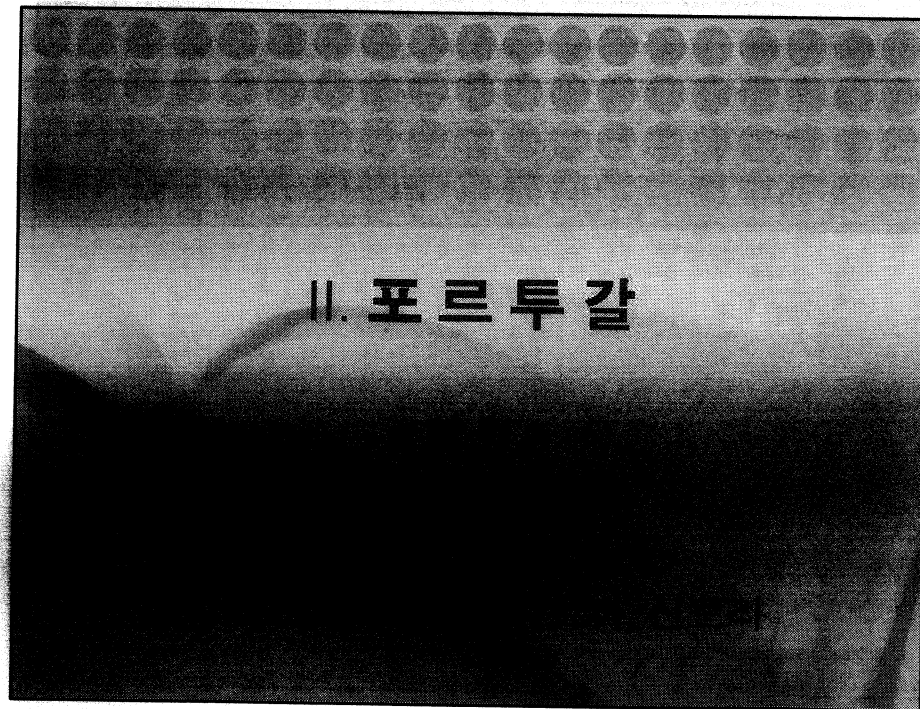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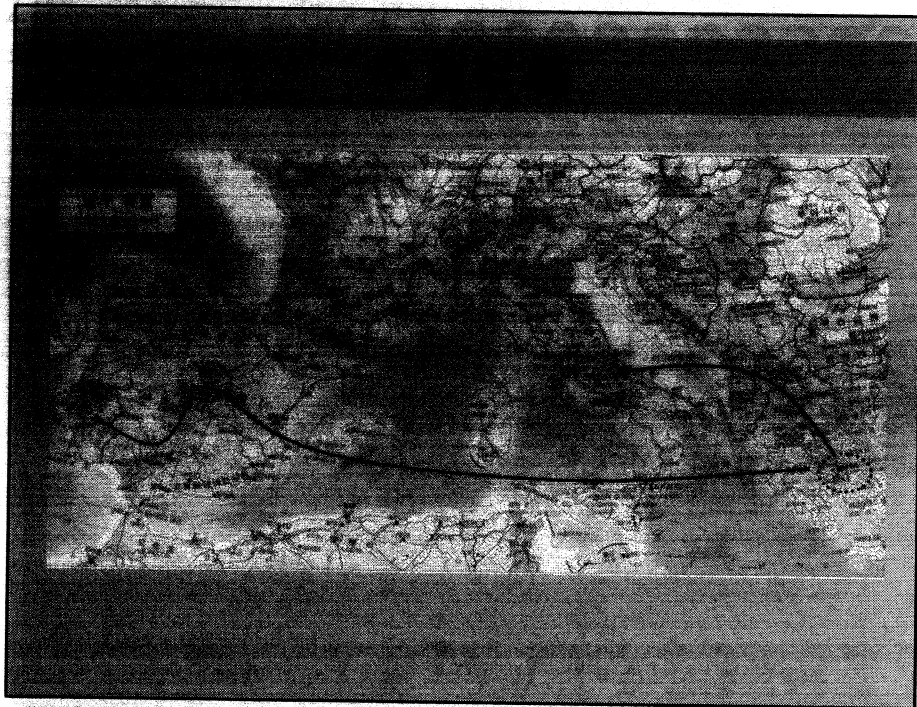
© WOLFF OLING



© WOLFF OLING

2. 대구경북연구원 원내 보고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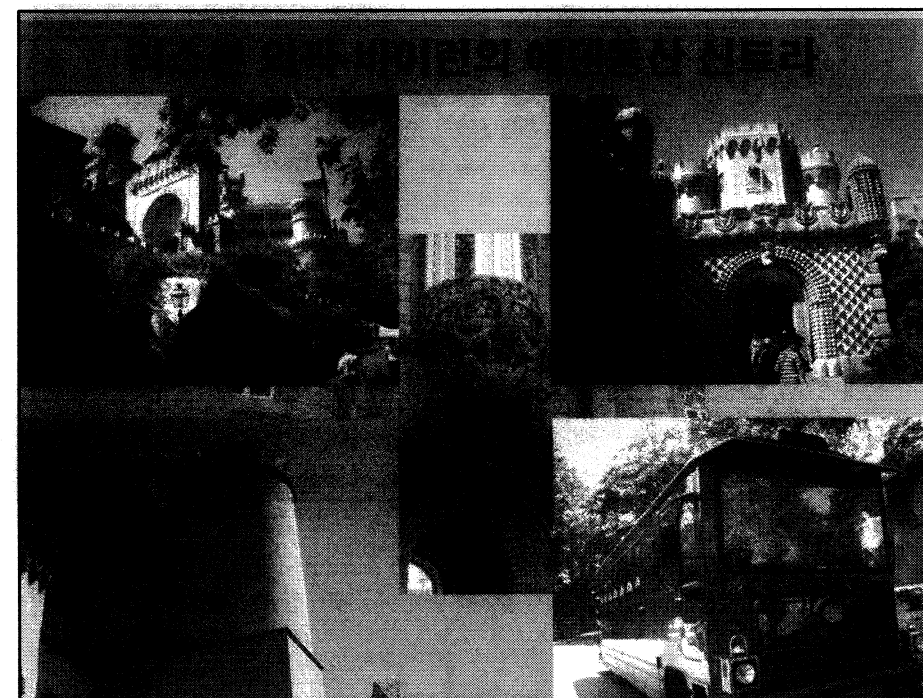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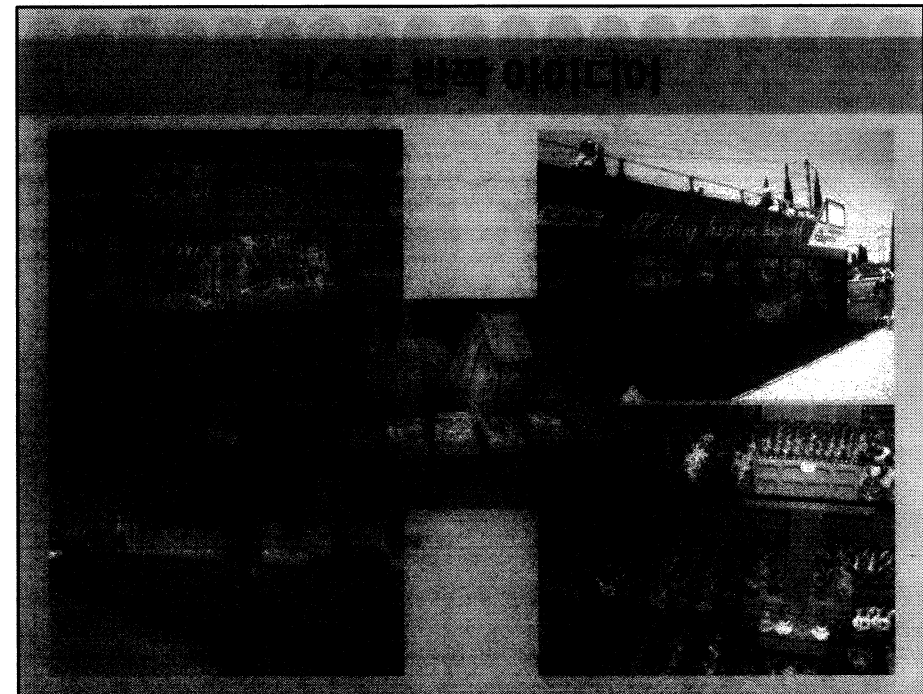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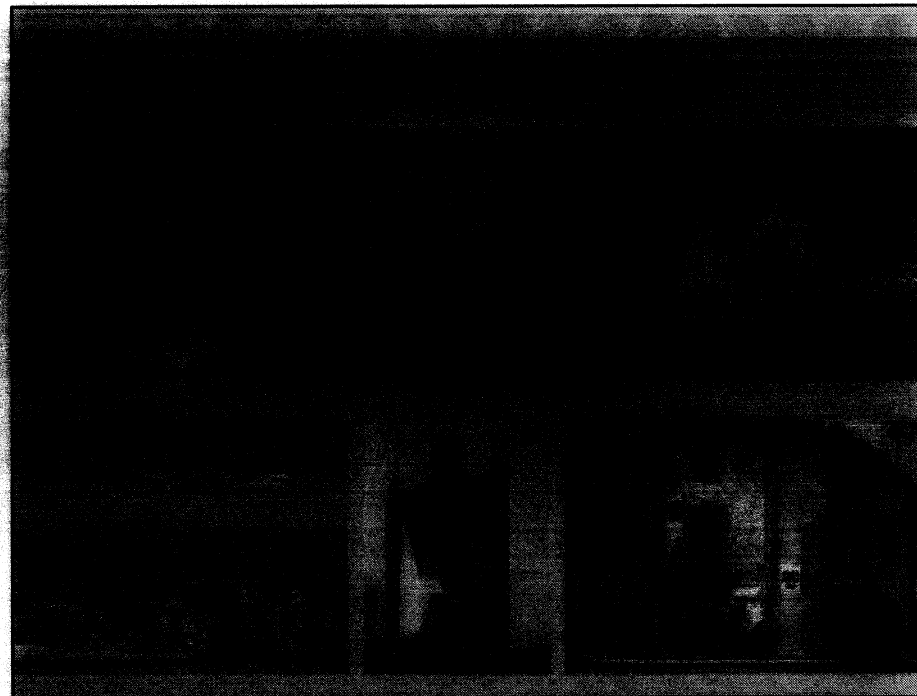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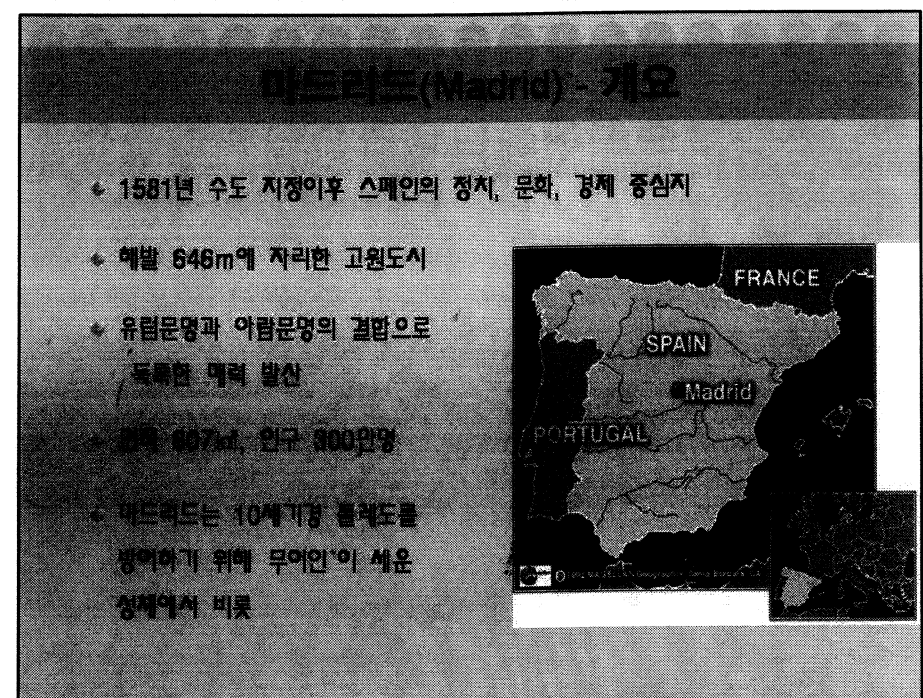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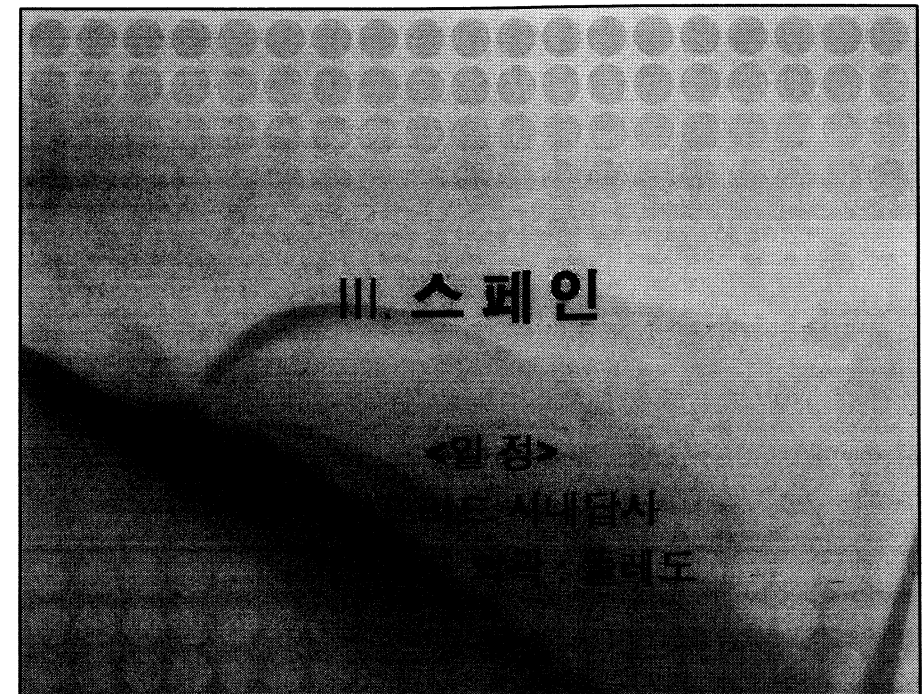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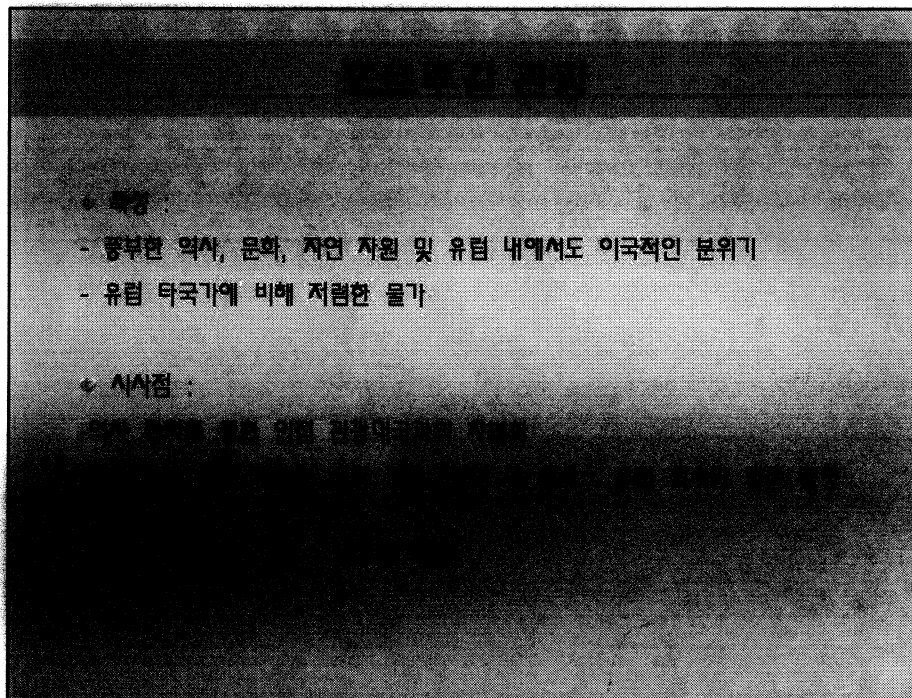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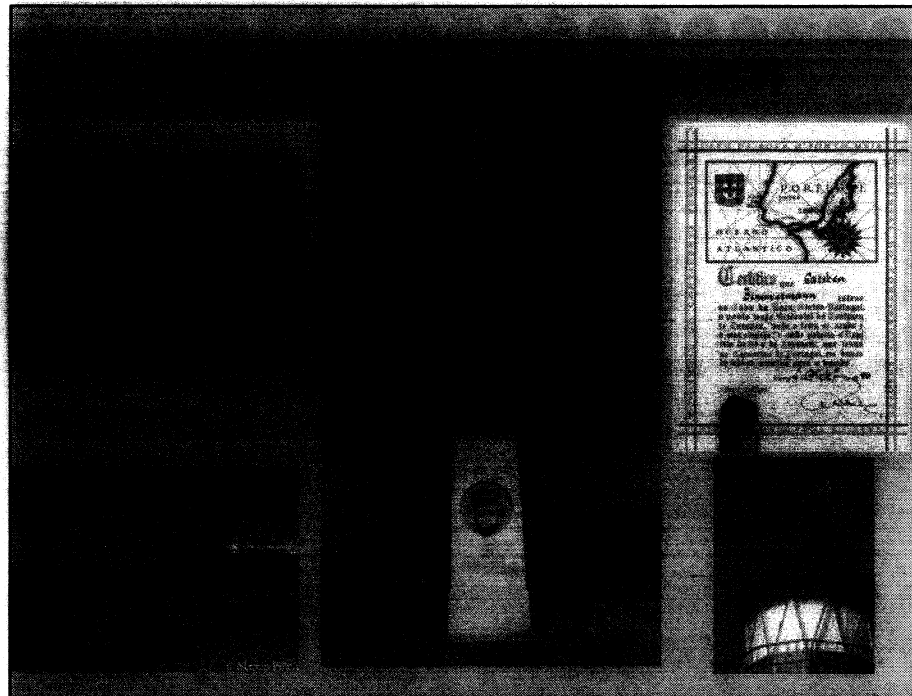
리스본 (Lisboa)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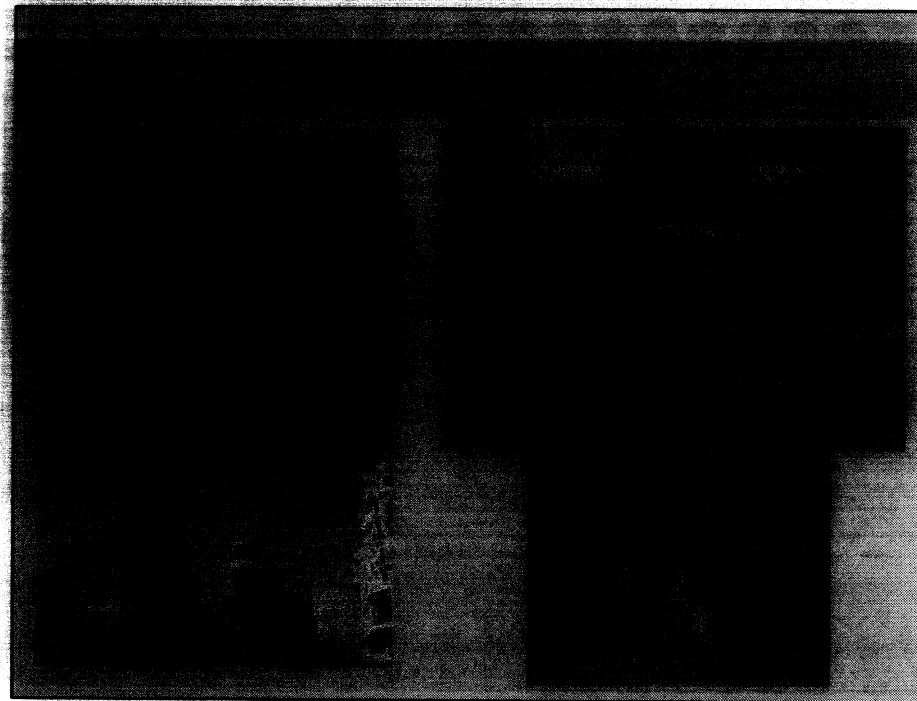
- ◆ 13세기부터 포르투갈의 수도
- ◆ 대항해 시대에는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 칭칭
- ◆ 1755년 대지진으로 인해 18세기 전후의 건축물 대부분 유실
- ◆ 오늘날 리스본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뉘어 독특한 매력 자랑
 - 포르투갈 대항해의 역사를 기념하는 벨렘 지구
 - 옛왕궁을 감지한 동부 구시가지
 - 아름다운 야경 조성된 북부 산시가지
- ◆ 완구 2백만 개를, 영어 명칭 Lisbon, 포르투갈어 명칭 Lisboa

리스본 관광조합 방문

- ◆ 운영 : 정부+시장+관광관련업체
(회원 497개업체)
- ◆ 역할 :
 - 리스본과 리스본 근교에 대한 관광 프로모션 및 관광 소프트웨어 개발 담당
 - 유람선 등 수역사업의 관리 / 운영
 - 관광에 관련된 각종 기획 및 관리 :
 - 유람선, 시티(포르투갈 관광 기구)
 - 리스본 지역 프로모션 기본방향 :
 - 비즈니스 관광 및 City break' 역점
 - 유람선 등 수역사업의 관리 /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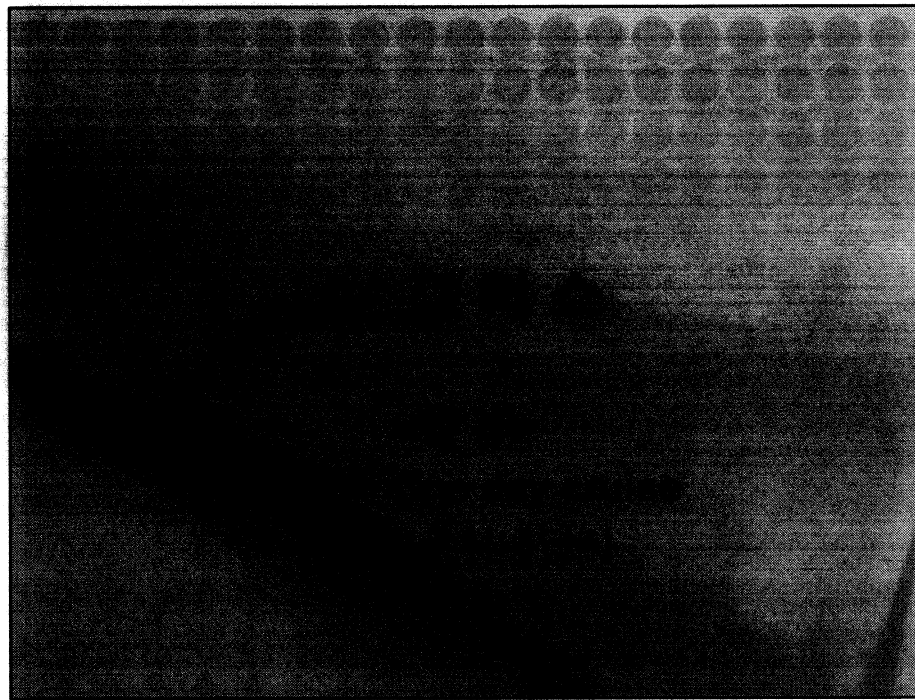


스페인 관광

◆ 시사점 :


- 관광객을 위한 세심한 배려 : 거리 쫓 가꾸기 (2개월에 한번씩 교체)
- 유적지의 현대적 개발 : 전체적 분위기를 고려함과 동시에 대규모 관광객 수용에 대비
- 유적지의 현대적 개발 : 전체적 분위기를 고려함과 동시에 대규모 관광객 수용에 대비

→ 관광과 실리를 만족시키는 삼중적 관광정책



아테네 - 아크로폴리스

- * 산으로 둘러싸인 그리스의 수도
- 옛전에는 천연요새 :
 - * 아크로 폴리스 = 높은 도시
- 오늘날 지형이 도시 팽창에 걸림돌
- * 면적 2,600km², 인구 320만






VI. 시사점

시사점

- ◆ 아이디어 상품개발을 통한 장소마케팅
 - 개보 다 로까 : 유럽 최서단 방문 증명서
- ◆ 관광산업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자국민의 고용창출 증대 노력
 - 4개국 공동 : 주요 관광지마다 자국 가이드 동반필수
- ◆ 효율성을 위한 현대식 인프라 도입과 유적지간 조화로운 개발
 - 통제도 : 걸으로 드러나지 않는 에스컬레이터
 - 통로세움 : 상층부 이동용 엘리베이터
- ◆ 광역적 관광 상품 구성 : 4개국 공동
 - 철거리 및 체류 기간 증대 & 수의 창출
 - 관광 홍보의 경우 국내 뿐 아니라 초국가적 차원에서 접근

집필진

권 영 현 충남발전연구원 산업디자인팀

송 은 정 대구경북연구원 문화관광연구팀

심 진 범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